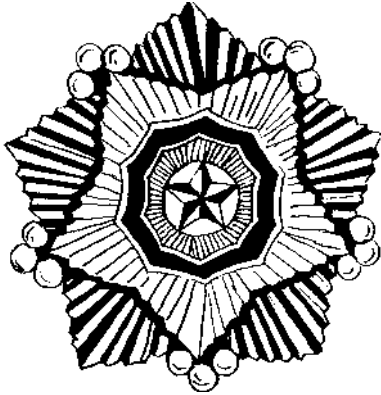




3

주체 101 (2012)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1(2012)년 제3호

(루계 제773호)

## 차례

조국이여 인민이여 2012년이 흐른다(시) .....	리 광 선(3)
백날을 하루같이 오셨네(시) .....	한 원 희(4)
류다른 고향집 화폭(외 1편)(시) .....	량 원 익(5)
끝없는 그리움속에(시) .....	김 충 기(6)
<b>위대한 김일성민족의 100년사와 더불어</b>	
찬연히 빛나는 항일의 혁명적문예전통(론설) .....	최 언 경(7)
<b>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b> .....	(11)
3.8절의 메아리(시) .....	김 선 화(11)
<b>단편소설</b> 세월과 인연 .....	장 선 홍(12)
<b>주체문학의 대강</b> .....	(21)
<b>피끓는 심장으로 선군혁명문학의</b>	
새로운 포성을 울리자(론설) .....	김 려 숙(22)
시 그이의 모습에서 내 보았노라 .....	송 정 우(21)
그리움의 봄 .....	김 재 원(26)
미곡벌의 이 봄은 .....	권 태 여(26)
너희들의 공원은 백배로 아름다와질거다 .....	전 승 일(28)
지원(외 1편) .....	변 홍 영(53)
<b>단편소설</b> 불의 언덕에서 .....	최 정 옥(42)
영원한 품 .....	김 하 늘(29)

위대한 청도자 김정일동지의 궐생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자!

— 공동구호에서 —

○ 기적소리 .....	엄 성 영(27)
수필 장군님 남기신 초물모자 .....	류 경 철(41)
○ 기념비 .....	편 재 순(55)
<b>단편소설</b> 까치봉의 《큰집》 .....	변 영 옥(61)

시

청산리농장원들 별로 나간다 .....	심 재 훈(54)
숲의 미소 .....	박 상 민(57)
새집들이 봄날의 소원 .....	신 현 숙(57)
땅의 고백 .....	서 진 명(58)
탄은 얼마나 뜨거운가 .....	홍 민 식(59)
봄비 내리는 아침 거리에서 .....	김 성 철(59)
석탄, 너와 나는 불타는 하나 .....	류 정 실(60)
미래에로 .....	조 광 철(73)
사랑의 하늘 은정의 바다 .....	정 두 국(73)
휴주머니이야기(답시) .....	김 일 왕(74)
터치리라 복수의 화산을! .....	김 용 엽(75)
갈매가 참개로 된 흥미있는 형상(단평) .....	김 학(76)
향토시인 김소월의 창작세계를 들여다보며(소개) .....	류 병 관(77)
골즈워디와 희곡 《분쟁》(자료) .....	김 명 옥(79)
상 식 .....	(56)

표지2면: 《그리움은 끝이 없네》(노래)

표지3면: 《함남의 불길따라 대혁신, 대비약의 폭풍을 일으키자!》(선전화)

# 조국이며 인민이며 2012년이 흐른다

## 리 광 선

12월의 피눈물고드름을  
오늘도 마음속에 안고있는 우리 인민을  
따사로운 해발로 감싸안아주는  
은혜로운 태양의 밝은 빛발아래  
크나큰 격동으로 날과 날이 흐른다  
조국이며 인민이며 2012년이 흐른다

어버이수령님탄생 100돐을  
**김일성**민족사에 금문자로 빛내이시려  
야전렬차의 쪽잡속에서까지  
이해의 하루하루를 헤아려보시던  
아버이 우리 장군님  
저기 금수산태양궁전에서  
태양의 밝은 미소를 뿌리시며  
2012년의 하루하루를 축복해주시는듯

가슴 벅차오른다  
무적의 땅크사단 근위병들만이라  
온 나라 천만군민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세차게 타오르는 대고조의 불길속에  
선군혁명강행군을 힘있게 이끌어가시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우리 장군님과 함께  
선군의 눈보라길 헤쳐가시는  
정력에 넘치신 그 모습 우러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으로  
내 나라 내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확신하며  
그리도 환희에 넘쳐있지 않았던가

그이가 진정 어떤분이신가를  
우리 천만군민모두에게  
그이가 정녕 얼마나 귀중한분이신가를  
**김일성**민족의 후손들에게  
그이가 정말 얼마나 큰 복을 안고오셨는가를  
우리는 이해 2012년의 매 날과 날들에  
더욱 뜨겁게 절감하거니

조국과 력사와 인민앞에 하시고싶은  
그 모든 격려와 고무의 말쑼을  
팔과 팔을 끼고  
어깨와 어깨를 결어 대신하시며

자신의 심장과 인민의 심장을 굳게 이으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령도자와 인민이 굳게 이은 심장에서  
더욱더 거세차게 타오르는  
선군대고조의 저 불길을 보라  
2012년이여 너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굳게 믿으시여  
우리 장군님 이미 그 승리를 확신하신 해이거니

우리에게 생각되여라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해 마지막날까지  
어이하여 우리 장군님  
강행군렬차를 폭풍같이 내달리시며  
함남의 불길을 지펴올리시고  
새 세기 산업혁명의 포성을 울리시며  
그리도 자신의 심장을 세차게 불태우셨는지

아, 한생을 불같이 살아오신분이어서  
위대한 그 생애를 불길로 총화지으셨는가  
조국과 인민에게 다하지 못하신  
심장속 뜨거운 당부를  
저 불길에 담아 유훈으로 남기셨는가

그래서 바로 그래서  
우리의 **김정은**동지 심장속에  
우리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우리의 장군님은 더더욱 그리웁고  
그 그리움의 열기로  
이해 2012년의 대고조불길은 더욱 뜨거웁거니

조국이며 인민이며 2012년이 흐른다  
쫓구쳐올리라 우리 장군님 지펴주신  
정신력의 불길 창조의 불길 번영의 불길을  
더욱 뜨겁게 지펴올리라  
우리 대고조대오의 진두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

우러르면  
빛나는 그 안팎에  
삼천리 내 조국강산이 다 담겨있는분  
자애로운 그 모습에

조선의 무한대한 힘이 약동하는분  
우리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크나큰 심장속에 뜨거운 불길을 안으시고  
우리 조국을 이끄신다 인민을 령도하신다

**김일성**조선의 새 100년대우에  
영광의 화광이 붉게 어렸다  
《단숨에》 기상을 안고  
천만군민이여 활화산처럼 펼쳐나서라

장군님 지퍼주신 그 불길로  
천만의 심장과 심장을 뜨겁게 달구라

아,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질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100년대가  
인민의 태양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그 자랑스런 력사의 첫 페이지를 펼쳐여  
온 세상에 보란듯이 파시하게 될 이해  
조국이여 인민이여 2012년이 흐른다

## 백 날을 하루같이 오셨네

한 원 희

아침이면 아침마다  
붉은 노을속에 어려왔네  
밤이면 밤마다  
꿈결에도 어려왔네  
세월의 흐름속에 더욱 그림고그리운  
아버이 우리 장군님

못 가신다고 가시면 안된다고  
목메여부르던 인민에게  
태양의 밝은 미소 뿌리시며  
떠나가신 우리 장군님  
하루 또 하루 해가 솟고 날이 저물어도  
장군님 그리움으로 마음 젖어들던 나날이여

그럴 때면 그릴 때면  
먼길을 가시다가 되돌아서신듯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자애로운 아버지  
**김정은**동지 령도를 잘 받들어  
강성부흥의 전성기를 펼쳐라고  
힘을 주셨네 뜨겁게 고무해주셨네

장군님령전에 다진 맹세 지켜  
우리 CNC기계로 제품을 깎아낼 때  
나라의 최첨단과학기술을 꽃피워주신  
그 사랑 그 로고에 때없이 목메여와  
마음속엔 가슴가득 차올랐네  
우리 장군님 생각  
눈앞엔 하늘가득 떠올랐네  
우리 장군님 영상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타번지는  
이 땅 어디서나 기쁜 소식 전해질 때면  
눈시울 뜨거이 안겨왔네  
내 조국의 부강번영의 거센 숨결 안아오신  
철세의 애국자 우리 장군님

그이의 유훈을 어길수 없는 맹세로 새겨안고  
강성국가의 높은령마루를 향하여  
폭풍쳐내닫는 천만군민의 힘찬 대오  
그 진두에 붉은기 휘날리시며  
우리 장군님 나아가시는것만 같아  
그이의 영상을 우러르고 또 우러르며  
억천만배의 힘이 솟구치던 날과 날들

어느 하루 어느 한시인들  
우리 뵈옵지 않은 날이 있었던가  
어느 낮 어느 밤인들  
우리 마음속에 모시지 않은 날이 있었던가  
인민을 위해 다 바치신 한생이 기쁘신듯  
태양처럼 밝게 웃으시는 우리 장군님

아, 우리결을 떠나신지 어느덧 백날이 가까와도  
그이는 가시지 않으셨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결에 더 가까이 오셨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나아가는  
우리 천만군민을 더욱 뜨겁게 안아주시려  
사랑하는 인민과 영원히 함께 계시려  
아버이 우리 장군님  
백날을 하루같이 오셨네

# 류 다 른 고 향 집 화 폭 외 1권

— 국제친선전람관에서 —

량 원 익

내 눈여겨바라볼수록  
마음의 격동 누를길 없구나  
류다르게 형상한 력사의 화폭  
《백두밀영고향집》

서예가도 화가도 아닌  
예짚트군장병들  
우리 장군님께 쓴 축하문들  
화판에 한자두자 옮겨가며  
오랜 나날 아랍문자로 그린 그림

가슴뜨거이 안겨오누나  
눈덮인 2월의 정일봉  
그 숭엄한 모습을 이룬 글발들에서도  
귀틀집뜨락가 서리꽃술 이룬 글발들에서도  
삼가 아뢰이고싶었던 간절한 그 소망

무더운 불별이 쏟아져내리는  
머나먼 아프리카땅에 총잡고 섰어도  
자나깨나 경축의 눈꽃 날리는

2월의 조선에 달려와  
장군님 우리러 경례를 드리고싶던 그 마음  
소중한 말들을 화폭에 담았구나

하늘아래 첫집을 떠나 한평생  
이 세상 찬비 눈비를 다 맞으시며  
인민의 행복과 념원을 꽃피워오신  
**김정일**장군님

그이를 흠모하는 마음을 담아  
문자로 《백두밀영고향집》을 그려 올렸구나  
한생토록 인류의 고향집 안고살  
그 맹세를 담아 올렸구나

그 마음들 오늘도  
우리 가슴 뜨겁게 울려주는구나  
장군님 위대하여 류다른 고향집화폭 태어났다고  
그이는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고  
오, 만민흠모의 화폭이어

## 순양함 《아브로라》호

누구나 가까이 다가가  
숭엄히 다시 보는 정교한 공예품  
10월혁명 력사의 그날에  
압제의 동궁 향해 노한 불을 뿜었던  
순양함 《아브로라》호여

너는 어찌하여 여기로 왔더냐  
혁명의 배신자들이  
크레믈리의 하늘에서 붉은기 내리울 때  
등대를 잃어 항로를 잃고  
실망과 좌절에 몸부림치던 너

오, 너는 높이 우리러보았다  
노을비낀 자주의 항로에서  
마스트우에 붉은기 나뭇기는  
동방조선의 사회주의기함  
그 사령탑앞에 거연히 서계시는  
희세의 령장 **김정일**동지!

너는 그 위대한 사령관을 찾아왔다  
위대한 그 타수를 찾아 여기로 왔다  
너와 함께 암초에 부딪친  
사회주의함선들을 끝까지 바로 이끌어달라고

그이 몸소 쌍안경 드시고  
사회주의승리의 침로를 밝히시고  
무적필승의 거세인 손길로  
번개인양 선군의 보검 높이 들어  
온갖 도전과 궤방의 암초들  
하늘가로 산산이 날려보내실 때

너는 얼마나 기쁨넘친 재생을 맞이했더냐  
너는 신심드높이 그 암초들을 넘었다  
너는 또 얼마나 궁지에 넘쳐 항로를 내다보  
았더냐  
희망의 지평선에서  
사회주의봉우리는 손저어 부르고있었다



아, 오늘도 그이 가리키신  
백전백승 주체의 침로를 따라  
시련의 폭풍도 산악같은 난파도도  
휘갈기며 휘뿌리며 뚫고 헤쳐나가는  
사회주의함선들의 보람찬 항행이어

그 앞장에서  
혁명의 만리대양을 주름잡아 달리는  
사회주의기함— 주체조선은

이제 만민이 우리르는 강성부흥의 력마루  
아름다운 기슭에 닿을 내리게 되었나니

《아브로라》호여 포신들을 높이 들자  
사회주의만세의 환호속에 축포 축포를 울리자  
그리고 10월의 옛 해병들이여  
갑판에 달려나와 엄숙히 대오를 짓자  
희세의 령장 **김정일**동지 우러러  
영생기원의 인사를 드리자

## 끝 없는 그리움속에

김 충 기

푸름푸름  
동이 튼 앞논벌로 서둘러 나가니  
감자포전에 물거름을 실어내느라  
한밤을 새운 우리 관리위원장어머니  
저 멀리 평양하늘 바라보며  
이 아침도 그리움속에 새날을 맞네

그 모습 보느라니  
눈앞에 어려오네  
장군님 가르치심대로 식량문제를 풀자면  
대담하게 두벌농사면적을 늘여야 한다고  
십여년전 그날부터 온 농장의 앞장에서  
발이 닳게 뛰던 그 모습이

어려오네  
좋은 종자 물거름 지극한 정성이면  
논에서도 높은 감자수확을 낼수 있다고  
포전마다 물거름 듬뿍 내고  
알알이 고른 종자 정성다해 심어가꾸며  
애면글면 애를 쓰던 그 모습이

그렇게 해마다  
연백의 논벌에 감자꽃 활짝 피워놓고  
장군님 모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는데  
두벌농사의 본보기를 창조한  
선군시대 농업일군의 전형으로 내세워준  
하늘같은 그 믿음에 미처 보답하지 못했는데

너무도 일찌기

우리 장군님 다시는 뵈울수 없게 된  
그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한 그날도  
피눈물을 삼키며 포전으로 달려나가  
억척같이 일손을 잡았지

우리가 농사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해  
어버이장군님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눈비오는 포전길 많이도 걸으시고  
인민들의 식량문제로 마음쓰시게 했다고  
생각할수록 죄송함에 머리들수 없다고

낮에도 밤에도 포전을 못 떠나며  
이해엔 두벌농사에 더 극성인 어머니  
꿈결에라도 우리 장군님 오신다면  
자나깨나 그리운 그 영상  
잠시라도 문득 뵈울수 있다면

이해엔 연백의 논벌마다에  
감자꽃 더 활짝 피고 밀보리 더 탐스럽게 익었  
다고  
장군님 그토록 마음쓰시던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가 풀리게 되  
었다고

아, 생전에 좀더 일찌기 드리지 못한  
그 한마디 진정의 말을 드리고싶어  
저 멀리 평양하늘 송엄히 우러르며  
어머니는 이 아침도 그리움속에  
끝없는 그리움속에 새날을 맞네

# 위대한 김일성민족의 100년사와 더불어 찬연히 빛나는 항일의 혁명적문예전통

최 언 경

위대한 김일성조선의 영광스러운 100년사의 갈피에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손길아래 우리의 주체문학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로정이 수놓아져있다.

아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여 지난날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지도우에서 그 빛마저 잃었던 우리 조국, 수난의 아리랑민족이 오늘은 민족존엄의 상상봉에 높이도 올라 그 위용을 온 세계에 떨치고있다.

이 나날 민족과 더불어 울고웃으며 주체의 항로에 닿을 올린 이 나라의 민족문학은 20세기를 주체문학의 번영기로 수놓았고 오늘은 세상사람들이 처음보는 선군혁명문학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놓았다.

새 세기를 맞이한 인류의 심장을 격동시킨 21세기의 대결작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과 위대한 천리마시대의 산울림이 오늘의 대고조시대에 다시한번 더 힘차게 울리게 한 김일성상계관작품 경희극 《산울림》 그리고 먼 후날 슬픔의 추억이 아니라 신념과 의지의 추억으로 보람찬 삶을 긍지높이 돌이켜보게 하는 김일성상계관작품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의 경이적인 성과가 그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끈질긴 압력과 봉쇄속에 장장 반세기이상을 살아온 조선에 대하여 초보적으로라도 상식을 가지고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겪은 사상최악의 역경인 고난의 행군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알고있는 사람이라면 이 엄청난 기적의 의의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것이다.

하다면 인류문예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이 기적의 원천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땅속깊이 뻗은 역센 뿌리가 있어 무성한 줄기가 자라고 고운 꽃이 피어 풍성한 열매를 맺듯 우리 수령님께서 지난 세기 항일의 혈전만리, 불바다만리를 헤치시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몸소 마련해주신 귀중한 혁명적문예전통에 그 원천을 두고있다.

우리는 김일성민족의 100년사를 자랑스럽게 돌이켜보는 오늘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께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주체문학번영의 영원한 초석인 영광스러운 혁명적문예전통을 마련해주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거이 되새겨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하신 영광스러운 전통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몸소 마련하신 혁명적문예전통은 우리의 주체적인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유일한 력사적뿌리며 문학예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한 만년초석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문학예술이 영원히 계승발전시켜야 할 혁명적문예전통의 본질이 있다.

항일의 혁명적문예전통이 우리 문학예술의 유일한 력사적뿌리로, 그 발전을 위한 만년초석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의 시원을 이루며 주체의 문학예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고귀한 밑천으로 되기때문이다.

혁명적문예전통의 본질에서 근본핵을 이루는것은 그것이 오직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위대한 수령에 의하여 창시되며 수령의 후계자에 의하여 발전풍부화된다는데 있다. 바로 여기에 혁명적문예전통의 정수가 있으며 그것이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이 이어받아야 할 유일한 혈통으로 되는 근거가 있다.

수령이 이룩한 혁명적문예전통만이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을 한피줄로 련결시키며 사회주의문학예술이 대를 이어 영원히 꽃피날수 있게 하는 무궁무진한 생명력의 영원한 원천으로 된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문예리론은 혁명적문예전통을 수령의 혁명위업과 결부시키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적문학예술에 관한 완벽한 사상을 내놓으시였을뿐아니라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광스러운 혁명적문예전통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적문예전통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 때 우리의 문학예술은 그 혁명적본성을 확고히 고수할수 있으며 그 어떤 우여곡절도 없이 주체의 한길을 따라 찬란히 개화발전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적문예전통이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또한 그 내용이 비할바없이 심오하고 풍부하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항일의 혁명적문예 전통에는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의 전력사적행정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주체의 문예사상과 이론,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어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고귀한 업적이 집대성되어있다.

항일의 혁명적문예전통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이론이다.

주체적문예사상과 이론은 혁명적문예전통형성의 사상리론적기초로서 새시대의 요구에 맞는 혁명적문학예술을 어떤 립장과 관점에서 어떻게 창조해나가야 하는가 하는 문학예술의 근본문제에 가장 올바른 해답을 주고 그 성과를 확고히 담보하는 사상리론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문예사상은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에 기초한 문예학설로서 문학예술창조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보고 대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예사상이다.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바로 여기에 주체적문예사상의 독창성과 진리성이 있다.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인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주체적문예사상이 창시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사상사에서는 물질중심의 문예관으로부터 사람중심의 문예관으로의 역사적전환이 이룩되었다.

주체적문예사상은 주체사상을 진수로 함으로써 인류문학예술이 일찌기 창조해본적이 없는 자주적인 인간전형,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전형창조의 초행길을 개척하였다.

주체적문예사상은 주체사상을 구현함으로써 인류문예사상 처음으로 문학예술로 하여금 인간이 자기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에 맞게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길을 밝힐수 있게 하였다.

주체적문예사상은 주체사상을 구현함으로써 또한 문학예술로 하여금 인간의 사상의식이 세계의 변혁과 개조에서 노는 결정적역할과 인간의 무한대한 힘을 남김없이 보여줄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명실공히 참된 인간학, 주체의 인간학의 탄생을 불러온 역사적사변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문예사상과 이론에는 혁명적문학예술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문제, 문학예술창작에서 주체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킬데 대한 문제,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을데 대한 문제,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킬데 대한 문제 등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밝혀져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에 창시하신 주체적문예사상은 그 진리성과 독창성, 내용의 심오성과 풍부성, 과학적완벽성으로 하여 인류문예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할뿐아니라 자주성을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전력사적행정에서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영원한 향도적기치로 된다.

항일의 혁명적문예전통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풍부한 창조경험과 고귀한 업적이다.

혁명적문예전통의 가치는 그것이 어떤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창시되었는가 하는것과 함께 어떤 문학예술작품을 가지고있는가 하는데 의하여서도 중요하게 규정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혁명적문학예술이 혁명투쟁에서 노는 중요한 역할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걸음걸음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쳐나가야 하는 준엄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항일혁명문학예술의 창조발전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이리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일찌기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혁명적인 문학예술, 자주시대 문학예술의 본보기로 되는 주체적인 문학예술이 창조발전하였으며 그 한편한편의 작품들은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하는 힘있는 혁명의 무기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과정에 우리 문학예술이 계승발전시켜야 할 풍부한 창조경험과 고귀한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항일혁명문학예술이 이룩한 경험과 업적은 무엇보다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참된 인간학의 본보기, 혁명적수령관이 투철하게 구현된 자주시대 혁명적문학예술의 참된 본보기를 마련한데 있다.

그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사상 처음으로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인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이 창시된것이다.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이 창시됨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은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부터 이 세상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독창적인 길을 개척할수 있었으며 해방후에도 주체의 한길을 따라 줄기찬 발전의 길을 걸을수 있었다.

항일혁명문학예술이 이룩한 업적에서 그 핵을 이루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의 정수이며 주체의 문학예술발전을 끊임없이 떠밀어주는 영원한 생명선이다.

수령이 직접 창조한 고전적명작에 의하여 이룩된 혁명적문예전통은 그 어떤 혁명적문예전통에 비할바없이 위대하다고 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제사를 다 둘러보아도 수령이 본보기작품을 직접 창작한 실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로지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뛰어난 문학예술적천품을 지니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위대한 주체사상과 주체적문제사상이 완벽하게 구현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창작하실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초기혁명활동시기와 항일무장투쟁을 준비하시던 시기에 혁명연극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성황당》, 《3인당》, 《딸에게서 온 편지》, 《혈분만국회》, 《지주와 머슴군》과 혁명가요 《사향가》와 《조선의 노래》 그리고 혁명가극 《꽃피는 처녀》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친히 창작하시고 그 공연과 보급사업을 몸소 지도하시였다.

이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조국해방의 열망으로 충만되어있으며 나라 잃고 수난당하는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혁명의 길에 나서야 한다는 심오한 혁명의 진리를 밝히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불후의 고전적명작 《반일전가》, 《조선인민혁명군》, 《조국광복회10대강령가》를 비롯한 혁명가요들을 창작하시여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항일무장투쟁으로 힘있게 고무하시였다.

주체24(1935)년 1월 하순 제1차 북만원정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귀로에 오르신 길에서 축한을 만나시여 40도를 오르내리는 고열속에서도 대원들을 고무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또 하나의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요 《반일전가》를 지으신 못 잊을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시기에 또한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비롯하여 《경축대회》, 《아버지는 이겼다》, 《승냥이》 등의 혁명연극들을 창작하시여 투쟁만이 살길이라는 심오한 진리를 밝히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이 세상 그 어느 문학도 누릴수 없는 주체사실주의문학의 크나큰 자랑이며 조선민족의 더없는 영광이고 긍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창작하시였을뿐아니라 항일혁명문학예술의 창조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이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드린 우리 인민의 첫 혁명송가인 《조선의 별》을 비롯하여 《적기가》, 《유격대행진곡》, 《자유가》, 《불평등가》, 《계급전가》, 《인민주권가》, 《녀성해방가》를 비롯한 혁명가요들과 혁명연극들이 수많은 창조공연되였다.

참으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창조발전된 항일혁명문학예술은 그 투철한 혁명성과 예술적완벽성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제전통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항일의 혁명적문제전통의 내용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문학예술의 창조사업을 령도하시는 과정에 창시하시고 전면적으로 확립하신 혁명적인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이다.

류레없이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문학예술을 창조한다는것은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강毅한 의지와 불굴의 혁명정신을 요구하는 더없이 간고한 혁명사업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항일혁명문학예술창조사업을 몸소 조직령도하시면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문학예술창조와 공연활동을 전투적으로, 기동적으로 벌려나가는 혁명적기풍, 문학예술창조사업에서의 집체적원칙, 문학예술창조와 보급사업을 군중적으로 벌리며 조성된 환경과 조건, 대상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할데 대한 원칙과 방법 등 혁명적인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을 창시하시고 그를 전면적으로 구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하신 혁명적인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은 그 혁명성과 우월성으로 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는 물론 주체문학건설의 전행정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하신 혁명적문제전통은 주체적인 문제사상의 독창성과 진리성,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의 혁명성과 우월성, 혁명적문학예술창조경험의 풍부성과 업적의 위대성으로 하여 주체문학예술건설의 전행정을 방향지어주고 떠밀어주는 영원한 생명력으로 되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제전통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적문제전통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주체문학의 크나큰 자랑이며 조선의 영광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적문제전통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철저히 옹호고수되고 빛나게 계승, 발전풍부화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의 혁명문학예술전통은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이룩되고 당의 령도밑에 빛나게 계승되고 발전풍부화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학예술을 령도하시는 첫 시기부터 혁명적문제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을 주체문학예술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보시고 주체문학예술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일관한 방침으로 내세우시였다.

력사적경험과 오늘의 현실이 말해주는바와 같이 혁명의 대가 바뀌는 시기에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후퇴하면 문학예술전설에서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빚어낼뿐아니라 혁명의 대가 끊어질수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작가들을 혁명적문예전통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무엇보다도 불후의 고전적명작들과 항일혁명문학예술작품들을 전면적으로 발굴고증함으로써 그것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확고한 기초를 마련하시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새로 발굴고증되어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전해지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항일혁명문학예술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문학예술혁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들에 옮기는 사업을 빛나게 실현하시고 그 과정에 영화혁명, 연극혁명, 가극혁명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소설을 비롯한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에 옮기는 사업을 혁명적문예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중심고리로 보시고 이 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들에 옮기는데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원작에 무조건 충실하는것이라고 밝혀주시였다.

원작에 무조건 충실한다는것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의 종자를 그대로 살리며 그 높은 사상예술성을 자그마한 손색도 없이 옮겨놓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들에 옮기는데서 원작에 바탕을 두면서 옮겨지는 예술형태의 특성을 잘 살리는것을 다른 하나의 원칙으로 내세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하고도 정력적인 지도밑에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들에 옮기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혁명소설의 본보기가 창조되고 《피바다》식가극과 《성황당》식연극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이것은 혁명적문예전통의 계승발전에서 이룩된 거대한 력사적사변이였다.

특히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로 옮기는 과정에 영화예술의 혁명전통이 새롭게 마련된것은 혁명적문예전통을 발전풍부화하는데서 이룩한 특기할 사변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가장 빛나는 불멸의 업적의 하나로 된다.

지난날 우리 혁명의 력사적특수성으로 하여 항

일혁명투쟁시기에는 혁명적영화들이 창조될수 없었으며 따라서 혁명적인 영화전통이 이룩될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피는 처녀》,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등을 영화로 옮기는 사업을 친히 받기하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여 최상의 사상예술적수준을 가진 본보기 영화작품들을 창조하심으로써 주체의 혁명적영화전통을 마련하는 빛나는 력사적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이것은 혁명적문예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풍부화하는데서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질 빛나는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참으로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광스러운 혁명적문예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속에서 주체의 혈통을 순결하게 이어받은 참말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개화발전하여 20세기 문예부흥기에 이어 오늘 선군혁명문학예술의 일대 전성기를 맞이할수 있었다.

우리 작가들은 아버지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몸소 마련해주신 것처럼 위대하고 것처럼 영광스러운 혁명적문예전통을 가지고있는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가슴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혁명적문예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영원히 빛내임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신심도 드높이 락판에 넘쳐 새로운 주체100년대에도 우리의 주체문학, 선군혁명문학의 보다 찬란한 개화기를 펼쳐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적업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창작실천에 구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서 문학예술혁명을 령도하시는 과정에 세워주신 주체적인 창작지도체계와 창조체계를 철저히 고수하고 발전시키며 영화혁명, 가극혁명, 연극혁명의 나날에 높이 발양된 혁명적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로 옮겨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 사업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창작된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을 고수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 선군시대 명작창작에서 일대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의 준엄한 불길속에서 마련해주신 혁명적문예전통은 우리 주체문학의 혁명적뿌리이며 영원한 생명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해주시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빛내여주신 이 튼튼한 뿌리가 있어 우리의 주체문학은 강성번영하는 **김일성**민족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토록 개화번영할것이다.

##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 속에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여성중대는 우리 나라 군건설력사상 처음으로 생겨난 여성전투구분대였다.

여성중대의 탄생은 수천년동안 고질화되어왔던 남존녀비사상과 인습을 라파하고 여성들의 정신적지위와 사회적지위를 실제적으로 남성들과 동등한 수평선상에 올려세운 하나의 사변이었다.》

《우리는 군사분야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으로써 비록 우리 혁명군에 국한된것이기는 하지만 여성해방을 실제로 이룩하였다.》

《혁명군에 여성중대가 있고 그 여성중대의 대원들이 남성군인들 못지 않게 잘 싸운다는것은 마구에 전민족이 다 아는 사실로 되었고 세계를 경탄시키는 의의있는 화제거리로 되었다.》

## 3 . 8 절 의 메 아 리

김 선 화

예나 다름없이  
강산엔 청신한 봄기운 감돌고  
어머님 그리는 마음 더욱 간절하니  
예갈지 않구나  
이 봄에 찾아온 3.8국제부녀절은

들려오누나  
메아리치누나  
한아름 꽃을 받아안은 가슴에  
조국해방최후결전을 앞둔 봄날  
3.8절기념 사격경기장에 울려퍼진  
항일의 녀장군 김정숙어머님의 명중사격소리  
명사수의 비결 묻는 대원들에게  
조용히 속삭이던 목소리

애어린 손에 용약 총을 잡고  
항일의 혈전만리  
날리신 총탄 그 얼마라  
오, 신비스럽다 그 사격술  
나타나는 목표마다 백발백중

경기장이 떠나갈듯 터져오르는 환성  
꽃속에 묻힌 녀전사에게  
권총을 수여하시는 사령관동지  
송이송이 향기로운  
그 꽃송이같은 이 나라 녀인들을 수호하라고  
3.8절 이 아침 총을 주시는가

한손에 틀어잡으신 권총  
허나 잡으신 그 총의 사명은  
얼마나 거대한것이었던가  
한목숨바쳐 태양을 옹위해야 한다!

이 하나의 생각으로 노력 또 노력하면  
누구나 백발백중 명사수가 될수 있다고  
총의 사명 혁명의 사명을 일깨워주시며  
또다시 방아쇠를 당기시는 어머님

땅!  
그 총성과 함께 산야에 메아리치는  
어머님의 목소리  
땅!  
그 불꽃과 함께  
이 땅 수백만 총대와 총대에  
다사하의 넋을 재워주는 권총이어

아, 봄빛 아롱지는 3.8국제부녀절  
꽃속에 노래속에 축복받은 녀인들과  
그 녀인들을 길이 사랑해마지않는  
이 땅의 남아들아  
우리 다시 뜨겁게 안아보자  
백두의 호위장군 어머님의 총성!  
수령결사옹위의 고결한 목소리  
**김일성**장군님은 민족의 태양  
한목숨바쳐 태양을 옹위하자!

그 총성 그 목소리  
우리 잠시라도 잊고 산다면  
천만송이 그윽한 꽃의 향기도  
웃음소리 쏟아지는 밝은 창문도  
3.8절 녀인들의 행복도 없다  
없다! 강성부흥하는 조국도  
없다! 부강번영할 미래도  
아, 못 잊을 3.8절의 메아리여!

# 세월과 인연



장 선 홍

1

진국사업으로 분망한 날과 날들을 이어가시는 **김일성** 동지께서는 밤새우며 보시던 문건들에서 눈길을 떼시었다. 지린(길림)에서 머나먼 푸쑹(무송)지방에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간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자주 머리에 떠오르곤 하시었다.

집 무실창문으로 아침해빛이 따뜻하게 흘러들었다. 대동강변의 버들가지들에 파랗게 움이 트고 봄기운이 완연하지만 아직 꽃샘하는 바람이 때없이 불곤 하여 별이 좋은 때였다.

그이께서는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가시었다. 정원의 전나무며 살구나무잎들에도 진하게 푸른 물이 오르는것이 눈에 띄게 알리었다. 마치 새 사회건설로 활기를 띤 조국의 숨결이 자연에도 깃든 것 같은 감미로운 느낌이 드신다.

푸쑹지방으로 간 립성철에게서도 회소식이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하는 아쉬움을 금할수 없시었다. 다른 지방으로 간 동무들에게서는 반가운 소식들이 있는데 먼저 평양을 떠난 그는 아직 만나야 할 유가족들을 찾지 못했다고 하였다. 지린 쪽으로 나가 더 알아보겠다고 한다.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으니 그보다 더 긴 세월이 흐른 오늘에 와서 그들을 모두 찾는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이께서는 서운한 심정을 삭이기 힘드시었다. 그 생각이 자주 일손을 멈추게 하였다.

그이께서는 다시 한명 한명 이름을 꼽아보시었다. 모두 찾아야 할 혁명가유가족들이었다.

립성철을 만나고 온 로기봉의 보고에 의하면 먼 지린지방에서 왔다가 만나지 않고 되돌아간 사람이 있다는데 그가 누구인지 짐작이 가지 않으니었다.

지린은 그이께서 청년시절에 혁명투쟁을 한 잊

지 못할 고장이었다. 동지들도 많고 학우들도 은인들도 많은 곳이다. 그 사람들을 다 헤아리자면 끝이 없었다.

문득 그이께서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서시었다. 언제 들어왔는지 가족가방을 옆에 낀 얼굴이 별에 탄 로기봉이 서기와 함께 서있었다. 동북지방을 다녀온 그에게 한번 더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싶어 부르셨던것이다.

《립동무에게서 먼 지린지방에서 왔다가 돌아간 사람이 혹시 누구같더라고 짐작하는 말이라도 들은게 없소?》

그이의 어조에는 자못 곡진한 기대가 실리었다.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더라도 한듯 로기봉의 얼굴이 금시 흐려졌다.

《없습니다. 그저… 푸쑹의 한 늙은이가 언제인가 독립군들이 마을에 들렀을 때 중대장을 한 사람같다고 얼핏 지나가는 말로 했다는것밖에…》

《독립군중대장?!…》

그이께서는 언뜻 뇌리에 장철범로인의 얼굴을 떠올리시었다. 조국에 나와 그를 만나고싶어 여러 곳에 알아보시고 지린에도 사람을 보냈는데 그곳에 없다는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은근히 걱정도 하고 서운하게도 생각하시었다. 나라가 해방된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먼저 달려나왔으리라고 믿으셨었다.

푸쑹과 깊은 인연이 있다면 장철범이 분명했다. 어머님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그를 만나러 지린으로 가시던 일이 어제런듯 눈앞에 안겨왔다.

그이께서는 1년남짓한 기간 장철범로인의 집에서 지린육문중학교에 다니시었다. 타향설움이 많은 때 어머님의 슬하를 떠나왔으니 집생각이 더 나겠다면 팔을 걷고 손수 국수를 놀려주던 로인의 모습이 기억되시었다. 교조보다 송편맛이 어떤가고 물으며 조선민족의 고유한 식생활풍습에 대

해서도 많은 일화를 들려주곤 하였다.

그해 정월대보름날에 있는 일이었다. 조직성원들과 중요한 문제들을 토론하고 돌아왔을 때는 밤이 깊었다. 그이께서는 집식구들을 깨울새라 조용히 발끝걸음으로 옷방으로 들어가시었다. 그런데 잠든줄만 알았던 아래방에서 등잔불이 켜지더니 장철범의 굵은 목소리가 울렸다.

《어서 아래방으로 내려오게.》

조심히 사이문을 연 그이께서는 깜짝 놀라시었다. 집안식구들이 모두 깨여있었다. 방 한가운데 놓인 큰 두리반에는 송편과 메밀국수 등 명절 음식들이 한가득 차려져있었다. 온 집안식구가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그이께서는 가슴이 뜨거우시었다.

《나를 기다리느라고 아직 식사를...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이야 명절이 아닌가. 푸쑹에 계시는 어머님이라면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식사를 하겠냐. 차당께서도 이밤을 그냥 보내지 못하실걸세. 차린건 없지만 어머니가 차려준걸루 알고 식사를 하자구.》

로인은 수저를 들려주며 혼연히 말했으나 그이께서는 세월이 흐른 후에도 오래도록 그때 일이 잊혀지지 않으시었다. 그런 웅심깊고 대바른 로인이어서 독립군 상충부가 과벌싸움을 일삼는데 환멸을 느끼고 그들과 단호히 결별을 선언하였고 세월이 흘러 나이가 지숙한 때에도 일제가 9.18사변을 일으키고 전 만저우(만주)를 거의 집어삼킨데 분노하여 왕더린(왕덕림)구국군부대에 찾아가 손에 무장을 들고 반일투쟁에 참가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왜 그 로인이?...

장철범로인이 푸쑹에까지 나왔다가 평양손님을 만나지 않고 지린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잘 이해되지 않으시었다.

로기봉이 방에서 나간 후에도 그이의 뇌리에는 이 의혹이 좀처럼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생활에는 여러가지 딱한 경우도 있는것이여서 그이께서는 거기에 대해 더 생각을 많기로 하시었다. 만나보고싶은 애뜻한 정이 마음속에 그들덕이 차오른다.

그이께서는 의자에 앉아 집무탁에 흰 종이를 꺼내놓으시었다.

《그간 년로하신 몸 건강하십니까?...》

활달한 필치로 한자한자 편지를 써나가시는 그이의 눈앞에 파격하면서도 인정깊은 장철범로인의 거룩한 얼굴이 생동하게 그려지시었다.

그이께서는 가족과 함께 속히 한번 조국에 나오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간곡히 적으시었다. 미흡한데가 있는것 같으시여 한번 더 반복하여 읽어보신 다음 네모지게 접어 편지봉투속에 정히 넣으시었다.

오후에 엔비엔(연변)쪽으로 가는 인편이 있어 편지를 보낸 후에도 그이의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오래도록 남아 자주 일손을 멈추곤 하시었다.

## 2

평양은 해방의 감격과 환희로 들끓었다. 역전거리 어디를 둘러보아도 새 조국건설의 기쁨과 랑만이 차넘치고 힘이 약동했다. 지난날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활력이 거리와 집집마다 깃들어있는 듯싶다.

역앞에 나온 장철범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며 사방을 두리번거리었다. 맞은편에서 그를 눈여겨보던 한 젊은이가 걸어왔다.

《혹시 장철범선생님이 아니십니까?》

《예.》

장철범은 열결에 대답하였다.

《울구만요. 반갑습니다. 저하고 같이 가십시오. **김일성**장군님께서 선생님을 마중하라고 저를 내보내셨습니다.》

상냥한 젊은이의 말에 어리둥절해졌던 장철범은 불시에 눈언저리가 젖어들었다.

《장군님께서요?》

《그렇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지금 지방에 나가계십니다. 저에게 선생님의 얼굴모색을 하나하나 말씀해주시며 편의를 잘 보아드리라고 하시었습니다.》

장철범은 부지중 놀라운 생각이 들었다. 역사앞에는 승용차까지 서있었다.

마중나온 젊은 사람은 친절하였다. 자기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못된다고 몇번이나 나직이 일렀으나 로기봉이라고 자기 소개를 한 그는 기어코 로인을 차안으로 떠밀었다.

가족들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시내를 달리는 장철범의 마음은 송구하기 그지없었다.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으나 가슴은 큰 빔을 진 때처럼 불안스레 들뛰었다. 손으로 가슴을 더듬자 품속에 간직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보내주신 편지가 감촉되었다. 그러자 마음이 다소 안정되었다.

불쑥 평양에서 손님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지린에서 푸쑹으로 불원천리 달려갔다가 돌아서던 일이 어제런듯 삼삼히 눈에 밟혀왔다.

예로부터 푸쑹은 소나무가 많은 고장으로 린근에 소문이 났다. 복산과 동산 그리고 멀리 서쪽으로 뻗은 마뉴산(마우산)에도 단색으로 붓질을 한듯 그쫘한 소나무숲이 일매지게 펼쳐졌다. 그 송림이 바람에 흔들릴 때면 마치 군중이 손을 들고 환호를 하는것 같았다. 보는 사람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는 풍경이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건단 그날은 바람 한점 없고 송림도 움직이지 않아서인지 마음이 그닥 개운해지지 않았다.

장철범은 천천히 양지촌(양지촌)을 벗어나 송화강(송화강)지류들이 합치는 여울목쪽으로 나갔다. 강웃쪽에서 물기를 머금은 서늘한 바람이 건듯 불어왔다. 김형직선생님과 이 강변을 거닐며



조선독립운동을 론하던 푸쑹시절이 떠올랐다. 얼마나 희망이 크고 신심에 넘쳐 뛰어나셨던가.

사실 그는 그때가 그리워 김형직선생님의 묘가 있는 여기 양디촌에 더 자주 찾아오곤 하였다.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을 쓰십니까? 얼굴색이 좋지 않습니다.》

사색을 깨칠가 저어해서인지 말없이 조용히 따르기만 하던 박성국의 물음에 장철범은 아픈 곳을 찢리운듯 흠칫하며 이마살을 찡그렸다.

그 심정이 리해되었다. 그가 먼 지린에까지 찾아와 평양에서 손님이 왔다는 소식을 전해주자 장철범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물론 평양손님은 산에서 싸운 투사들의 유가족들을 찾으라는 **김일성** 동지의 령을 받고 나왔다지만 장철범은 여기로 달려오며 줄곧 김형직선생님께서 드디어 해방된 조국땅에 가시게 되었구나, 고향 만경대로 가시게 되었어 하는 오직 이 한가지 생각만을 하였다. 평양손님을 만나면 어서 아버님의 묘를 만경대로 모셔가도록 **김일성** 장군님께 여쭙어 달라고, 나라가 해방된지가 언제인데 아직 이국땅에 있으니 도리가 되었는가고 단단히 오금을 박을 잡도리었다.

평양에는 이제 곧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한 학원도 선다고 하였다. 나라에서 유자녀들을 맡아 공부도 시켜주고 돌봐준다는것이다. 세상에 이보다 고마운 일이 또 어디 있으랴.

그런데 막상 그 손님을 만날 시간이 박두하진 않았고 잊고있던 지난날의 일들이 상처가 덧난듯 자꾸 쑤셔나 견디기 힘들었다.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자책감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음 하고 심장이 비틀리우는듯 한 신음소리를 내었다.

《분명 평양손님이 공영에 대해 물었소?》

장철범의 목소리는 퍼그나 갈리었다.

《예, 공영선생님의 부인과 딸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알만 한분들이 없는가고 묻기에...》

십분 리해할수 있었다. 공영은 한때 그와 독립군시절을 보낸 잊을수 없는 사람이었다.

1925년인가 일제가 김형직선생님에 대한 수사망을 펼쳤을 때도 그들은 선생님을 호위하여 푸쑹에서 린장(림강)으로, 그곳에서 또 바다오거우(팔도구)로 먼길을 걸었다. 그 나날 그들은 운명을 같이할 동지로서만이 아니라 형제와 같은 남다른 인연을 맺었다.

그러나 판디엔(판전)회의와 청수동회의이후 서로 본의아니게 차츰 멀어지는것을 느꼈다. 천도교인이 많은 평안북도 삭주지방에서 태어나 독실한 천도교인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며 독립군들이 세운 양실학교를 졸업한 장철범은 완고한 민족주의자였던탓으로 하여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무산혁명에로의 방향전환을 할데 대한 판디엔회의 사상을 잘 받들지 못하였다.

공영은 시대사조인 공산주의사상을 심장으로 받

아들이고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과 뜻을 같이 하였다. 그는 조선혁명군대원으로서 조선북부국경일대에 진출하여 무장소조활동을 벌리다가 장렬하게 최후를 마쳤다.

장철범은 나라를 위해 한몸바친 그의 장거를 높이 샀다. 하지만 독립군들과 결별을 한 사람이어서인지 그의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였다. 남편을 찾아 어린 딸을 업고 푸쑹으로 나와 김선생님댁에서 묵는 그의 안해를 한번 본 기억이 남아있을뿐이었다.

지금도 그에 대해서는 더 다르게 생각되는것이 없었다. 그렇지만 **김일성** 장군님께서 푸쑹에 사람을 보내시면서 아버님의 묘에 대해 일절 내비치지 않았다니 서운한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배움의 천리길을 걸어 고향 만경대로 나가시었다가 아버님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린장을 거쳐 푸쑹으로 가시는 김선생님의 아드님을 말파리를 몰고 마중하던 일이 아직도 눈에 삼삼했다. 그때에도 공영이 동행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던 그 가을미여지던 1926년 6월 5일, 푸쑹 샤오난문(소남문)거리의 추녀났은 집에는 독립운동자들이 많이 모였다.

장철범은 오동진, 량세봉, 공영을 비롯한 독립운동자들과 함께 김형직선생님의 령구를 메고 푸쑹의 좁은 샤오난문거리를 걸었다. 그들은 선생님의 시신을 송화강이 흐르는 푸쑹 양디촌에 안장하였다.

그날 독립운동자들은 김선생님 아드님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이어갈 굳은 맹세를 읽었다. 오늘 **김일성** 장군님 령솔하에 조국해방의 성업이 이루어졌거늘 해방된 조국땅으로 먼저가셔야 할분은 김형직선생님이시였다.

그가 지린에서 푸쑹으로 달려온것은 바로 그때문이였다. 그런데...

여울목에 시선을 박은 장철범의 가늘게 쪼프린 눈가에 서글픈빛이 한껏 어리었다. 송화강 상류에서 불어오는 센 바람이 희속희속한 머리칼을 흘날렸으나 그는 까딱않고 그런듯이 서있었다. 이윽고 그의 굵은 목에 받들린 큰 머리가 절레절레 흔들리었다.

《이보게, 성국군.》

장철범은 각근히 정을 담아 불렀다.

《예.》

바루 다가선 젊은 사람의 숨결이 피부에 감촉되었다. 박성국의 아버지는 독립군에서 싸우다 희생되었고 그도 한때 아버지의 원쑤를 갚겠다고 군복을 입고 장철범의 부하로 있은터여서 그들은 서로 친분이 두터웠다.

《난 아무래도 일이 생기여 지린으로 돌아가야 할가보네. 임자가 김선생님의 묘를 빨리 만경대로 모셔가도록 잘 말씀드려주게.》

《아니, 먼길을 오셨다가 그렇게 가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박성국이 등실하게 치뜬 눈을 껌뻍껌뻍하며 만류하러들었으나 장철범은 단호하게 일축했다. 미안한 심정은 이루 말할수없이 컸으나 별다른 수가 없었다.

나라의 독립을 운운하면서도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을 리해하지 못하여 외면하고 질시하다 못해 테로까지 한 민족주의자들의 죄많은 과거가 가슴을 허비고들었다. 그 의로운 젊은이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옥되게 한것이 없다고 해방된 조국에 버젓이 나타나 년장자형세를 하며 인간의 도리를 운운하는것은 리치에 닿지 않았다.

차라리 자기는 나타나지 않는것이 좋았다. 그는 장철범이라는 이름이 **김일성**장군님의 기억속에 상기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마음을 모질게 먹고 돌아서자니 뿌연게 흐려진 눈자위에 핑그르르 맑은 눈물이 고여올랐다....

장철범은 폐장을 훑어내듯 모두숨을 내불었다.

승용차는 여전히 해방의 기쁨이 넘쳐나는 평양의 거리를 질주하고있었다. 차안의 눈길은 모두 차창밖에 쏠려있어 누구도 그에게 주의를 돌리지 않는것이 다행이었다.

장철범은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어 눈가를 닦았다. 그에게는 거리의 풍경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묵은 상처는 지긋게도 또 눈앞에 그 일을 떠올렸다.

그때 일들을 생각하면 얼굴에 솟불을 끼었는것 같았다.

《가만!》

장철범은 평양에 왔으면 만경대부터 다녀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도의감이 뇌리를 쳐 차를 멈춰세웠다. 로기봉은 하루밤 쉬고 다음날 가는것이 어떤가고 사정하듯 말하였으나 한번 마음먹으면 끝은배기인 그는 끝내 뿌득뿌득 차에서 내리었다.

### 3

대동강이 멀지 않은 강안일대가 낮익었다. 걸어서 만경대로 가고싶었다.

대동강바람을 맞으며 동쪽길을 따라 휘적휘적 걸어 나지막한 야산기슭을 돌아서니 소나무들이 무성한 만경봉이 바라보였다. 수십년만에 오는 걸음이어서 자못 가슴이 설레었다. 대동강에 뿌리를 박고 웅장하게 솟은 만경봉은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답다왔다.

오늘 그 만경봉이 더욱 유정하게 안겨왔다. 만경봉기슭에 안침지게 들어앉은 초가이영을 한 농가도 바라보였다. 로기봉이 저 집에 장군님의 조부모님들이 계신다고 귀띔했다.

집근처에 이르자 남새밭머리에서 년세는 많으나 아직 정정한, 키가 후리후리하고 기품이 느껴지는 로인이 호미를 놓으며 마주 걸어오시었다. 장철범은 로인의 얼굴에서 대뜸 김형직선생님의 모색을

알아보고 황황히 허리굽혀 인사를 올리었다.

김보현선생님께서서는 장철범의 이름을 익히 들으신듯 《아, 독립군중대장이구만. 고생이 많으셨겠소.》 하고 오랜 구면지기처럼 반갑게 맞아주시었다.

《우리 말이가 자주 외우군 해서 이름을 잘 알고있었소. 그러니 처음 만나지만 우린 구면인셈이지요. 안 그렇소?》

《그렇습니다.》

로인님의 소탈한 품성에 장철범은 가슴이 후터워졌다.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밖에서 이럴수 없지. 어서 들어갑시다.》

김보현선생님께서서는 사립문에 들어서시자 시원하게 여기서 이야기하자시며 손수 프락에 멍석을 내다피시고 내 손으로 가꾼 겨울난 고구마를 맛보라며 크고 먹음직스럽게 구워진것을 골라 권하시었다. 오래동안 헤어졌던 식솔들이 모여앉은듯 프락에는 화기에애한 정이 흘러넘치었다.

《난 말이에게서 동지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 알고있소.》

김보현선생님께서서는 힘이 장사이고 독립군에서 명사수로 소문이 자자했던 장철범이어서 그의 이름만 들어도 왜놈들이 벌벌 떨었다는 일화도 웃으면서 하시었다.

《어쩌면 그렇게도 총을 잘 쏘시었소? 정말 용하시오.》

장철범은 웅색스러워 전딜수가 없었다.

김형직선생님의 믿음에 보답할 대신 너무도 거리가 멀게 살아온 자기였다. 화제는 자연 조국해방의 날을 보지 못하고 간이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장철범은 지원의 뜻을 품으시고 나라를 찾기 위해 갖은 고난을 헤쳐오신 김형직선생님의 투쟁을 구체적으로 전하기 위해 애썼다. 그리고 옥중고초와 동상후파로 세상을 떠나신 선생님을 푸쑹 양디촌에 안장한 사연도 말씀드렸다.

김보현선생님께서서는 심중의 아픔을 누르시는듯 량미간을 좁히시며 대통을 끄당겨 잎담배를 다저넣으시었다. 농사로 마디가 굵어진 손이 가늘게 떨리는것이 알렸다. 이어 독한 담배냄새가 프락을 감돌았다.

장철범은 김형직선생님과 함께 조국으로 나오지 못한 죄책감이 더욱 가슴에 사무치여 김선생님의 묘지를 옮겨모시는 일로 오게 된 사연도 말씀드렸다. 그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자기를 부르신것은 그때문이라고 믿고있었다.

김보현선생님께서서는 묵묵히 그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었다. 만경봉 술숯을 더듬으시는 눈가에 하 많은 추억이 안겨오는듯 물기가 번들거리었다.

장철범은 자기가 좀더 일찍 조국으로 나오지 못한 죄책감에 가슴이 빠근했다. 그러나 김보현선생님께서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었다.

오히려 《그럼 선생은 조국에 아주 나오게 아니시 오?》 하고 장철범의 일에 대해 저으기 놀라신 어 조로 물으시었다. 장철범은 목언저리를 쓸며 입안 소리로 대답을 얼버무리었다.

김보현선생님께서서는 말 못할 사연이 있다고 짐작하신듯 더 묻지 않으시었다. 오래도록 담배만 태우시었다.

장철범은 김보현선생님께서 왜 아드님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실가 하는 의문이 생기었다. 사전에 토의가 있었다면 말씀을 하지 않으실리 없었다. 김보현선생님께서서는 그의 심중을 헤아리 신듯 손으로 입을 가리고 조용히 기침을 하시더니 위로하듯 말씀하시었다.

《사람이 살면 천년을 살겠소, 만년을 살겠소. 나라찾는 싸움에 한몫 바치는것처럼 장한 인생이 어디 있겠소. 조국이 해방되었으니 난 우리 아들, 며느리가 살아돌아온것만 같소.》

애국의 감정이 절절히 흐르는 말씀에 장철범은 머리가 수그러졌다. 이런 훌륭한분을 모시여 김형직선생님께서도 **김일성**장군님께서도 그리고 일가분들모두가 혁명을 위하여 한몸바쳐 싸울수 있는것이 아니라 하는 새삼스러운 충격에 심장의 박동이 빨라졌다.

《여기 우리 만경대에 혁명가유자녀학원이 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오. 나도 정말 기쁘오. 암, 우리 만경대에야 나라를 찾는 싸움에 기여한분들의 자손들을 위한 혁명가유자녀학원이 서야 하구말구.》

무거운 공기를 밀어내며 침착하게 울리는 김보현선생님의 말씀은 둘러앉은 사람들의 마음을 드세게 흔들었다. 장철범은 의아해진 눈길로 로기봉을 바라보았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만경대에 혁명가유자녀학원을 세우자고 여러차례 말씀하시었습니다.》

로기봉은 평양공설운동장에서 조국인민들에게 개선인사를 하신 그날 20년만에 고향 만경대를 찾으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여기에 **김일성**중학교를 세우게 해달라는 고향사람들의 제의에 만경대에는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한 학원을 세워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신 사연을 감동깊게 들려주었다.

(아하!... 그랬었구나.)

평양에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한 학원이 선다는것만 알고있던 장철범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장군님께서서는 조국해방을 위해 싸우다가 희생된 동지들의 유가족들과 혁명투쟁을 도와준 은인들을 모두 조국으로 부르시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북지방을 다녀왔습니다.》

공영의 유가족들과 여러 사람들을 찾는것을 직접 목격한터여서 장철범은 크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장철범은 로기봉을 따라 혁명가유자녀학원이 일떠설 건설장도 돌아보았다. 그는 세상을 떠나서도 장군님의 품속에 안겨 영생하는 혁명가들과

장군님께서 조국으로 부르신 혁명투쟁연고자들이 얼마나 돋보이고 부러운지 몰랐다. 뗏뗏이 살아오지 못한 자신의 지난날이 몹시 후회되였다.

#### 4

전화를 받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빠른 걸음으로 집무실을 나서시었다. 복도를 거쳐 현관문을 여시는 그이의 얼굴에는 환하게 미소가 어리였다. 명주바지저고리에 무명두루마기를 입고 중절모를 쓴 로인이 정원으로 들어서고있었다. 그 모습은 젊은 시절 군복을 입고 푸송시내를 위풍당당하게 걸던 독립군중대장과는 너무도 대조를 이루었다. 하지만 뼈대가 굵은 다부진 체격이며 입을 꼭 다문 얼굴에서는 여전히 범접하기 어려운듯 한 기운이 넘치였다.

그이께서는 무등 반가우시여 《선생님!》하며 마주 걸어나가시었다.

《먼길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장군님!》

기쁨과 감격으로 번쩍이는 장철범의 눈에 그렇 하니 샘물이 고여올랐다.

《이게 몇해만입니까, 가족들이랑 다 잘있습니까?》

《예, 장군님덕분으로 오랜간만에 평양구경을 하게 되어 정말 고맙습니다. 해방된 조국땅을 밟으니 이를데없이 감개무량합니다.》

장철범은 걱정으로 목이 메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나라잃은 설움을 얼마나 뼈에 사무치게 체험한 우리 인민입니까. 하물며 빼앗긴 조국을 찾자고 손에 무장을 잡고 나섰던 분들이야 이국땅에서 하루한시인들 조국을 잊은적 있었겠습니까.》

장철범은 입귀를 실룩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흥분을 진정할길 없어 손수건을 꺼내어 짓물러진 눈귀를 짖는 로인의 심정이 헤아려져 따뜻이 부축하시며 정원에 놓인 의자로 다가가시었다.

장철범은 그이께서 권하시는 담배를 받아 불을 붙이고 연기를 여러번 삼킨 후에야 비로소 숨을 돌리였다.

《가족들이랑 함께 조국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일가식솔들의 얼굴이 떠오르시여 한사람한사람 이름을 불러가시며 안부를 묻고 살아온 정형도 자상히 들으시었다. 장철범은 그이께서 허물없이 대해주실수록 왜서인지 불안해하고 송구스러워했다.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부자연스러움을 **김일성**동지께서는 서운하게 감촉하시였다.

《보고싶었습니다. 지린에 있을 때 우린 1년나마 함께 살았으니 한집안식구라고 할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가족들이랑 여기로 같이 오실걸 그랬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슴속 정회를 누를수 없으시여 로인의 거울진 손을 다정히 감싸쥐고 오래도록 어루만지시였다.

《선생님이 만경대에 가시여 우리 할아버님을 만나보셨다는 말을 로동무에게서 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 자주 나가보지 못하는데... 그런데 선생님은 왜 이제야 조국에 나오셨습니까? 난 조국에 나오면 선생님을 먼저 만나게 될줄 알았습니다.》

마주잡은 그이의 손을 통해 흘러드는 따뜻한 온기에 취한듯 자기를 가뭇 잊고있던 장철범은 저도 모르게 흠칫하고 몸을 떨었다. 술진 장미가 일어서고 얼굴빛이 흐려졌다. 그는 고지식하고 솔직한 사람이였다. 량심에 저촉되는 일을 하고는 순간도 견디기 힘들어하였다.

《죄를 짓다보니 용단을...》

《예?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의아한 시선으로 로인을 지켜보시였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주의자들이 저지른 지난날의 일들이...》

《...》

그이께서는 잠시 시선을 멀리 하늘가에 보내시였다. 편협한 일부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조선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였던 난관들을 하나둘 떠올리시였다. 그 생각은 남만청총대회때 구이모산(피모산)골짜기에서 학살된 렬사들이며 비렬한 테로분자에게 살해되었다는 최창걸에게로 이어졌다...

장철범의 심정이 리해되시였다. 그때 그의 중대는 그 부근에 주둔하고있었다.

《면목이 없소이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보낸 편지를 받으시고도 인차 조국으로 나올 결심을 못하였습니까?》

《예, 차마 그럴 용기가...》

그이께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진실한 인간은 언제나 자신에게서 먼저 부족점을 찾는 법이였다.

《선생님의 심정을 알만 합니다. 그런데 그제 왜 선생님의 잘못이겠습니까?》

《예?》

《나도 그때 일이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우리와 리념이 달라도 나라를 찾으려는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애국심을 소중히 여겨주지 않았습니까? 지린에서 선생님의 집으로 나를 찾아오는 우리 동무들을 아무때나 따돌이 맞아주던 그 모습을 잊을수 없습니다.》

장철범은 눈곱이 화끈해지며 감정을 묵새기기 힘들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군님... 그건 집주인으로서 제 응당...》

**김일성**동지께서는 장철범을 가볍게 부축하시며 다시 의자에 앉히시였다.

《선생님, 고정하십시오. 나를 지난날처럼 그저 성주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때 일로 더는 마음쓰지 마십시오. 조국이 해방된 오늘에 와서 무엇보다도 지난날의 그런 일을 들추겠습니까. 지금 어려웠던 그 나날들에 우리를 도와준 은인들이 많이 찾아오고있습니다. 그런데 손에 총을 들고 왜놈들과 싸우고 우리를 진심으로 도와준 선생님과 같은분이 조국이 해방된 오늘에도 우리를 땃땃이 찾아오지 못하고 괴로워하고있는 모습을 보니 나는 가슴이 아픕니다.》

장철범은 그이의 하늘같은 도량과 하해같은 사랑과 믿음에 그만 목이 짝 메였다. 그의 주름진 두볼로 불시에 붉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군복을 입은 로기봉이 다가와 거수정례를 했다. 등뒤에 먼길을 오느라 해별에 얼굴이 검실검실하게 그슬린 박성국이 서있었다.

《장군님, 푸쵡에서 박성국동무가 유자녀들의 주소를 몇명 알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이의 안광이 기쁨으로 환하게 밝아졌다.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로동무에게서 박성국동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박성국은 황송하여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그이께서는 유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솟구치는 흥분을 금치 못하시였다. 장철범은 가슴이 후터웠다.

《오늘 그림던 사람들을 만나 정말 기쁩니다. 오후에 만경대의 혁명가유자녀학원건설장에 나가기로 약속이 되었는데 마침입니다. 우리 다같이 나가보는게 어떻습니까?》

박성국은 류달리 얼굴이 벌겋해져 희열을 감추지 못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장철범을 부축하시며 옆에서 걸으시였다.

대동강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경치좋은 곳에 일떠서는 만경대혁명학원건설장은 련일 불도가니처럼 끓어번지였다. 어디 가나 맡겨진 과제를 기한전에 끝내려는 경쟁의 기백이 느껴지고 량만적인 노래소리가 울렸다.

공사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기본청사건물의 기초가 다져지고 보조건물들도 굴착작업이 거의 끝나가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여 얼굴에 웃음을 띄우시고 건설현장을 이윽도록 바라보시였다.

이 기세로 나가면 몇달안에 공사를 결속할것 같

았다. 완공된 교사에서 원아들이 마음껏 노래를 부르며 공부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희열로 그이의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다.

학원건설지휘부의 낮익은 일군이 달려와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었다.

그이께서는 건설자들의 수고가 헤아려져 일을 많이 했다고 치하하시고 건설자들이 일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었다.

장철범은 땅을 파헤치고 건물의 기초를 한 교사의 규모가 길가에서 보던 때와는 달리 굉장히 크고 웅장한데 놀랐다. 해방전의 판청이나 회사 건물들과는 대비가 안되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웃으시며 유자녀들이 공부할 전당인데 무엇을 아끼겠는가고, 앞으로는 침실도 음악실도 따로 크게 짓고 병원도 지으려 한다고 따 뜻이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교사가 완공되면 들여놓아야 할 비품들도 미리미리 갖추어야 하는만큼 한달전에 그와 관련하여 준 과업이 어떻게 집행되고있는지 걱정되시어 뒤에 따라선 일군들에게 물으시었다. 인민들의 성의로 그 물품들이 계획보다 많이 확보되었다는 보고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그렇습니까, 그럼 어서 가봅시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건본들을 가져다놓은 건물로 먼저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시었다.

그이를 따라 어느 한 방으로 들어선 장철범은 입이 썩 벌어졌다. 빨강고 노란 여러가지 고운 색깔의 고급모포들과 햇솜을 두툼하게 넣고 누빈 이불들이 책상위에 놓여있었는데 모포는 털이 얼마나 부드럽고 폭신한지 아이들이 덩굴어도 주름이 잡힐것 같지 않았다.

《아이들이 좋아하겠구만. ...》

그이께서는 기뻐할 원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생동하게 그려져 가슴이 젖어드시었다.

장철범은 일군들이 모임장소로 쓰는 큰 방의 넓은 벽면에 그려붙인 원아들이 입게 될 학원복도안을 보고 그만 가슴 한복판이 쿵 하고 울리는것 같은 충격에 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바지에 꿇다란 붉은 줄을 드리우고 저고리팔소매에는 사람 인자모양의 덧줄을 두른 학원복은 보기에다 희한스러웠다.

부도없이 람루를 걸치고 돌아갔을 애들이 저런 옷을 입는다니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그 심정이 이해되시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학원복바지에 두른 붉은 줄은 혁명선열들의 뜻을 잇는다는 상징이라고 학원복에 깃든 사연을 하나하나 설명해주시었다. 장철범은 크게 감동되어 장군복처럼 보인다고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렸다.

《그렇습니까.》

소리내어 웃으시던 그이께서는 근엄한 안색을

지으시며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원아들은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 굶주리고 쫓겨다니면서 일제놈들에게 누구보다 극심한 천대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 애들은 자기 부모들이 혁명가였기때문에 남이 공부할 때 공부도 못하고 어려서부터 나무짐을 져야 했고 수모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게 가슴이 아파 전우들은 눈을 감으면서 나에게 자기들은 비록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보지 못하지만 조국이 해방되면 자식들을 공부시켜 인민의 훌륭한 충복이 되도록 잘 키워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우리는 조국에 개선하자 곧 혁명렬사들의 유자녀들을 찾았으며 이 학원을 세우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 애들의 부모들이 무엇때문에 피흘리며 싸웠겠습니까. 우리 인민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산에서 싸울 때는 나라가 없어서 희생된 전우들의 자식들을 돌보지 못했지만 나라가 있는 오늘에야 우리가 왜 원아들을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우지 못하겠습니까. 유자녀들을 잘 키우는것은 우리 혁명가들의 도리이고 의무입니다.》

걱정으로 갈리신 그이의 음성은 가까스로 이어졌다. 방안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나라를 찾고보니 해방된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만저우광야에 묻혀있는 전우들 생각이 더 간절해집니다. 전우들의 부탁대로 자식들을 공부도 시키고 부모들도 조국에 나와서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락을 누리도록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에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

**김일성** 장군님께서 김형직선생님의 묘를 옮겨오는 일로 부르시였을것이라고 방금전까지 믿고있던 장철범의 가슴은 꿈만 같은 일에 부닥쳐 당혹감으로 후둑후둑 뛰었다. 류레없이 간고하고 장구한 혁명의 길에 가슴아픈 손실과 희생인들 없으랴만 떠나간 동지들의 삶을 지켜주고 빛내주시려는 그이의 위대한 동지적의리의 세계는 참으로 고결하고 숭엄한것이였다.

그러나 어려운 때 리념이 달라 외지길을 걸은 사람이 그 사랑을 받는다는것은 너무도 인생리치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장철범은 황황히 머리를 가로저었다.

《장군님! 전 그런 사람이 못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나라를 위해 손에 총을 들고 싸운 애국자입니다. 지린에서 헤어진 후 나는 선생님이 9.18사변의 참상에 분노하여 젊은 나이도 아닌데 왕더린부대에 들어가 손에 다시 총을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파시 장철범선생님은 반일애국의 뜻을 변함없이 간직한 훌륭한분이시로구나, 내 생각이 옳았구나 하고 내가 간직했던 믿음을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눈가죽이 내리드리운 장철범의 크지 않은 눈이

놀라움으로 흠뻑 젖었다.

《그렇습니다. 나는 산에서 싸울 때도 자주 선생님과 한식술처럼 지내던 지린시절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손정도목사님이며 자오하(교하)에서 나를 구원해준 이름모를 아주머니도 생각하고 우자쓰(오가자)의 은인들도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면 선생님과 우리를 도와준 고마운 은인들, 동지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혁명을 더 잘해야 하겠다는 결심도 굳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국에 돌아오면 선생님을 먼저 만날줄 알았습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로인의 손을 꼭 잡으시고 환하게 웃으시었다.

《장군님!》

《선생님, 해방된 조국에 오셨는데 가슴을 펴고 마음껏 락을 누리십시오.》

장철범은 가슴에 차고넘치는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그럴수록 자기가 아직 할바를 못하고있다는 자책감에 속이 뜨끔했다.

장철범은 버쩍 고개를 들고 김형직선생님의 분묘를 빨리 조국으로 모셔오자고 간절히 말씀올렸다. 천묘는 내가 할테니 장군님께서 고향 만경대에 나가시어 좋은 묘소자리를 잡아달라고 솔직한 심정도 터놓았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잠시 놀라신 표정으로 장철범을 바라보시었다. 이윽고 그이의 존안에는 깊은 감동의 빛이 어리었다.

《나도 아버님의 친지분들이 일제놈들의 눈을 피해 우리 아버님의 묘를 돌보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로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철범은 송구하여 얼굴이 붉어졌다.

《무슨 말씀을... 그거야 웅당 제가... 조국이 해방된지 벌써 퍼그나 날과 달들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알만 합니다. 그 심정을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예?》

장철범의 술진 장미가 가볍게 움지려거렸다. 멀리 하늘가에 시선을 보내신 그이의 눈가에 불시에 추연한 빛이 가득 서리었다.

《나는 이국의 산야에 전우들의 시신을 수없이 묻고온 사람입니다. 지린시절로부터 카론(카룬), 구위수(고위수), 왕칭(왕청)... 항일혁명투쟁의 긴 20성상 얼마나 많은 동지들이 우리결을 떠나갔습니까. 그들중에는 전장에서 시체도 못 남기고 간 동지들도 많습니다. 그 귀중한 전우들의 유해를 아직 다 조국으로 옮겨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들의 묘도 옮겨오지 못했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이의 음성은 아픔으로 갈리었다. 손수건을 꺼

내시는 손이 가늘게 떨리고 안팎에는 안개 같은 것이 어리었다. 혁명의 길에서 먼저 간 동지들에 대한 그이의 고결한 인품에 장철범은 가슴이 찢어졌다.

《장군님, 제가 그만 주책없이 때를 가리지 못한 것 같소이다. 하지만 이국의 산야에 묻힌 자식들을 기다리시는 만경대의 조부모님들도 생각하고... 또 이젠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먼곳의 자식들을 그리시는듯 만경봉의 솔숲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던 김보현선생님의 모습이 떠올라 장철범은 누구나 마음속깊이 바라는 진정을 담아 절절히 말씀드리었다.

《조국해방을 위해 한생을 바치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얼마나 이날을...》

결에 서있던 박성국도 감정이 격해져 말을 잊지 못했다.

그이께서는 미간의 주름을 펴시며 장철범의 손을 꼭 잡으시었다.

《내가 만경대고향집에 갔을 때 할머니에게 연포리주막집에서 아버님의 탈출을 도와준 황씨로인 이랑 라오예령(로야령)의 조태주로인이랑 우리를 도와준 고마운 은인들의 생사여부를 안 다음에 아버님의 묘를 옮겨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도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아픈 심정을 마디마디에 담으시며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장철범은 걱정으로 숨이 차올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마음을 얼마간 안정시킨 후 웃으시며 혁명가유자녀학원건설문제에로 화제를 돌리시었다. 그이의 말씀을 주의깊이 듣고있던 박성국이 성큼 한걸음 나섰었다.

《장군님, 조국해방을 위해 긴 세월 산에서 찬바람과 눈비를 맞으시며 싸우신 장군님께 한 일도 없는 놈이 럽치불구하고... 소청을 올려도 됩니까?》

**김일성** 동지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무슨 일에게 그러니까? 어려워말고 어서 말씀하십시오.》

《저같은 사람의 자식들도 학원에서 공부를 시켜줄수 있습니까?》

《학원에서요?》

《전 나라를 위해 한 일이 없지만 자식들을 조국에 내보내어 건국에 한몫 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박성국의 무엄한 요구에 장철범은 민망스러워 한마디 말씀올렸다.

《저 사람 아버지는 한때 우리 독립군중대에 있었는데... 김형직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원통하게도 일본놈들의 총에 맞아 희생되었습니다.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고 저 사람이 독립군에 들어왔는데... 제가 잘 도와주지 못하고 군복을 벗으니... 뒤따라 뛰쳐나오고말았습



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아들도 다 독립운동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공영이 그 사람처럼 김형직선생님의 말씀대로 김장군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나같은 완고한 민족주의자들을 따라다니다니니... 아까운 젊은 시절을 헛살았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웃음을 거두고 신중한 표정을 지으시었다. 장철범은 공연히 허물을 들춘것만 같아 후회막급하였다.

그이께서는 장철범의 심정이 이해되시었다. 세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대오에는 공영이나 최창걸이와 같은 독립군출신 청년들이 많았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 한복숨 서슴없이 바친 참된 혁명가들이었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을 이해하지 못하여 멀리하고 지어 적대시한 독립군들도 있었지만 새 사회에 민감하지 못하다고 나무라는것은 무리였다. 사상의식은 하루이틀에 형성되고 달라지는것이 아니기때문이었다.

《나라를 찾자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니까. 아버지도 아들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제와 싸웠다니 다 애국자들입니다. 혁명가유자녀학원은 지난날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싸우다 희생되었거나 지하에서 싸우다 희생된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의 유자녀들을 교육교양하는 학교이며 여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장차 조선혁명을 떠메고나갈 기둥감들입니다. 아들을 데려다 공부를 시킵시다. 새 조국건설의 기둥감으로 잘 키웁시다.》

그이의 한없이 너그럽고 고결한 인품에 장철범은 눈앞이 확 흐려졌다. 김일성장군님은 진정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온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한품에 안아 지켜주고 빛내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이시구나, 우리 만백성의 태양이시구나 하는 격찬의 웨침소리가 심장에서 터져나오는것만 같았다. 그 품은 설사 지난날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도 새삶을 누리도록 억센 숨결을 부어주고있었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박성국은 무릎을 꿇으며 오열을 터뜨렸다.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힘을 합쳐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건설하자고 합니다. 나라를 찾기 위해 피흘려 싸운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을 우리 당과 인민은 영원히 존경하고 떠받들것입니다. 박동무, 돌아가면 내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박성국이 몸가짐을 바로하고 정중히 우러랐다.

《동북지방으로 가는 여러 동무들에게 부탁했는데 아직 공영동지의 가족을 찾지 못했습니다. 며칠전에 벽동에서 올라온 농민대표를 만나 물어보았는데 공씨생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 그런 이

름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향에도 없으니 아직 푸송지방에 있지 않는지 좀 알아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이랑 가족들이랑 데리고 인차 조국으로 나오십시오. 새 조국건설에서 한몫 단단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장군님.》

박성국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었다.

로기봉이 장군님께 돌아가실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드리면서 만경대고향집에 들려가시자고 나직이 간청하였다. 곁에 있던 일꾼들도 너도나도 말씀올렸다.

《김보현선생님께서 어제 많은 지성품을 가지고 마을사람들과 함께 건설장에 다녀가셨습니다. 자주 오시여 건설자들의 일손도 도우십니다.》

그이께서는 감동이 크신듯 만경대생가가 자리잡은 만경봉기슭을 오래도록 바라보시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할아버님이 제일 기뻐하실 겁니다.》

그이의 음성은 젖어있었다.

이윽고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늘 저녁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 다음번에 꼭 들리겠다시며 장철범에게로 돌아서시었다.

《선생님, 아직 나눌 이야기도 많은데 나와 함께 차를 타고가면서 계속하십시오. 내 심정을 알고 로동무랑 우리 동무들이 선생님이 가족들과 함께 살 새집을 하나 마련했는데 마음에 들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나라도 해방이 됐는데 평양에서 우리 지린시절처럼 한집안식구로 모여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띄우시고 정넌치는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장철범은 성대가 굳어진듯 숨길이 졸아들어 겨우 입안소리로 들릴락말락 읊조렸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소이다.》

세월이 흐르면 지나간 일들은 희미해지고 잊혀지기마련이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은 생사운명을 같이한 혁명동지들은 물론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서 잠깐 주고받으신 정도 세월이 흐를수록 가슴속에 더욱 소중히 간직하는분이시라는것을 장철범은 오늘 심장으로 느끼었다.

그이는 진정 생활속에서 한번 맺으신 인연은 멀리 세월이 흘러가도 변함없이 심중에 보석처럼 지니고 빛내주시는 인간중의 참인간이시었다. 그 위대한 품에 우리 인민이 안겨살고 민족이 안겨있었다.

그이를 수령으로 모신 조선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리라는 환희와 걱정으로 하여 장철범의 가슴은 무등 설레었다. 승용차는 부강한 새 조선의 미래를 앞당겨올듯 들쭉향기가 그윽한 강변길로 경쾌하게 달렸다.

## || 주 체 문 학 의 대 강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으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주체의 문예관은 사람을 가장 진실하게 그리며 인민대중을 세계와 자기 문명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실로 사실주의적인 문학예술을 창조하기 위한 우리 시대의 가장 옳바른 문예관이다.》

《주체의 문예관은 자주시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체현하고있다.》

《새시대의 문학예술앞에 나선 과업은 작가, 예술인들이 주체의 세계관에 기초한 문예관을 튼튼히 세워야만 원만히 해결될수 있다.》

## 그이의 모습에서 내 보았노라

송 정 우

내 아직 그이를 만나뵈온적 없고  
이야기 한번 나눈적 없건만  
아노라 잘 아노라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김정은**동지 그이의 숭고한 인간애를

장군님과 함께 선군의 길 걸으시며  
인민의 내 나라를 더 활짝 꽃피우신분  
공장과 농촌 찾으시는 곳곳마다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보다 큰 위훈으로 이끌어주신분

보았노라  
신문과 텔레비죤화면에서  
장군님과 함께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걸으시는 그이의 모습을  
수령님님원 장군님리상이  
인민의 행복으로 꽃피나는것이 기쁘시여  
환히 웃으시던 그이의 영상을

장군님을 잃은 대국상의 나날  
나는 더잘 알았노라  
땅을 치고 가슴을 치는 인민의 슬픔에서  
더 눈물을 흘리시며  
인민과 함께 그 아픔 나누시던분  
오히려 인민을 위해주시던 그이를

어찌 다 헤아리랴  
크나큰 피눈물의 그 아픔속에서도  
인민을 보살피오신 은정의 세계를  
령도자를 받드는 전사의 도리앞에

그 전사들을 먼저 걱정해주시는  
이런분이 세상 어디에 또 있던가

새겼노라 절감했노라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그이는 또 한분의 걸출한 위인  
인품으로 위대하시고  
인덕으로 뛰어나신  
그이는 우리 삶의 위대한 태양!

아, 그이가 계시여 행복의 꽃 만발하고  
우리 삶의 긍지높은 노래가 있노라  
함남의 불길따라 폭풍쳐 내닫는  
오늘의 대고조가 승리로 빛나고  
밝아오는 강성국가의 새아침도 있노라

인민에겐 것처럼 너그러우시고  
원썩들에겐 것처럼 무자비하신분  
무한대한 그 사랑과 증오로  
진두에서 선군의 기발 펄펄 날리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내 정녕 보았노라  
끝없이 빛날 태양의 위업을  
끝없이 창창할 내 나라 내 조국의 밝은 앞날을

오, 내 이 땅의 평범한 한사람으로  
**김정은**동지 그이를 우러러 웨치노라  
인덕으로 천하를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인민을 이끄시는  
또 한분의 위대한 선군태양을 모시여  
강성국가승리의 그날을 눈앞에 보고있다고!

#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우리 당과 조국청사에 길이 빛 날 경사로 뜻깊게 맞이하자!》

론 설

## 피끓는 심장으로 선군혁명문학의 새로운 토성을 울리자

김 려 속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피끓는 심장에 새기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따라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장엄한 진군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일찌기, 너무도 애석하게 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는 12월의 그날에 흘린 피눈물이 아직도 고여있다.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영원히 가셔질수 없는 이 나라 천만자식들의 비애이다.

하늘이 무너지는듯 한, 지구가 깨어지는듯 한 청천벽력같은 비보로 산천초목이 비분에 떨고 이 땅에 피눈물의 대하가 흐르던 그 12월에 우리 작가들은 눈물을 삼키며 추도시를 썼다.

그 시들은 위대한 인간, 위대한 령도자를 잃은 가슴터지는 민족의 비통함을 담은 시였고 위대한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담은 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 령전에서 다지는 천만 군민의 뜨거운 맹세를 담은 시였다.

그 나날에 우리 문학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조선의 태양은 영원하며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고 주체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절대 불변의 신념을 안겨주는 새로운 창작적열풍을 일으켰다.

이미 오래전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칭송한 노래 《발걸음》이 창작되어 우리 군대와 인민모두가 무한한 힘모임을 안고 부르고있지만 지난해 12월의 그 나날에 폭발적으로 창작된 시들에서는 우리에게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신다는 신념의 목소리가 더욱 뜨겁게 울려나오고있다.

추도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전에》(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집제작), 장시 《장군님세월은 영원히 굵아쳐흐르리라》(리태식, 리창식 작), 시 《**김정일**장군의 인민이여 일떠서라》(문용철 작), 《인민이여 우리에게 **김정은**대장이 계신다》(**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집제작), 《조선의 12월》(윤봉식 작), 《야전차는 몇지 않았다》(백하 작), 《조선은 일어섰다》(류명호 작)를 비

롯하여 수많은 시들이 창작되었다.

온 나라가 시를 지었다. 몸부림치는 절통감을 눈물로 토로한것이 그대로 시가 되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굳게 믿고 따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의 맹세가 그대로 시가 되었다.

그 시들은 비록 시인의 개성과 시적형상수법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위대한 장군님을 잃은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우리 인민의 절통감과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억척같이 일떠서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조선의 굳센 신념과 의지가 맥맥히 흐르고있는것이다.

시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뜻밖에 잃은 민족의 절통감, 조선의 운명이고 미래인 **김정일**동지를 잘 받들라고 하신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지켜드리지 못한 뼈저린 죄책감, 한평생 인민을 위해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신 장군님의 고귀한 생애와 불멸의 령도의 자욱자욱을 눈물속에 되새겨보는 회억의 감정이 차넘치고있으며 그 슬픔과 비분의 감정정서적색채를 필승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고 용기백배한 전투적기백이 차넘치는 격동적인 정서로 승화시키고있다.

그 시들을 통하여 세계는 오직 우리 선군조선에서만 있을수 있는 령도자와 인민, 아버지와 자식간의 땀해야 땀수 없는 혈육의 정이 얼마나 뜨겁고 눈물겨우며 또 조선의 태양은 영원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조선의 미래는 영원히 밝고 창창하며 무궁번영할것이라는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시 《조선의 12월》은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12월에 력점을 찍고 심오한 형상적의미를 부여하면서 강렬한 주장과 정론적인 색채로 민족의 아버지를 잃은 통분함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 주체의 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울 조선의 불굴의 기상을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조선의 12월에는 우리 혁명의 위대한 력사가 응집되어있고 우리 군대와 인민만이 지닐수 있는 숭고한 사상감정이 집약되어있다. 그리움과 기쁨의 12월이 피눈물의 12월로 되었지만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굳게 믿고 따를 맹세로 천만군민의 심장들이 활활 타오르는 붉고도 뜨거운 조선의 12월로 이어진다.

오, 세월이여 너 세월이여  
조선의 12월에 검은 태를 두르지 말라  
피눈물의 12월의 언덕에 눈보라 세차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으리라  
피눈물의 12월의 언덕에 폭풍이 세차도  
우리는 더 억세여지리라

이것은 피눈물의 언덕, 12월의 언덕에서 우리 천만군민이 다지는 맹세이다. 이 12월의 맹세는 이글이글 타오르며 솟구치는 심장의 불길로 새긴 맹세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이 땅에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 조선의 신념과 의지의 맹세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선군조선의 영광, **김일성**민족의 창창한 미래와 영원한 승리를 락관하는 사상감정, 우리에게 **김정은**동지께서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핵으로 하고있는 바로 여기에 그 나날에 창작된 시작품들의 본질특징이 있다.

시 《**김정일**장군의 인민이여 일떠서라》에서는 이렇게 토로하고있다.

슬픔을 박차고  
피눈물의 바다를 건너  
승리의 한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엔  
또 한분의 백두령장  
**김정은**장군이 서계시거니  
조국이여 인민이여 일떠서라  
발걸음 척척 앞으로! 앞으로!

**김정은**동지, 그이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그대로이신 또 한분의 백두령장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혁명대오의 진두에 서계신다는 신념이 있어 그이를 따라, 그이의 발걸음에 맞춰 조국과 인민이 일떠서고 앞으로 나아가는것이다.

시 《인민이여 우리에게 **김정은**대장이 계신다》는 제목에서부터 내용전반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불변의 신념을 토로하고있다.

우리에게 **김정은**동지께서 계신다! 이 얼마나 신심과 락관에 넘친,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배심든든한 우리 천만군민의 목소리인가.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꺾을수 없는 무적필승의 힘의 상징이며 원썩들에겐 폭탄같은 선언으로 된다.

**김정은**동지!  
그이는 우리의 **김일성**동지  
그이는 우리의 **김정일**동지  
그이는 우리 당 우리 조국

그이는 우리의 태양

위대한 수령님 따라서 시작한 이 혁명, 장군님 따라서 빛내인 이 혁명 기어이 **김정은**동지 따라 승리 떨치자고 열렬히 호소한 시의 격동은 《아, 인민이여 / 조국이여 / 우리에게 **김정은**대장이 계신다!》고 최대의 폭발력을 가지고 터친다.

시들에서는 위대한 태양이 언제나 빛을 뿌리는 주체의 우리 조국, 그 어떤 비구름도 광풍도 가리울수 없는 태양을 영원히 모신 선군조선의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는 철리가 확신성있게 울려나온다. 또한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담력과 배짱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김정은**동지의 담력과 배짱이 곧 조선의 담력과 배짱이라는 민족존엄, 민족자존의 정신력이 도도히 굽이쳐흐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은 영원한 태양으로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서 영생하고계신다. 그 태양의 위업을 받드신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의 태양, 인류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여 조선은 영원한 태양의 나라로 누리에 빛을 뿌리고 세계를 앞서나갈것이다.

오늘 우리 문학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절대불변의 신념을 안겨주는 혁명적인 작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해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자기의 피끓는 심장으로 활화산처럼 불타는 천만군민의 심장의 맥박을 들어야 하며 용암마냥 이글거리는 가슴으로 산악같이 일떠선 조국의 거창한 숨결을 호흡하면서 신념의 불을 달리고 또 달려야 한다.

비애의 피눈물속에서 간직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의 사상감정은 우리 작가들의 창작을 추동하는 힘과 열정의 원천이다. 오늘의 역사적시점에서 우리 작가들은 **김일성**민족사에 영원히 기록될 시대의 명작들을 창작하여야 할 선군시대 작가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자각하고 분발하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할것이다.

우리에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신다는 투철한 신념을 안겨주는 혁명적작품창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창작을 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고 창작적 열풍을 일으키는것이다. 여기에 수령의 문학, 당의 문학으로서의 우리 문학의 근본사명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 나가는데서 수령의 후계자는 결정적역할을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사회주의문학은 마땅히 수령의 위대성과 함께 그 후계자의 위대성을 형상하는 문제를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는것

은 오늘 시대와 문학발전의 엄숙한 요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형상창조에서 우리는 이제 첫걸음을 땀데 불과하다. 우리 문학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는 첫걸음에서부터 폭넓고 줄기찬 창작적양양을 일으켜야 한다. 문학의 다양한 모든 형태들에서 그리고 다양한 주제영역에서 작가라면 누구라 할것없이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창작에서 영예로운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문학은 이미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수령형상문학창조에서 풍부한 실천적경험을 쌓았다.

우리 문학은 수령형상창조에 관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독창적인 문예사상과 리론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창작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나가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물론 전세계 진보적인류가 한결같이 매혹되고있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인적품모는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과 똑같은 위풍당당한 모습, 영채도는 안팎, 무게있는 발걸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것이 수령님과 장군님 그대로이신 전설적위인으로서의 품모이다.

수령형상작품창작력사가 그러하듯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도 먼저 송가 작품, 시가작품창작에서 기치를 들어야 할것이다.

1920년대에 새 세대 혁명가들이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창작한것처럼, 해방직후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나오고 장편서사시 《백두산》이 나온것처럼 그리고 준엄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나온것처럼 주체혁명 위업계승의 격동적인 시기인 오늘 온 나라에 위대한 태양의 노래, **김정은**동지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해야 한다.

해방직후에 나온 서정시 《그이를 우리의 태양이라 노래함은》과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창작된 서정시 《크나큰 그 이름 불러》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 인류의 태양으로 칭송하며 그이는 조국이며 당, 스승이며 동지, 행복이며 생활, 아버지며 수령이라고 무한한 경모와 흠모의 사상 감정을 분출시킨것처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흠모의 사상감정이 격조높이 토로된 시가 작품들이 최상의 사상에술적수준에서 창작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수령형상의 고유한 생리를 구현한 무게있는 작품들이 나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생활과 결부하여 진실하고 생동하게 형상하는것은 백두령장의 혁명실록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 우리 작가들의 더없이 숭고하고 영예로운 의무이다.

지난해 12월 비통한 애도의 나날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을 더잘 알게 되었고 그이와 더욱 가까와졌으며 그이에 대한 흠모와 신뢰, 매혹과 충정의 마음은 백배천배로 더 강해졌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누구나 뜨거운 심장으로 느끼고 체험하였다. 너무나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안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그 나날에 우리 인민을 위하여 베풀어주신 위대한 사랑의 세계를.

아버이장군님께서 자신의 한생을 바치시여 정을 다해 키워주신 우리 군대와 인민을 크나큰 사랑의 세계에 품어안아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여 억척같이 일떠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 사랑의 세계에 매혹되어 우리 군대와 인민이 흘리고흘린 충정의 눈물, 맹세의 눈물을 우리 작가들은 자기의 작품에 담아 길이 전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그 뜨거운 눈물속에 담긴 인민의 충정을 진실하게 형상해야 하며 아버지장군님의 인민사랑의 력사를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인민성, 위대한 인간성을 격조높이 노래해야 한다.

시인들과 소설가들, 극작가들 누구라 할것없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을 어떻게 매혹시켰는가를 형상하여야 하며 그토록 크나큰 사랑을 베푸시는 **김정은**동지의 위인상을 진실하고 생동한 화폭으로 자기의 작품에 담아야 한다. 그리하여 태양의 위업이 어떻게 계승되며 천출명장의 담력과 배짱, 신념과 의지가 어떻게 위대한 장군에 의해 이어지는가를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깊이 새겨주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신다는 신념과 의지를 구현한 혁명적작품창작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백두산위인들의 총서창작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형상한 작품창작을 변함없이 우리 문학의 주선으로 힘있게 틀어쥐고나가는 것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 《불멸의 향도》, 《총성의 한길에서》와 백두산위인들의 위인상을 그린 작품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형상창조와 유기적으로 밀접히 결합되어있다.

특히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영생》과 같이 아버지장군님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해, 마지막나날과 잇닿아있는 력사적사건과 사실을 진실하게, 절절하게 형상한 작품이 나와야 한다.

깊은 병중에 계시면서도 인민에게는 그것을 감추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을 위해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분과 초를 쪼개가며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아버지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형상은 장군님의 위업을 그대로 이어가시고 더욱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기에 우리 장군님 영생하신다

는 철의 진리를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깊이 심어줄것이다.

시대는 그러한 작품을 요구하고있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러한 작품을 바라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이에 실천으로, 명작창작으로 대답하여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구현한 혁명적작품창작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그이의 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모습과 숭고한 정신세계를 감동깊이 그려낸 명작들을 창작하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혁명적대고조의 전투장들에서 실력과 실적으로 나타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그이의 강성부흥구상을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기어이 이 땅우에 현실로 펼쳐가려는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창조의 불길이 되고 기적과 혁신의 원동력이 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함남의 불길을 따라 온 나라가 떨쳐나섰다.

매 시대의 문학은 그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그 시대의 전형들을 형상한 명작들을 창조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충정의 한마음 안고 살며 투쟁하는 오늘의 우리 시대 전형들의 성격을 어떻게 형상하는가 하는데 따라 우리 시대 문학의 사상예술적가치와 정치사상교양적기능이 좌우된다.

우리 문학은 온 나라의 전투장마다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벅찬 현실과 선군시대의 전형들을 감동깊이 그려낸 작품들을 창작하여 시대를 빛내어야 한다.

우리 모든 작가들은 그가 시인이건 소설가이건 극작가이건 평론가이건 또 중견이든 신인이든 모두가 오늘의 현실에,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 인민들의 심장의 목소리를 들을줄 알아야 하며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진정, 사상감정을 자기 작품에 진실하게 담아야 한다.

현시기 우리 시대의 전형들을 형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어떤 자세와 립장에서 받들어모셔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1980년대에 나온 단편소설 《고요》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안녕과 건강을 위하여 바치신 로고와 심혈을 감동깊이 형상하면서 우리 일군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안녕과 건강을 위하여서는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였다. 작품은 어버이수령님의 건강을 축원하는 구호를 써붙이고 그것을 말로만 외울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기가 맡은 초소에서 일을 잘하여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한다면 그것이 곧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게 되고 나아가서 수령님의 안녕과 건강을 보장해드리는데로 된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밝히고있다.

오늘 새삼스레 이 문제가 제기되는것은 이것이 우리 시대의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 우리 문학이 시대의 전형형상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점과 잇닿아있기때문이다.

우리 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잘 받들지 못하고 장군님의 말씀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했기때문에 장군님께서 끊임없는 현지지도로 정신육체적과로가 겹쌓이다나니 야전철차에서 순직하신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 인민은 조선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김정일**장군님을 잘 받들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유훈을 지켜드리지 못한 죄책감으로 가슴을 치고있다.

이제 더는 이렇게 일할수 없다. 어버이장군님의 유훈대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잘 받들어모시는것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이것은 오늘의 시대가, 조국과 혁명, 인민이 우리 문학앞에 제기하는 절박한 문제이며 우리 문학은 시대의 전형창조를 통하여 이 문제에 예술적인 해답을 주어야 한다.

모든 단위에서 일이 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우리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답게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순결한 충정과 량심으로 받들어야 한다.

우리 문학은 현시기 일군들이 지녀야 할 순결한 충정심, 깨끗한 량심은 사업과 생활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 하는 절박하고도 의의있는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순결한 량심과 의리의 각도에서 모든것을 대하고 깊이있게 파고들 때 시대적의의가 있고 문제성이 뚜렷한 가치있는 인간문제를 탐구형상할수 있다.

**김일성**상계관작품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의 주인공처럼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도 깨끗한 량심과 의리로 자기 령도자, 자기 당을 받들줄 알고 인민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는 일군의 전형을 창조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은 지난 시기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시대의 명작창작으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당을 받들어온것처럼 오늘에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과 의지를 안겨주는 명작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최후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시대를 고무추동하며 주체조선의 새로운 100년대를 기적과 위훈으로 빛내이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모든 작가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결정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올해공동사설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피끓는 심장으로 명작창작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천만군민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신념과 의지의 강자, 결사옹위의 대상으로 준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 그리움의 봄

김 재 원

비분에 떨던 초목들에  
새싹 움티우려  
피눈물젖은 아지마다  
꽃눈 떠올리며  
이 땅에 푸른 봄은 오는가

세월의 추억을 떠시고  
석두재 넘어 봉상강 건너  
그리움의 봄  
청산벌에 봄이 왔나니

아아, 그 봄처럼 그 봄처럼  
그리운 우리 장군님  
해빛같이 환히 웃으시며  
한품에 청산벌을 안아주실듯  
눈물젖어 둘러보는 봄안개피는 산천이어

수령님 한평생 걸으신  
그 논두렁길에  
옷자락 기발처럼 날리시며  
오늘도 우리 장군님 서계시는듯

청산리에 봄이 와야 온 나라에 봄이 오고  
청산리에 풍년들어야 온 나라에 풍년든다 하  
시며

몸소 벼모춤 손에 쥐시고  
모를 내시던 그날의 그 모습 벌에 어려와

봄이 왔어라  
우리 장군님 봄빛을 안으시고  
이 벌에 포기포기 푸른빛을 심으신 봄  
온 나라의 벌을 청산벌로 가꾸어오신  
사랑의 봄

마음더쳐 발동소리 높이 울려라  
거름더미 듬뿍듬뿍...  
이랑이랑 깊이 갈아엎자  
필지마다 포전마다  
장군님님원대로 쌀이 넘쳐나게  
이 벌을 가꾸자 이해를 가꾸자

장군님 축복의 미소런듯  
눈부신 해빛을 안고  
청산벌에 봄이 왔어라  
그리움의 봄  
청산리의 봄

## 미곡벌의 이 봄은

권 태 여

뜨는 해를 보아도  
피는 꽃을 보아도  
사무쳐오는 그리움에  
눈굽이 젖어드는 미곡벌의 이 봄은

우리 장군님 다시 오시겠다 하신  
약속의 봄  
기다리는 봄  
마음속에 새겨온 그리움의 봄

새벽까치 우짖는 소리  
장군님 오신다는 기별인듯싶어  
바라보는 정방고개  
장군님의 야전차 경적소리 들려오는듯

오실적마다  
미곡벌의 깐진 일솜씨가 마음든다 하시며  
소문도 크게 내고 방식상학도 크게 하자고  
그리도 기뻐하신 장군님의 미소 어려오는 봄

선군길 천만리 걸으시면서도  
미곡벌에 오면 피곤이 절로 풀린다 하시며  
동무들이 보고싶어 자주 오시겠다고 하신  
장군님약속 안고 찾아온 이 봄

목메여 외우며 되새기며  
기다리는 마음속에  
그리는 마음속에  
정녕 우리 장군님은 이 봄에도 오시여  
소농기구품평회도 보아주시고  
뜨락또르 출동식도 보고계시거니

선경마을 집집마다  
장군님 모시고 찍은 사진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자애로운 아버지  
영원한 태양의 미소 더 활짝 꽃피워갈 한마음  
우리 장군님의 환하신 그 미소  
봄노을처럼 피어나는 미곡벌에  
오곡백과 주렁진 마을을 불러오리라  
거름바리 몰아가는 미더운 모습들

아, 12월의 맹세 지켜 펼쳐나선 이 봄은  
천출명장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쌀로 받들리라  
공동시설의 포성을 안고  
결사의 의지로 불타는 봄  
장군님 꽃피주신 선군10경  
미곡벌의 풍요한 가을을 당겨오는 봄이어라

## 기 적 소 리

엄 성 영

나는 북변의 공업도시 역구내에 서있었다.  
 취재차로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함남의 불  
 길의 거세차게 타오르고있는 동해안지구를 다녀오  
 는 참이었다. 열차를 기다리며 서있노라니 만나본  
 함남사람들에 대한 감동이 느닷없이 되살아났다.  
 이때였다. 열차가 들어오는 모양인지 어디선  
 가 기적소리가 들려왔다.

뽕!—

기적소리! 무엇인가 목메여부르는듯 한 소리!—  
 찾는듯 한 소리!—

기적소리는 나에게 못 잇을 상념세계를 불러왔다.  
 함주군 동봉벌에서 만났던 한 녀성관리위원장과  
 젊은 프락포르운전수의 모습이 우렁이 떠오른다.  
 내가 텅 빈 관리위원장의 사무실을 나와 1작  
 업반의 어느 한 포전에 이른것은 석양노을이 피  
 빛으로 타오르던 저녁무렵이었다.

《너자라는게 그렇게두 덜통하다구야...》

누군가를 책망하는 귀에 익은 녀성관리위원장의  
 목소리.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랭습피해막이대책이야  
 이미 다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통통통 울리는 프락포르의 발동소리를 누르며  
 뒤따라 들려오는 젊은이의 목소리.

방금 부리워놓은듯 한 두엄더미옆에서 인사를  
 나누면서 나는 그에게 물었다.

《관리위원장동무는 방금 누구를 책망하였습  
 니까?》

《누군 누구겠나요, 이 못난 관리위원장이지.》

《아니, 자신을요?》

나는 무춤 굳어졌다. 뒤통게야 알수 있는 사연...

우리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언제나 첫자리에 놓  
 으시고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크고작은 일을 돌보시는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  
 도 해마다 이곳 농장을 찾으시고 농장이 나아  
 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곤 하시었다. 지난해 가  
 을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또다시 농장을 찾  
 으신 장군님께서는 농사작황을 일일이 알아보시다  
 가 일부 포전들에서 랭해피해를 받아 옹근수확을  
 내지 못했다는것을 알게 되시었다.

그이께서는 죄책감과 송구스러움에 제대로 머리  
 를 들지 못하는 관리위원장에게 용기를 내라고,  
 다음해에는 정당수확고를 높여 꼭 좋은 결실을 마  
 려하라는 크나큰 고무와 힘을 안겨주시면서 만면  
 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었다. 한없이 파사롭고  
 자애로운 아버지의 미소였다.

그때를 회상하는 관리위원장의 얼굴엔 눈물이  
 흐르고있었다.

《아버지를 잃고 철드는 자식처럼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서야 우리 인민을 위해 바쳐오신  
 장군님 고생이 얼마나 크고 힘겨운것이였는가를  
 더욱 가슴아프게 절감하였습니다. 글썽 그이의 환  
 한 미소속에 가리워진 우리 장군님의 로고를 미  
 처 가려보지 못했던 말입니다. 장군님께서 또 찾  
 아오시였다고 기뻐만 했지 꾸지람을 듣더라도  
 그이의 초강도강행군길을 막아드릴 생각을 못했던  
 말입니다.》

목소리는 갈렸으나 눈물은 보이지 않았다.

《글썽 나같은 관리위원장이 천이면 뭘하고 만  
 이면 뭘합니까?》

《그래서 랭습지포전들을 다 개량하지 않았습니  
 까. 이렇게 질 좋은 거름도 듬뿍들룩 실어내고.》

젊은 프락포르운전수의 말이였다. 그를 증명  
 하듯 두엄더미에서는 아직도 김이 무럭무럭 피어  
 오르고있었다. 주위에는 눈고깔을 뒤집어쓴 거름  
 무지들도 웅기증기 솟아있었다.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강성부흥의  
 전성기를 펼쳐놓으려는 이곳 농장원들의 결의가  
 그대로 눈앞에 펼쳐진것이다. 풍년가을을 마련하  
 는 그들의 가슴속에는 벌써 봄이 와있었다.

뽕!—

얼어붙은 대기를 헤가르며 전기기관차의 힘찬  
 기적소리가 울려왔다.

그러자 그는 자석에라도 끌린듯 흠뻑하더니 기  
 적소리가 들려온쪽을 향해 숙연한 자세로 마주섰  
 다. 곁에 손님이 있다는것도 잊은듯 했다.

나는 순간에 무색해졌다. 그 기미를 눈치챈 프  
 락포르운전수가 제격 랭해를 구했다.

《리해하십시오. 우리 관리위원장동무 기적소리만  
 듣게 되면 모든걸 잊고 자기 생각에 옴한답니다.》

《기적소리?》

《예, 전에없던 버릇입니다.》

《그래요. 전에없던 버릇이 생겨났어요.》

관리위원장이 천천히 자기로 돌아왔다.

《나에게는 저 기적소리가 무심히 들리지 않아  
 요. 기적소리 들을 때마다 달리는 야전열차에서  
 순직하신 어버이장군님께서 저를 찾으시는것 같고  
 인민을 위한 일에 말이나 구호로가 아니라 자  
 신의 실천적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라고 일깨워주시  
 는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운 힘과 지혜가 용솟음  
 치고 막혔던 고리도 막힘없이 쉽게 풀려지곤 해  
 요.》

(기적소리!)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어버이장군님을 못내 잊지 못해 그리워하는 그

# 너희들의 공원은 백배로 아름다와질지다

전 승 일

공원길을 짝 메운 흙산을 떠옮기며  
줄줄이 얼굴에 흐르는 땀 손등으로 흠치는데  
어디선가 철부지 꼬마들의 떠들썩한 목소리  
새무리들의 지저귀마냥  
귀전에 날아드는구나

—저거 내 타던 말이랑 없어졌구나  
—아니, 비행기두 없어지구  
배 타던 《바다》도 다 메워졌어

눈길들어 드넓은 공원을 둘러보니  
용을 쓰는 불도젤  
긴 팔을 휘두르는 굴착기  
너희들의 사랑하는 놀이터들을  
송두리채 들어내는구나

꼬마들아  
너희들의 귀전에 내 속삭여주고싶다  
어이하여 눈덮인 한겨울에  
이런 건설전투가 벌어졌는지  
너희들의 꽃신자욱 찍혀지던 공원길우에  
이런 흙산들이 쌓이고 또 쌓이는지

생전에 그리도 아이들을 사랑해주신 장군님  
지난해 천리 먼길 오시여  
수령님 서계시는 이 광장앞으로  
드넓은 도로도 쪽 뺏고  
아이들의 공원도 멋쟁이로 꾸려주시자던 말씀  
이 복변땅에 남기신 가슴치는 유혼으로 뿔줄이야

불같이 뜨거운 마음, 장군님의 유혼을 받들어 이  
땅우에 기어이 강성부흥의 전성기를 펼쳐려는 그  
심장의 목소리가 깊은 여운을 남기며 오래도록 내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것이 어찌 내가 동봉벌에서 만나본 녀성관리  
위원장이나 프락포르운전수의 심정뿐이겠는가.

2.8비날론련합기업소 방사직장에서 만나본 방사  
공들의 심정 역시 조금도 다를바 없었다.

《매일 기대앞에 마주서면 어버이장군님의 체취  
와 온기가 그대로 마쳐오는것 같습니다. 16년만에  
다시 쏟아져내리는 비날론을 손으로 만져보시며  
그토록 기뻐하시던 어버이장군님의 모습이 정말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장군님에 대한 이 그리  
움이 우리 일손에 날개를 달아주고있습니다.》

함남의 로동계급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간직되어  
있는 심장의 웨침이었다.

밭은 자기 땅에 불이고 눈은 세계를 내다보면서  
최첨단들과의 과학기술로 내닫는 통성의 로동계급  
이며 조선을 결심하면 한다는 불굴의 기상과 담대  
한 배짱으로 밭파소리 우렁차게 울리는 대흥의 광  
부들, 인민들의 옷감생산에 밤낮을 모르는 함

크나큰 아픔을 심장에 묻어두신채  
조국과 인민을 억척같이 일으켜 세우신

**김정은**동지

억만중대사를 다 안으신 그이의 심장에서  
이 눈물겨운 사랑의 전투를  
새해 복변의 이 도시에  
첫 진군명령으로 뿔어터치신줄  
철부지 너희들이야 어찌 다 알라

조금만 기다려라 꼬마들아  
꽃이 되어 나비되어  
소리치며 공원으로 달려나올  
4월의 봄날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거니

아, 얼마나 환희로우라  
그날에는 그 봄날에는  
말을 타고 천굽만굽 달리거라  
은빛비행기를 타고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으거라  
너희들을 위해 펼쳐진 아름다운 호수를 썩썩 헤  
가르거라

장군님처럼

너희들을 품어주실 파스한 해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계시는 이 땅우에서  
너희들의 공원은 백배로 아름다와질지다  
너희들의 미래는 천백배로 눈부실지다

홍편직공장의 나 어린 편직공들의 가슴마다에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이 가슴뜨겁게 간직되어있다.

우리 장군님과 함남의 로동계급사이에 맺어진  
가슴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인연을 귀중히 간직하  
고서 장군님의 유혼을 받들어 이 땅우에 강성부흥  
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고있다. 우리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의 현명한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완  
성을 위하여 억세게 전진하고있다.

뿔!—

다시 기적소리가 울렸다.

기적소리! 이는 심장의 부름!

이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행렬차에 계신  
어버이장군님의 부르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들어 강성국가  
건설대전의 친구들마다에서 우리 인민은 너나없이  
이제는 평범한 날의 기적소리를 평범하게 듣지를  
않는다.

심장이 살아 고동치는 마지막까지 피나게 살라  
고, 불타게 살라고 나를 부르는 소리, 너를 부르  
는 소리, 온 나라 천만군민을 부르는 소리.



김 하 늘  
그림 김 광 석

1

수산성 부국장 림해철이 탄 승용차는 평양을 향하여 북부 동해안의 연포수산사업소를 떠났다. 승선지도 나와있은 석달동안 정이 들대로 든 먼 바다선단의 어로공들, 사업소 일꾼들, 억양이 센 합숙 식모어머니... 잊을수 없는 모습들을 뒤에 남기고 승용차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밤길을 질주했다.

아침에 터진 이 눈보라는 선단이 귀향한 저녁무렵부터는 한층 더 사나와져 지금은 달리는 승용차와 힘내기하듯 우— 우— 기세를 돋구며 맞받아 들이치고있었다. 눈가루가 모래알 휘뿌리는 것처럼 차창과 차체를 짝르륵짜르륵 때리고 순식간에 량옆창과 뒤창을 하얗게 덮어 밖을 내다볼수 없었다.

시창닫개가 부지런히 눈을 닦는 앞시창만이 반원형으로 열려 앞이 내다보이는데 고속으로 내달리는 승용차의 앞창에서 눈가루들이 팍팍 튀어났다가 뒤로 나뭇겼다. 힘있게 내쫓는 전조등의 불줄기속에 뾰얀 눈장막만 보일뿐 아무것도 분간할수 없었지만 운전사는 자신있게 가속답판을 지그시 밟고있었다.

해철은 여러해째 성에서 일해오지만 대기차운전사들과 그리 친숙하게 지내지 못했다. 사업에서 꼼꼼하고 책임적인 그는 성품이 조용하고 단정하면서도 어딘가 딱딱하고 실무적인데가 있어 책임부원이나 파장시절에는 말할것도 없고 부국장이 된 다음에도 자기를 태우고 달리는 운전사들과 애기를 나누거나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돌려본적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오늘 밤은 이 운전사와 무슨 이야기든 나누고싶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퍼주신

강성국가건설대전의 불길속에서 고난의 흔적을 말끔히 털어버리고 현대적인 수산기지로 일떠선 연포수산사업소. 더우기는 여러해만에 다시 먼바다에 진출했던 사업소선단이 거둔 성과가 자랑스러워서였는지.

밤새워 여러시간 달려야 하는 이런 운행길에 운전사들에게도 말동무가 필요한 법이다.

《오늘이 며칠이라고 했소?》

《16일입니다, 12월 16일.》

대답을 하고나서 운전사는 시무룩이 웃었다.

《왜 웃소?》

《벌써 세번째나 물어봅니다. 부국장동지도 먼바다에 나갔다오더니 룡상멸미가 나는게 아닙니까?》

《동무도 룡상멸미라는 말을 아오?》

《수산성사람이 아닙니까, 10년동안 배 한번 못타보구 이렇게 대기차운전대를 잡고있지만.》

운전사는 시창앞을 긴장하게 내다보면서도 말은 재미있게 받았다. 해철은 빙긋 웃었다.

《그러니 말만 듣고 아직 당해보지는 못했겠구만.》

문득 아득히 먼곳에서 날아오는것처럼 합숙 식모어머니의 억양세고 청높은 목소리가 귀전에 들려왔다.

《예구— 우리 〈총각〉 부국장 룡상멸미하는 걸 좀 보오. 이제야 진짜 수산사람된것 같소!》

첫 출어를 했다가 근 한달만에 운반선대를 이끌고 귀향했을 때 물에 내려 어질어질 걸음을 옮기는 그를 부두가에서 맞이하면서 큰 구경거리라도 만난듯 야단스럽게 소리치던 나이많은 합숙 식모어머니였다.

(그래, 그걸 알아야 진짜 수산사람이지, 바다사람!)

해철은 조용히 눈길을 돌려 옆좌석에 놓여있는 자기의 배낭을 내려다보았다. 소금버캐가 허영게 내배고 기름때가 올랐지만 석달전 자기가 메고 내려올 때에는 새 배낭이었다. 먼바다어장으로 진출하는 연포수산사업소에 승선지도를 나간다고 안해가 방수포를 얻어다가 특별히 주문해서 만든 배낭이었다.

그날 문수거리에 있는 해철의 집은 새벽하늘이 들리기 전부터 부산스러웠다. 갈아입을 속내의 들과 두툼한 털내의들이며 무릎까지 올라오는 털양말들, 무슨 약봉지들,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식초병, 마늘냄새, 기름냄새가 풍기는 고추장, 갓 담근 김치단지, 세면도구들...

지치고 뻘뻘하며 부엌에서 밤을 새운 안해는 부지런히 드나들면서 이것저것 한가득 꺼내 넣어놓은 방안에 도중식사팩들을 또 날라들었다.

《무슨 짐이 이렇게 많소?》

《됐다, 네 차비나 해라. 배낭은 내가 꾸려주마. 언제 이런 짐을 꾸려봤을라구.》

칠순이 지난 아버지가 마흔이 다된 아들의 출장 짐을 소학교시절에 야영배낭을 꾸려주듯이 말아나섰다. 새로 만든 큼직한 방수포배낭을 끌어당겨 이리저리 돌려보던 로인은 흐뭇한 웃음을 지었다.

《그 배낭 잘 만들었구나. 음, 우리가 처음 먼바다어장을 개척할 때 성당위원장동지가 이렇게 큰 배낭에 수령님로작들하구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가득 채워가지구 같이 탔댔다.》

분주한 출장차비에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에까지 깨여났다.

《어이구, 우리 늦잠꾸러기 깨났구나.》

할아버지가 등을 두드려주자 어린것은 눈을 비비며 말뚱말뚱 돌려보다가 물었다.

《할아버지, 아버지 등산가나요?》

그바람에 웃음이 터졌다.

《이녀석, 아버지 산이 아니라 바다루 간다. 출장가!》

《아니야, 아버지 출장갈 땐 가방 하나 가지구 가됐잖나!》

해철은 아들의 머리를 쓸어주었다.

《이번엔 먼-데 간단다, 먼바다에.》

그 말에 로인의 주름많은 두눈귀가 가느스름해졌다.

《그래, 먼바다에 나가지, 먼바다에... 이제 몇 년만이나. 우리 연포가 다시 일어섰어!》

그리고는 창너머로 동터오는 새벽하늘을 점도룩 바라보았다.

《어허, 강성 국가의 대문이 벌써 열리는가부다!》

한창때에 연포수산사업소 선장으로 천리마조선의 기발을 휘날리며 오호츠크어장을 주름잡았던 왕년의 먼바다개척자의 주름깊은 눈귀가 물기에 젖어 번들거렸다. 그것을 보는 해철의 가슴에서도

뜨끈한것이 울리치밀었다.

어느덧 날이 밝고 성의 대기승용차가 고층살림집아래서 경적을 울렸다. 아버지는 서둘러 배낭을 둘러메는 해철을 불러세워 무슨 이름들을 가득 적은 종이장을 쥐여주었다.

《연포에 가면 이 사람들을 찾아봐라. 옛날에 내가 수산위원회(당시)에 올라오기 전에 같이 먼바다 배를 타던 사람들인데 아직 필필한 사람들이 있을거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가는게 좋다. 내 라두 육신이 성성하면 좋겠는데, 음- 이젠 마음 같질 않구나.》

해철은 잔걱정이 가득 실린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걱정마십시오. 오래간만에 다시 나가는 먼바다선단이지만 설비와 기술은 그때와 대비할수 없게 올라섰습니다.》

《무슨 소릴!》

로인은 저으기 언짢아져 아들의 말을 잘라버렸다.

《소는 늙은 소가 더 착실하구 말은 늙은 말일 수록 길을 더 잘 아는 법이야.》

명심해라, 먼바다에 다시 나가는것두 경사지만 진짜경사는 수산물상점에 물고기가 가득 쌓이는거라는걸.》...

문득 《바다여 너를 반긴다》노래의 경쾌한 기악곡이 승용차안에 울렸다. 록음악을 컸는가? 해철은 생각에서 깨어나며 앞좌석의 운전사를 바라보았다.

《노래가 좋구만. 룡상에서 운전대를 잡고있어도 마음은 바다에 가있는 모양이로구만.》

벌췌 웃으며 즐겁게 응답할줄 알았던 운전사가 앞거울로 해철을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무슨 말씀 합니까? 부국장동지 손전화 호출음 악 같은데요.》

《음? 아, 그렇구만!》

다음말은 두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튀어나왔다.

《 룡상털미!》

서둘러 꺼내든 손전화기에서는 귀에 익은 성당일군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부국장동무,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차창밖은 여전히 뽕얀 눈가루장막에 덮여 어딘지 알수 없었다.

운전사가 대답했다.

《운평읍에 들어서고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운평려관에서 눈을 좀 붙이면서 기다리시오. 내가 맞받아 떠나고있습니다.》

해철은 저으기 긴장해졌다. 석달나마 먼바다에 나가서 실적을 올린 젊은 부국장을 한시바삐 안해결으로! 익살섞인 지령을 떨구며 천리 먼길에 대기차를 띄웠다는 성당일군이 무엇때문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연포사업소 먼바다선단을 래일 아침 다시 출

동시켜야겠습니다. 구체적인건 만나서 얘기합시다.  
사업소에는 해당한 지령이 떨어졌으니 동문 다  
문 서너시간만이라도 눈을 좀 붙이시오.》

## 2

...《예구— 무슨 소리요? 도두 아니구 성 부국  
장이라오? 높은 간불 몰라봐 아니됐소.

내야 그저 〈어머니, 신세 좀 집시다.〉 하구 합  
숙에 들어오니 뉘집 총각인지 깨끗하구 참해보이  
는게 욕심난다— 했지.》

《총각은 또 무슨 생똥같은 총각? 이 로친 동태  
얼굴 보구 형제간, 사촌간 딱딱 갈라낸다면서 총  
각하구 아에비두 못 갈라보오?》

《그러기 말이요, 내야 몸매만 척 봐두 처녀가  
재미, 총각대구 딱딱 갈라냈는데 요번엔 어째 실  
수했소. 선단장아바이, 아무래나 먼바다 가서 다  
랑어만 잡지 말구 동태두 잡아옵소. 간유 짜먹구  
늘그막에 눈 좀 밝아지게스리.》

《그래, 총각이면 누구 소개해주자 그랬소?》

《소개는 무슨 소개, 사위삼았으문 했지.》

《이 로친?! 팔 셋 다 시집보낸지 언젠데 아직  
두 사위타령이요?》

《손녀사위는 사위 아니구 뭐요?》

《손녀? 요런걸 놓구?》

나이많은 먼바다선단장이 어처구니없어 코웃  
음치고 할머니치마꼬리에 매달린 유치원 다니는  
계집애가 무슨 말인가 해서 말뚱하니 올려다보는  
바람에 출항의 부두가에는 폭소가 터졌다.

여러해만에 다시 먼바다에 진출하는 연포수산사  
업소 선단은 부두와 바다가에 밀려나온 어항도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주민들의 열렬한 환송  
과 익살맞기 그지없는 이런 웃음을 뒤에 남기고  
대양으로 내달렸다....

해철은 잠에서 깨어났다. 무척 많이 잔것 같은  
데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그렇게 기승을 부리던  
눈보라가 언제 멎었는지 밖은 고요했다. 몇시나  
됐을까?

옆자리에서 운전사가 하품을 길게 하며 《10  
분전 세십니다.》 하고 말했다.

해철은 놀라서 돌아보았다.

《자지 않았소?》

《잘 잤습니다. 부국장동지가 깨나는 바람에 깨  
났습니다.》

하긴 운전사들은 직업적으로 감각이 예민하다.  
특히 이런 대기차운전사들은 사람을 가려보고 기  
분과 의도를 맞춰내는데서 남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역시 다년간 이러저러한 일군들과  
많이 다녔본 직업이 가져다준 감각일것이다.

《먼저 나가서 차발동을 걸어놓겠습니다. 뽕  
뽕 열었겠는데 좀 덤혀야지요.》

《같이 나가지요.》

《부국장동진 이따 열풍이 좀 오른 다음에 나오  
십시오.》

《팬찮소, 잠두 안 오는데 뭘 하겠소?》

눈가루가 하얗게 얼어붙고 성애가 낀 차창은 열  
풍을 돌린지 퍼그나 되었지만 좀처럼 녹아내리지  
않았다.

《제길, 어젠 바람이 미치게두 불더니 오늘은  
지독스레 춥군요.》

해철은 뒤좌석등받이에 몸을 비스듬히 기대채  
물었다.

《운전기술은 어디서 배웠소?》

《군대때 배웠습니다.》

《어디서 복무했소?》

《해군에서요.》

해철은 반색하며 몸을 앞으로 당겼다.

《그렇소? 나도 해군출신이요.》

그런데 운전사는 별로 반색하는 기색이 없이 걸  
레로 성애가 녹아내리는 앞시창만 열심히 닦았다.

《알고있습니다, 해군에서 우리가 수행한 임  
무도 같다는것까지 말입니다.》

《그럼 동무도 해군륙전대요?》

해철은 앞좌석등받이에 가슴을 바싹 가져다댔  
다. 운전사는 그제야 시무룩이 웃으며 해철을 돌  
아보다가 머리를 끄덕였다.

(그러니 우린 한병중에서 복무했던 말이지.)

륙전병은 오직 공격 하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병종이다. 단숨에! 속전속결! 항공륙전대의 타  
격으로 적의 뒤통수가 박산난다면 해군륙전대의  
타격으로 적의 사등뼈가 꺾어져나간다. 육지에서  
만도 아니다. 가렬한 해전에서든 어뢰가 되고 폭  
탄이 되어 결사돌입하는 해군륙전대의 타격으로  
적함선들이 바다깊이 수장되고 적군함들이 불바다  
로 될것이다.

잊을수 없는 군사복무에 대한 추억은 홀지에 다  
른 생각을 불러왔다. 어제날의 해군륙전병 림해  
철, 너는 오늘의 강성국가건설대전— 총공격전에  
서 진격로를 열어제끼는 중심타격의 최첨단에 서  
있는가?

귀항한 먼바다선단을 되돌려세우는 새 지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만약 육전대의 작전이  
였다면 중심타격이 완벽하지 못했다는것을 말해주  
는것이 아닌가. 우리가 서둘러 만세를 부른것은  
아닐까?

갑자기 갈마드는 무거운 사색을 깨뜨리며 운전  
사가 말했다.

《전 지금까지 부국장동지 사업보장을 위해 많  
이 뛰었습니다. 부국장동지가 책임부원을 할 때부  
터 말입니다.》

《그런것 같소. 나도 동무와 별로 얘기를 나눈  
적은 없지만 동무 차를 많이 탔다는 생각이 드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마다 수고했다는 인사 한마  
디 톡톡히 해준 기억이 안 나는구만.》

운전사는 손을 뻗 내그었다.

《그래두 난 부국장동지 사업보장할 때가 좋습니다. 운전사업굴 뜨거워지는 일이 없거든요. 어떤 간부들은 단위에 내려갈 때마다 이것저것 실어가곤 하는데 그 심부름을 운전사들이 해야 한단 말입니다. 옆에서 곱지 않은 눈길로 보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얼굴이 뜨거운지 압니까? 차를 타는 간부들은 운전사가 자기의 진짜모습을 낱낱이 꿰뚫어본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해철은 저으기 의분에 넘쳐있는 운전사를 조용히 마주보았다. 옳은 말이다. 어느 일군이 얼마나 애쓰며 뛰는가, 또 사업을 위하여 뛰는가 아니면 자기를 위하여 뛰는가를 대기차운전사들의 눈은 낱낱이 꿰든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일군은 진심으로 존경하고 어떤 일군은 결발립으로 대하며 또 어떤 일군은 푸대접하기까지 한다.

《음, 동무말을 명심하겠습니다. 대기차운전사의 눈은 일군들의 본색을 꿰뚫어보는 이를테면 렌트겐 투시기라고 말ियो.》

그러자 운전사는 벌썬 웃으며 돌아앉았다.

《너무 심각한데요.》

그때 성당일군이 탄 승용차가 눈가루를 뽀얗게 말아올리며 어둠속에서 나타났다. 급정거한 승용차에서 서둘러 내린 그는 운전사부터 불렀다.

《동문 이제 원산항에 가서 거기 나와있는 성일군들의 지시를 받으소. 그리구 부국장동무는 이 차에 옮겨타시오. 시간이 급합니다. 가면서 얘기하십시오.》

두대의 승용차는 곧 반대방향으로 질주했다.

차가 달리자 성당일군이 해철에게 문건을 하나 꺼내서 내밀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저께 수산부문의 물고기잡이정형을 친히 료해하시었소. 그리고 어제 밤에는 수산부문만이 아니라 무역기관들까지 동원해서 새해를 맞는 평양시민들에게 물고기를 공급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었소.》

그 문건이 장군님께서 내려보내주신 지시문건이요. 수도시민 1인당 물고기공급량을 어종별로 갈라 찍어주시었소. 그리고 이제부터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도 밝혀져있소.

어제 밤 9시 30분에 전달받았소.》

문건을 읽어본 해철은 의아해졌다. 공급해야 할 물고기수량이 다 확보되었는데 어째서 연포의 먼 바다선단을 다시 출항시켜야 하는지 알수 없었던 것이다.

《총수량은 확보됐지만 어종별로 볼 때 명태가 200톤 모자라오. 장군님께서 이번공급에서 1인당 명태는 얼마, 청어는 얼마라고 찍어주시지 않았소. 마침 명태때가 연해로 밀려들어서 동해안의 수산기업소들을 비상동원시키자고 했는데 몇시간전부터 어황이 달라졌소. 연해로 밀려들던 찬바

다물흐름이 북상하면서 공해쪽으로 멀어지기 시작했소. 명태때가 빠져나간단 말ियो. 강원도와 함남도의 어로선단들이 이제 추격하면 늦소. 북쪽에 있는 연포먼바다선단이 전속으로 앞질러나가 공해상에서부터 들어오면서 잡아야 하오.

알겠소? 명태 200톤을 연포가 말아야 한단 말ियो. 날자는 한주일, 12월 23일까지.》

해철은 긴장해졌다.

《현상태에서 어황변동이 더 있을것 같지 않습니까?》

《성에 장악된진 그게 다요. 그러나 최근 날씨가 너무 번덕스러워서 어떤 정황이 조성될지는 알수 없소. 그래서 동무가 다시 나가야겠다는거요. 이번에 나가서 바다엔 귀신이라는 연포선단장령감 하구 발이 잘 맞았는지?》

해철은 사색에 잠겼다. 이제 생길수 있는 정황이란 어떤것이겠는가? 전투의 승패는 지휘관이 그것을 내다보고 대책을 세웠는가 못 세웠는가에 따른다.

…《확대판! 확대판 다시 보라!》

《확대판 이상 없습니다!》

《선장들이 직접 확인하라! 12호!… 13호!… 14호!… 좋아! 투망!—》…

그물을 펼칠 때마다 매번 올리곤 하던 선단장아바이의 구렁이 귀전을 때리는 순간 번쩍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해철은 손전화기를 꺼내들고 연포수산을 찾았다.

《연포요? 나 성 부국장이요. 선단장아바이를 찾아주시오.》

연포의 선단장과 전화하는 해철을 지켜보던 성당일군의 눈길이 그의 무릎우에 놓인 방수포배낭에서 멎었다. 기름때와 소금버캐로 어지러워진 배낭, 그것은 이 젊은 일군이 먼바다어로전투 석달 동안 어로공대중속에 몸을 푹 잠그고 살았다는것을 말없이 보여주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강성국가건설대전의 화선지휘관으로 살것을 바라고계신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일군들도 아직 있다. 배낭을 메고 내려가 전투현장에 몸을 잠그기는커녕 생색을 내며 입고내려갔던 작업복조차 뒹어지지 않은채로 돌아오는 일군들을 보지 않았던가.

《연포에 도착하자면 아직 두시간은 더 가야지? 내 옛말이나 하나 해줄가?》

전화를 끝내고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던 해철은 성당일군을 돌아보았다.

《옛날에 말ियो, 한 임금님이 아침수라상에 오른 가재미튀기를 먹다가 문득 가재미라는 놈이 물속에 납작 엎드려서 사는지 아니면 모로 헤엄치며 사는지 알고싶었다고요. 그래서 대감들에게 물어보았지. 그러나 대감마님들도 바다물에 손끝 한번 적셔본적 없는 나리님들인지라 알게 뭐요. 그

래두 임금님앞에서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나? 그럴 듯한 근거를 내대면서 엎드려다닌다는 대감이 있는가 하면 제눈으로 직접 보았노라면서 모로 해염친다고 우기는 대감들도 있고 도무지 종잡을수 없었소.

그래서 총명하다는 신하를 불렀는데 그 신하는 생각하기를 가재미가 엎드리는 모로 서든 어느 한 쪽일것만은 뻔한데 임금님의 좌우에 서있는것은 다 서슬푸른 대감님들인지라 한쪽을 긍정하면 다른쪽이 가만있을것 같지 않거던. 그렇다고 왕앞에서 모른다고 할수도 없고.

궁냥끝에 한다는 대답이 <상감마마, 두쪽 말이 다 옳소이다. 가재미라는 놈은 물속에 이렇게 빙서— 누워서 해염치는지라 아래우에서 보면 엎드린것이요, 량옆에서 보면 모로 선것이오이다.> 하면서 손바닥을 사선으로 내밀고 제법 가재미가 해염치는 흉내까지 냈다오.

그랬더니 왕은 <네가 가재미를 제일 잘 아는도다!> 하고 무릎을 치고 좌우의 대감님들도 만족해서 고개를 끄덕였다는거요.>

해철은 웃음을 터뜨렸다.

《거참 찌바른 신하로구만요.》

《그래, 찌바른 신하지. 여기저기 다 맞추면서 살아갈줄 알거던.》

일군은 웃음을 거두고 정색해서 앞차창밖으로 눈길을 박았다.

《어제 밤 장군님께서 내려보내주신 문건을 받았을 때 모자라는 명태라야 평양시인구로 풍겨보면 한사람한테 몇십그람밖에 안되는 보잘것없는것인데 총수량을 가지고 맞추지 않겠는가 하고 하는 사람도 있었소. 그러나 아니요. 우린 장군님께서 과업을 주시면 가장 진실하게, 가장 철저하게 판철하는 참된 전사가 돼야 하오.》

잠시 말을 끊었던 그는 앞차창을 내다보던 눈길을 해철에게 돌렸다. 일군의 두눈에 뜨거운것이 어려있었다.

《우리에게 문건을 내려보내주시고 경에하는 장군님께서는 눈보라치는 깊은 밤에 또다시 강행군길에 오르시었소.

부국장동무, 이해도 마지막까지 눈보라강행군, 심야강행군을 하시는 장군님께 수도시민들의 물고기공급을 어종별로 전량 다 했다는 보고를 꼭 드립시다.》

뜨거운 눈길들이 서로 마주쳤다.

### 3

승용차가 연포를 점점 가까이하자 해철은 며칠 전 조국으로 돌아오던 달밝은 먼바다에서의 밤이 생각났다.

…귀향지령을 받고 조국을 향해 배머리를 돌린 조타실에 들어오니 선단장아바이가 둥근 창밖을

내다보다가 말했다.

《금년에 마지막보름달이 떴수다.》

해철은 조타실벽에 걸린 달력을 쳐다보았다. 12월 9일, 음력으로 동지달 보름이다. 그러니 다음번 보름달은 새해 1월에 뜰것이다.

《그렇군요.》

북태평양의 망망대해, 거대한 폭으로 출렁이는 대양에 달빛은 부드럽게 얹혀져 교묘히 일렁이고있었다.

조국! 그리운 평양! 그곳에도 지금 달이 밝을것이다. 보고싶은 안해와 어린 아들이 이 시각 창밖으로 휘영청 밝은 저 달을 바라보며 자기를 그리고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이들이 멀다하게 연포에 전화를 걸어 먼바다선단의 소식을 묻는다고 한다. 그들— 산갈은 파도를 타고넘으며 초행길을 헤친 개척세대의 자욱도 저 달은 분명히 기억하고있을것이다.

《집생각 나오?》

선단장아바이의 물음에 해철은 생각에서 깨어나며 어쭙게 웃었다.

《좀… 하겠습니까.》

《좀 해서야 되나. 집 떠나서 집생각 안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지. 나두 이자 집생각 모질게 나더구만. 이렇게 조국을 멀리 떠나 둥근달을 바라보니 더 나거던.》

내 팔팔한 총각팬데 이젠 30년두 더 지났지. 먼바다어장에 있는 어로공들 생각에 수령님께서 잠 못드신다구 우리 장군님께서 <백두산> 호모선에 중앙예술단을 태워보내시었소. 굉장했다네. 우리 배들뿐인가? 다른 나라 배들까지 다 모여들어서 구경했지. 남조선배들두 정보부놈들이 알면 욕을 불가봐 가까이 다가오진 못하구 먼발치에서 망원경으로 구경하면서 부러워했다네.

그때야 고생을 모르구 살 때였지. 지금은 식량, 전기… 고생은 좀 하지만 이렇게 오랜만에 떠나오니 조국이 그리운건 그때보다 더해.

조국이라는데 참… 평소엔 별치 않았던것두 조국이란 말을 새기면서 다시 돌아보면 뭐나 다 소중한구 그림거던. 고생까지두 말이요.

부국장이 이번에 좋은걸 체험하오. 간부들이 이렇게 현장에 나와보지 않으면야 늙어죽을 때까지 두 모르지.》

담배를 꺼내무는 아바이에게 해철은 라이타를 꺼서 붙여주었다.

《솔직히 말해서 아바이, 난 좀 무서웠습니다. 연해에서만 댐돌다가 먼바다에 처음 나가는데 혹시 멀미라도 하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지도일군이러는 사람이 어로공들앞에서 배멀미를 하면 무슨 꼴볼건이겠습니까.》

담배연기를 후— 내뿜는 아바이의 입가에서 느슨한 웃음이 담배진처럼 배어나왔다.

《그게 바로 쓸데없는 체면이라느거요. 일이



라는거야 배우면서 하는거구 바다라는거야 노란 열물을 토하면서 정을 붙이는거지.

진짜 바다사람들은 배멀미가 아니라 룡상멀미란다오. 바다에서는 펄펄 날던 사람들이 어찌 물에만 오르면 어질어질한단데. 외려 바다에서 절절게던 생둥이들이 귀향한 담엔 똑똑 잘 뛰다니구. 사람의 습관이라는게 정말 별개요. 흔들흔들하는 배갑판에 습관되니까 든든한 룡지가 발에 잘 붙지않거던.

알아두라는데, 배사람들 남보다 힘든 바다일 잘하는데 이것두 잘하겠거니 하구 룡상일 시켰다가 랑패볼 때 있다는걸.»...

...사업소에 들어서는 길로 배들을 돌아다니며 준비상태를 간간히 돌아보고난 해철에게 선단장이 말했다.

《출항준비검사가 끝날 때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 같이 합숙에 가서 아침식사나 하구 오시우. 식모로친한데 부국장이 돌파서 온다구 일러줬더니 생태국을 푸짐하게 끓여놔습데. 우린 다 먹었수다.》

《그렇게 합시다. 왔던김에 연포사람들 동태국 끓이는 솥씨두 좀 볼겸 나두 한그릇 얻어먹고 가겠소.》

성당일군이 해철을 잡아끌었다.

합숙식모는 법석 떠들며 해철을 맞이했다.

《색시결에 가지두 못하구 돌파셨다면서? 간밤에 선단이 다시 나간다구 북아칠 때 우리 부국장동지 돌파서리라 했소. 빨리 들어와 아침밥 잡수. 동태국 끓였단데. 엿저녁에 배 들어왔을 때 한소래 푹 퍼서 푸짐히 끓이자 했는데 색신데 가는게 그리 급해 달아나는 바람에 속이 다 알알했소. 한창때는 한창때다 했지.》

《우리 부국장동물 총각인줄 알았다면서요? 손녀사위 삼으려구 했다던지?》

성당일군의 말에 로친은 손을 뉘뉘 내저었다.

《아니! 그게 아니구, 침에 뉘을 땀 어찌 어려보였는데 먼바다나가 일한거 들어보니 어른은 어른이다 했소. 도두 아니구 성 부국장이란게 간단하오? 젊은 나이에 그만큼 올라갈만두 하다 했지.》

《그러니 부국장동물 먼바다 나가서 켜구만!》

성당일군이 호탕하게 웃자 식모는 한술 더 뺐다.

《그래, 압만 간부래두 일이 어른이지 어른이다 해서 다 어른대접 반소?》

《음- 옳은 말입니다.》

성당일군은 깊은 의미를 담아 머리를 끄덕였다.

《자, 국이 식기 전에 빨리 잡수. 동태국이란건 따가운거 후-후- 불면서 입안에 하느라지 한꺼풀 벗어지게 잡사야 잡순거 갈단데.》

고추가루가 시뻘쭙고 애가 똥똥 뜬 동태국을 휘휘 저으면서 후-후- 불던 성당일군이 물었다.

《동태국은 어떻게 끓여야 제맛인가요?》

《어떻게 끓인다는 법이야 있소? 송송 썰어서

팔팔 끓는 물에 들이뜨리구 간장놔서 간 맞춘 담에 고추가루, 마늘다지 푹푹 퍼여서 얼벌벌하게 먹으문야 그게 제맛이지.》

《애는 어떻게 합니까?》

《애구 명란이구 고지구 우린 그저 한데 다 쏘아여서 푹 끓ियो. 겨울에야 동태국이상 있소?》

그렇게 한데 섞어 푹 끓이고 고추가루며 마늘다짐을 푹푹 퍼친 뜨끈한 국을 후후 불어 한숟가락 꼰뻬 삼키고는 허연 국김을 목구멍에서부터 허-내불고나서 성당일군은 말했다.

《애는 이렇게 한데 넣어서 끓이지 말구 따로 랑쳐서 졸이다가 고추가루랑 마늘이랑 넣어 양념을 만들어가지구 뜨끈한 국에다 쳐서 먹어야 제맛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식모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예구- 큰어른이 동태국 끓이는 법 그리 자상히 아오? 한뼘 제 식구, 남의 식구 밥해주는 내두 모르는걸. 집안에 료리사 있소?》

《이건 어느 료리사가 아니라 바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겁니다. 이번에 인민들의 물고기공급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이 동태국을 제맛이 나게 끓일줄 아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몸소 가르쳐주시었습니다.》

뜨끈한 국을 열심히 불며 숟가락을 놀리던 해철이 굳어지고 늙은 식모는 두손을 가슴에 모두었다.

《장군님두- 자심하시기두! 그저 수령님 꼭 같으시오. 옛날에 수령님 저 오리목장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오리알 절귀먹는 법 모른다구 몇번 배워주시면서 그렇게 해봐라, 오리알 한알만 가지구두 밥 한사발 다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군님두 꼭 같으시오. 내야 어머니, 어머니 하니 그렇지 그런것두 모르구 무슨 에미요?》

가슴이 후터워나고 생각이 깊어지는 아침식사였다. 고성기에서 일기예보가 울려나왔다.

《...오늘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평년보다 7도 낮았습니다. 이로써 어제와 오늘 최저기온은 당일 최저기온으로서는 1985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래일부터 날씨는 점차 풀리겠습니다. 다음 바다날씨...》

해철과 성당일군의 눈길이 맞부딪쳤다. 지난밤도 이 강추위속에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셨을 경애하는 장군님!

이들의 속마음을 알길 없는 식모가 중얼거렸다.

《금년겨울은 별나기두 하다. 김장철갈아서는 겨울이라는게 맥이 없다없다 김치 다 시글게 하더니 독썩다더라 하구 또 이리 땀짜오? 래일부터 풀린다 해두 날바다야 그렇소? 평양사람 어찌 나가 고생하겠소?》

해철은 마음속으로 세차게 머리를 저었다.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야 무슨 고생이겠습니까. 70고개를 눈앞에 두신 장군님께서 이 눈보라강추위를 헤치고계시는데!)

성당일군이 말없이 해철의 손을 짝 잡아주었다. 출항시간이 되어 배에 오른 해철은 갑판에 서서 서둘러 손전화기로 집을 찾았다.

《여보, 나요. 연포에 되돌아왔소. 알려준다는게 긴급정황이다나니 깜박 잊었구만. 기다렸소?》

수화기에서 안해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알고있어요. 어제 밤 성당에서 전화를 걸어왔더군요. 꼭 당신이 있어야 하기때문에 그러는데 한주일만 더 기다려줄수 없는가고 말이에요.》

《?!》

해철은 후더운 눈길로 바래주러 나온 사람들과 함께 잔교에 서있는 성당일군을 내려다보았다.

《아버님도 대견해하세요. 그건 당신이 구실을 하고있는거라고 말이에요.》

《그래?》

해철은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아 잠시 서있기만 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나서 물었다.

《당신 동태국 맛있게 끓일줄 아오? 모르지?》

《뭐라고요?》

팔랑방울 굴러가는것 같은 웃음소리가 깔깔 굴러나왔다.

《아무렴 수산성 부국장 댁이 생선국 끓일줄 모르겠나요?》

해철은 그러한 안해가 제앞에 있기라도 한듯 짐짓 머리를 저었다.

《아니, 당신은 몰라. 그저 끓일줄은 알아두 맛있게 끓일줄은 모를거요. 기다리오. 내 이제 돌아가면 동태국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끓이는 법 배워주겠소.》

《어마나— 당신이요? 먼바다에 나가서 동태국 끓이는 법 배우셨나요?》

《선단 출항!》

배고동소리가 길게 울렸다.

선단장이 탄 지휘선 3011호가 먼저 출발하고 3012호, 3013호가 꼬리를 물고 잔교에서 떨어졌다. 마지막순서로 해철이 탄 3014호가 통탕통탕하며 출발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추진기로 물을 건너차기 시작했다.

서서히 멀어지는 잔교에서 손을 저어주는 사업소사람들과 성당일군에게 답례를 하고난 해철의 눈에 오뎅하게 들어앉은 어항도시의 뒤를 병풍처럼 두른 높지 않은 산줄기너머로 백설을 휘날리며 웅건하게 솟아있는 아아한 산발들이 우뚝이 안겨왔다.

차디찬 수평선을 파스하게 물들이며 피어오르는 아침노을이 이 나라의 울타리인양 동해안의 시작부터 끝까지 뻗어간 높은 산발들의 언저리로 비쳐가고있었다. 노을은 그 산발들너머 어딘가를 달리는 장군님의 야전렬차 차창가에도 비칠것이다. 이 시각 내륙의 높은 산발우에 피어나는 아

침노을을 성에불린 차창너머로 바라보시며 우리 장군님 또 하루 눈보라강행군의 신들메를 조이고계실지 어이 알랴.

해철은 석달전 이 선단과 함께 먼바다로 진출하던 그때보다 더 성장한 자기를 발견했다. 활달한 필체로 수표하여 내려보내주신 물고기공급문건, 그밤으로 눈보라를 뚫고 강행군길에 오른 야전렬차... 그이께서는 자신의 불같은 헌신으로 이렇게 살라고 전사들을 키워가시는것이 아닌가. 하많은 이야기들을 안고있는 조국의 기슭을 떠나 선단은 열정의 미소와도 같이 불타는 아침노을속으로 멀어져가고있었다.

#### 4

42시간의 전속항행으로 선단은 찬바다물흐름을 따라서 공해로 빠진 명태떼를 앞질렀다.

《14호! 부국장 들으라. 명태떼가 걸충과 중충을 같이 타고있다. 수심 30부터 80사이! 그쪽은 어떤가?》

지휘선에서 선단장아바이가 보내는 말이었다. 해철은 어군탐지기화면을 긴장하게 주시하며 대답했다.

《14호가 말한다. 우리도 같다. 수심 35부터 90사이.》

이것이 바로 연포로 되돌아서는 승용차안에서 해철이 예견하고 선단장과 토론했던 상황이었다.

《11호! 명령을 내리라.》

《알았다. 전체 들으라! 선단을 두개 조로 갈라 두척뜨랄을 하겠다. 12호는 나와 같이 중충뜨랄로! 13호는 14호와 같이 걸충뜨랄로 뒤따를것! 지휘선은 1조 11호! 2조 14호! 투망하기 전에 선장들은 확대관확인 잊지 말라! 이상!》

해철은 휴대용컴퓨터에 어황상태를 입력하고 부지런히 건반을 누르며 필요한 수치들을 계산해냈다.

《1조 들으라. 바줄길이 250! 배간격 80! 예망속도 2.5! 수신!》

《알았다. 바줄길이 250, 배간격 80, 예망속도 2.5!》

해철은 고개를 돌려 14호선장에게 2조의 프랄그물바줄길이, 두 배의 간격, 속도수치가 현시된 화면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머리를 끄덕이며 지령송화기를 당기는 선장에게 당부했다.

《아바이가 강조한대로 투망하기 전에 확대관상태를 선장동무가 직접 확인하오.》

몸집이 거울진 젊은 선장은 눈살을 찌프렸다.

《저 령감은 노상 확대관, 확대관... 말은 사람들이 어련히 하지 않을라구요!》

《프랄의 3대요소가 아니요. 경험많은 로장들의 말을 들어야 하오.》

문득 소는 늙은 소가 더 착실하고 말은 늙은 말

일수록 길을 더 잘 안다고 하던 아버지의 말이 생 각나 해철은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아바이가 그렇게 확대판을 강조하군 하는데는 무슨 사연이 있지 않소?》

《어느 옛날에 그런 실수를 했다는것 같습니다.》

옆에 와서 가지런히 붙었던 13호가 프랄그물의 한쪽바줄을 넘겨받자 14호의 선미에서 그물이 바다로 떨어졌다. 두 배는 옆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다. 거리간격 100미터에서 두척의 배는 나란히 달리면서 한그물을 끌기 시작했다.

1마일앞에서는 11호와 12호가 같은 방법으로 중층의 명태떼를 그물에 몰아넣으며 달린다. 이렇게 훑어나가는 그물에 아래층의 명태떼가 몰려들어가고 흩어지는 명태떼는 옷층에 울리몰리는데 그러면 13호와 14호의 옷층프랄그물이 뒤따르며 그것들을 또 훑어나간다. 그물에 물고기가 얼마나 들어찼겠는가 하는것은 추진기에 실리는 부하를 놓고 가늠하게 된다.

두시간을 채 못 달렸는데 선장이 흡족한 웃음을 짓고 말했다.

《들겠습니까. 그물이 껴질 지정입니다.》

해철은 힘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양망준비! 기관 미숙!》

간격을 좁히며 서서히 다가온 13호에서 바줄이 핵 날아와 14호의 갑판에 떨어졌다. 대기하고 있던 어로공들이 그것을 쟁싸게 받아 한쪽바줄만 물고있던 권양기에 물린다.

《들라!-》

호기있는 구령소리와 함께 권양기가 기세차게 돌아가고 바줄이 굴대에 감기기 시작했다. 물밑에서는 그물이 아구리가 좁혀지며 서서히 끌려올라온다. 물고기가 짝 들어찬 그물이 바다표면으로 올라오면서 선미의 바다물이 부글부글 끓어번지기 시작했다. 그물에 갇힌 명태떼가 요동을 치는것이다.

《히-야! 멧-있다!-》

선창뚜껑이 열리고 선미의 미끄럼갑판으로 끌려 올라오는 그물에 어로공들이 달라붙었다.

《어그여차! 디여차차!》

권양기가 끌어올리는 그물을 저마다 같이 잡아 끄는 어로공들의 허연 입김이 내불린 얼굴들에 희열이 한껏 넘쳤는데 피어오르는 아침노을이 끓어 번지는 바다에, 모두의 얼굴에 함뿍 어렸다. 갑판에는 누구도 서있는 사람이 없다. 모두가 분주히 뛰고 누구나 목청껏 고향을 지른다. 나란히 옆에서 서서 구경을 하는 13호에서도 혼시하는 목소리 들이 날아왔다.

《쏟으라!》

드디어 그물아구리가 터지고 명태가 폭포처럼 선창에 쏟아져내렸다. 파도가 배전을 칠씩칠씩 들이치고 선창에서는 물고기가 와글와글 태를 치고 갑판에서는 사람들이 드바빠 뛰어다니니 눈앞에는

모든것이 핑글핑글 돌아가는것들일뿐 멧어있는 것이란 하나도 없다. 거기에는 대양의 물멀기에 배도 흥겨운듯 흥떡흥떡 춤을 추고있었다.

《열댓-톤 잘- 될것 같애!》

이쪽배에서 누구인가 소리치자 저쪽배에서 청높은 목소리가 통을 놓았다.

《짱치지 말아! 열톤짜리 그물에 어떻게 열댓-톤 들어가?》

와하하- 하고 웃음이 터졌다.

《자, 이제 우리 바줄 받으라!》

13호에서 바줄이 날아오자 이쪽에서 그것을 받아 고리에 물렸다.

《됐어!》

《투망!》

13호선미에서 그물이 떨어지고 두 배의 추진기가 물을 걸어차기 시작하는데 14호취사원이 다급하게 달려나오며 소리쳤다.

《여, 13호! 아침국 끓일거 좀 가져가라구!》

《자네들이나 잘 끓여서 먹으라구. 우린 좀 찼다가 우리거 잡아서 먹겠어. 더 생-신한거루!》

두 배는 다시 멀어지며 이번에는 13호의 그물을 함께 끌기 시작했다. 그동안 14호갑판에서는 어로공들이 그물코에 걸린 고기들을 뜯어내고 다음투망을 위한 그물정리작업을 한다.

꼭두룩한 취사원이 커다란 수지상자를 들고나와 흥얼거리며 그물코에서 뜯어낸 고기들가운데서 명태는 선창으로 내리던지고 왕새우요, 대구요 하면서 골라 채우는것을 보던 한 어로공이 소리쳤다.

《여, 동태는 왜 집어내? 동태국은 안 끓여?》

《맨 동태데 먹어두 이런 큼직한 대구를 먹어야지. 왕새우회를 곁들여주겠네.》

《금덩이두 많으면 천하다더니 저 사람 동태잡으러 나와서 동태 천대해?》

《대구는 무슨 대구? 사람두 키 큰건 싱겁지 않아!》

으하하! 하고 웃음이 터지는데 취사원이 그쪽에 대고 주먹을 휘둘렀다.

《야, 이 꼬맹아! 남 다 클 때 뭘하구있다가 망챙이배때기같은 소리야? 너한텐 콩치새끼나 한마리 골라서 끓여주마!》

다른 어로공이 끼어들었다.

《이 한겨울에 콩치가 어디 있어? 지금이 뭐 배따먹는 시절인줄 알아?》

그 말에 꼬맹이가 좋아라 웃어댔다.

《그것 보라구. 어쨌든 키 큰것들은 센치당 어물지 못했다는데!》

《뭐야? 너 아침밥 없어!》

또다시 와- 하고 웃음소나기가 쏟아졌다.

악의없는 룡담속에 꼬맹이는 푸들쩍거리는 명태 한마리를 고무옷가슴에 그러안고 흥겹게 늘어놓기 시작했다.

《명태 명태

그대는 이름 또한 많아라

본명은 명태요 꾹꾹 얼면 동태라  
생물은 생태요 말리면 건태  
소금에 절이면 염태

서해 아낙네들 어찌다 생긴거라  
뱌 아깁다 통채로 절이면 통태  
뱌만 먹고 절였다가 아까워서 또 말리면 짬태

알찬 임신부는 알태요 해산한 산모는 흘태라  
동해 사내들께 들인 정  
서해에 또 들이라

오, 그 절개 송죽같은 내 사랑 동해태!》

입까지 쪽! 맞추는 그 노죽에 환성이 터졌다.

《땃-있어!》

이번에는 취사원이 물고기 담던 수지상자를 안  
고 흔들흔들 춤을 추며 돌아갔다.

《이 동태 있는 곳에 만선기 날고

이 동태 가는 곳에 기쁨 넘치리

아- 아- 노래를 부르자

어로공의 이 자랑 끝이 없어라...》

즉흥으로 흥얼거리는 곡조에 가사 또한 걸맞아  
요란스런 웃음이 터졌다.

어항자료들을 컴퓨터에 입력하던것을 멈추고 조  
타실뒤창에 다가가 갑판에 펼쳐진 어로공들의 랑  
만을 미소를 지으며 내려다보던 해철은 사색에 잠  
겼다.

극심한 고난속에 연해에도 바로 나가지 못하던  
연포수산이 드디어 먼바다에 진출했고 수도의 수  
산물상점들에는 곧 물고기가 쌓이게 된다. 머지않  
아 온 나라의 수산물상점들에서 물고기를 사가는  
행복한 주부들의 웃음이 넘쳐나게 될것이다. 고난  
의 천리를 헤친 조국이 행복의 만리에도 줄달음치  
는 모습이 이 갑판에도 비낀것이 아닌가. 아직  
은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어  
제껴야 할 력사의 시간표는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다.

화창한 그 봄언덕을 향하여 12월의 눈보라를 헤  
치며 달리는 야전열차의 모습이 그려지며 눈곱이  
뜨거워졌다. 그 강추위, 눈보라속에 어디로 가셨  
을가? 자기들의 일터에 장군님을 모신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있을것이다. 그렇게 밤새워 눈보라  
를 헤치며 달려오신줄은 모르고...

해철은 돌아서 조타실옆방인 무전실문을 열  
었다.

《아침보도를 받았소?》

《받았습니다.》

《장군님 현지도소식이 새로 나온게 없소?》

《아직 없습니다.》

《음, 오늘이 며칠이더라?》

《19일입니다. 23일까지 아직 나흘 있습니다. 성

기상대통보는 바다물흐름에서 당분간 변화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이런 어황조건이면 지령대로...》

날자를 물어보는 자기의 속마음을 지레짐작한  
무전수가 하는 말을 해철은 잘라버렸다.

《그래서가 아니요. 12시보도에 장군님 현지  
지도소식이 나오면 알려주시요.》

취사원이 푸짐히 끓여놓은 대구대加里국, 통  
찜에 왕새우회로 떠들썩한 아침식사를 끝내고  
13호의 그물을 끌어올린 다음 14호의 그물을 또 뺄  
구었다.

해철과 선장이 갑판에 나와 오전중에 세기망을  
할수 있겠다면서 시간을 가늠해보는데 무전수가  
달려나왔다.

《12시부터 중대보도가 있겠습니다!》

해철은 잠시 무전수를 마주보다가 옆에 서있는  
선장에게 눈길을 돌렸다. 선장은 손목시계를 들여  
다보았다.

《사업소무전대와 성통신대에서 동시에 날아  
왔습니다. 다 들으라구 말입니다.》 그러면서 애  
젊은 무전수는 슬그머니 해철의 옷자락을 잡아당  
겼다.

《부국장동지, 무슨 소식입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아오? 들어보아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난 이자 무전을 받으면서  
아, 부국장동지가 그래서 아침부터 장군님소식 나  
온게 없는가 물어봤구나 하구 생각했습니다.

12시에 보도가 나오면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  
습니까. 중앙에서 뭘 좀 알구 내려왔지요?》

그러자 선장도 해철을 쳐다보았다. 해철은 빙긋  
웃었다.

《난 평양에 가지도 못하고 돌아서지 않았소?》

《그래두 성당간부동지하구 같이 오지 않았습니  
까. 오면서 이야기...》

선장이 참지 못하고 말을 잘라버렸다.

《자, 열한십니다. 이젠 시간도 다됐는데 뭘 좀  
알고있으면 대주십시오. 속이 달게 굴지 말구.》

해철은 머리를 저었다.

《그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신 지시를 톡톡  
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던거요.

선실에 텔레비존이 제대루 나오는지 봐야 되지  
않겠소? 파장두 잘 맞추구. 가만, 열두시면 그물  
을 들어야 할 때가 되겠는데...》

선장은 입을 찹찹 다셨다.

《됐습니다. 석달나마 한가마밥을 먹여가지구두  
이럴 땐 쪽을 가르느줄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무전수에게 돌아서며 다분히 중이 섞  
인 소리를 질렀다.

《텔레비는 무슨 텔레비야? 답답하게 선실에 들  
이배겨서 듣겠어? 무전기 중앙방송파장을 맞춰  
가지구 확성기에 연결하라! 들어두 시원하게 갑판  
에서 듣구 만세를 불러두 갑판에서 부르자! 바다  
사람들답게.

부국장동진 선실에 들어가서 텔레비로 들으십시오, 중앙기관사람이니까!》

꽤 돌아서서 조타실로 올라가는 선장을 해철은 허거뜨게 웃으며 바라보았다. 무전수는 그래도 행여나 해서 부국장의 입을 쳐다보다가 자기도 입을 다시며 선장의 뒤를 쫓아갔다. 잠시후 확성기에서 선장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들으라! 12시에 중대보도가 있다. 전체 성원 갑판에 모였!》

13호! 중대보도 듣고 양망하겠다. 그동안 그 물은 유지만 하겠음. 배간격 120에서 기관 미속!》

초단과대화기를 무휴상태로 놓았는지 저쪽에서 응답하는 소리가 확성기로 울려나왔다.

《알았다. 배간격 120에서 기관 미속! 14호! 중대보도가 뭔지 부국장이 좀 아는게 없는가?》

이쪽에서는 뒤틀린 대답이 단마디로 튀어나왔다.

《모른대!》

기다리는 시간이 다가오고 전체 성원들이 모인 갑판에 해철을 등지고 돌아선 선장의 무선대화기에서 선단장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14호! 부국장을 찾는다.》

해철은 선장이 맞았지 않게 내미는 초단과대화기를 넘겨받았다.

《이보라구 부국장, 그쪽무전수 말이 부국장이 뭘 좀 알면서두 비싸게 군다는데 말 좀 하오. 바다물우에서야 다 한가진데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따루 있으면야 안되지.》

해철은 난감해졌다.

《아바이, 나두 정말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출항하던 전날 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눈보라를 헤치면서 또 어디론가 현지지도로 떠나시었다는 얘기를 들었을뿐입니다. 그래서 그 눈보라강추위속에 어디로 가셨을가 하구 현지지도보도가 나오는 걸 기다렸습니다.》

《그런가? 그러니 어디서 또 회한한걸 제꼈다는 건데? 경사두 이만저만한 경사가 아니길래 중대보도루 나오겠지?》

두사람의 대화를 들은 어로공들이 희색에 넘쳐 웅성웅성거리며 확성기밑으로 바싹 모여들었다.

드디어 낮 12시! 그러나...

환희에 찬 목소리가 아니라 피울음을 씹어삼키는 너방송원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고함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100(2011)년 12월 17일 8시 30분에 현지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하시었다는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린다.

...》

모든것이 일시에 굳어졌다. 사람들은 숨이 껍

막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볼뿐이었다. 이럴수가?... 아니!

선장이 먼저 얼어붙은 정적을 깨버리며 조타실 쪽에 대고 사납게 울부짖었다.

《야! 무전수! 이놈아! 이게 우리 방송 맞아?》

레시바를 귀에 낀 무전수도 얼굴이 해쓱해서 굳어져있었다.

《선실에 가서 텔레비 켜라!》

모두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일제히 갑판아래 선실로 쏟아져내려갔다. 밀치고 덤벼치며 텔레비 존수상기를 켜니 이번에는 남자방송원이 비통한 울음을 울고있었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심장 및 뇌혈관질병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오시었다.

...겹쌓인 정신육체적과로로 하여... 달리는 야전렬차안에서...

...

...병리해부검사에서는 질병의 진단이 완전히 확정...

...》

《어허헉!》

억대우같은 선장이 허리를 꺾으며 소영각소리같은 울음을 터뜨리자 바다사나이들의 오열이 일시에 쏟아졌다.

갑판위로 달려올라온 이들은 조국의 하늘을 쳐다보며 무릎을 꿇었다.

《장군님!-》

해철은 머리를 쳐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짙하니 맑은 하늘에는 여전히 해가 떠있었다. 인민의 태양이 꺼졌다는 비보가 천리대양에 날아왔는데 자연의 태양이 그냥 떠있는것이 이상한 일이었다. 파도가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지 종전대로 칠썩이고있었다. 아무리 둘러봐도 달라진것이란 없는 하늘과 바다, 정녕 이것이 사실이란 말인가?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하늘이 이토록 무심할수 있겠는가!

해철은 무전실로 뛰어올라갔다.

《찾소, 물어봐야겠어!》

《어디를 찾으십니까?》

무전수가 울먹거리며 물었다.

《조국을 찾으란 말이야!》

《우리... 방송... 조국... 방송이... 옹슌... 오희...》

해철의 머리가 푹 꺾어졌다.

아, 그날 밤의 눈보라! 강추위!... 가슴저림을 자아내던 그 야전렬차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듯 심장을 비틀어짖는 아픔으로 이어진단 말인가!

장군님! 전사들의 가슴을 이렇게 찢으며 가신단 말입니까? 장군님-

모든것이 잊어버리고 마비되었다. 기관이 멎은 배는 대양의 물멀기에 몸을 맡기고있었다. 끝

려오던 그물이 아래로 내려앉으며 잡아당기는대로 120미터간격을 두었던 두척의 배는 점점 거리가 좁혀졌다.

해철은 입술을 깨물며 일어섰다. 가자, 조국으로!

선장이 조타실에 들어섰다. 멍해진 그의 두눈을 마주보던 해철은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11호를 찾으시오.》

선장은 목이 짝 메여 말이 나가지 않는지 무선 대화기를 해철에게 내밀었다.

《11호, 11호, 나 부국장이다. 아바이, 대답하라. 11호, 11호!》

11호선장이 대답했다.

《아바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부국장동지, 이젠 어떻게 하갑니까?》

《선장동무, 그물을 거두고 귀향준비를 하시오. 우리도 곧 그곳으로 가겠소.》

해철은 대화기를 선장에게 내밀며 결연한 어조로 말했다.

《선단을 지휘하십시오. 동문 선단장의 1대리인이 아니요. 선단을 지휘선으로 집합시키시오. 있을수 있는 정황에 대처해서 경계근무를 강화해야겠소. 여긴 조국으로부터 수백마일 떨어진 곳이요. 우린 울어도...》

뜨끈한것이 울적 치밀었다.

《...조국에 가서 울어야 하오. 그리고... 조기를... 띄우시오.》

추진기가 다시 물을 건어차고 권양기가 그물을 감아올렸다. 몇시간전까지 그토록 환희에 차서 끌어올리던 그물을 어로공들은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며 묵묵히 잡아끌었다.

해철은 무선수를 불렀다.

《무전을 보내시오. 〈선단 귀향하겠다. 현재 어획량 55톤.〉》

그러나 비분에 떠는 조국의 하늘로부터 먼저 무전이 날아왔다.

《연포수산사업소 먼바다선단앞.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가르치심내용에 따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생활부문에 마지막으로 주신 12월16일지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세운다.

수도시민들에게 공급할 물고기 확보문제

...

물고기수송을 위한 특별철차편성과 운행문제

...

수도의 각 수산물상점들까지 물고기운반문제

... 이상.

선단은 출항할 때 받은 지시를 그대로 집행할 것.》

전보문을 받아진 해철은 어깨를 펴며 뜨거운 열을 더뜨렸다.

아, 조국! 조국은 피눈물에 잠긴 이 순간에도 무

엇을 사색하고 어떤 결심과 실천을 하고있는가! 가장 비통한 눈물을 쏟으면서도 변함없는 어머니로 천만자식들을 끌어안아주고있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 가득한 조국, 더욱더 소중하고 사무치게 그리운 내 조국!

## 5

12월 21일 깊은 밤. 명태를 만제한 선단은 조국을 향하여 전속항행을 시작하였다. 이제부터 40시간, 편대를 지어 항행하는 선단의 제일 마지막에 선 14호조타실에서 해철은 머나먼 조국방향의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있었다.

무선대화기의 호출신호가 울렸다.

《14호! 부국장을 찾는다.》

선단장이었다.

《말하라, 무슨 일인가?》

《그저 생각이 많아서 얘기나 좀 하고싶어 그러네. 량해하라구.》

《일없습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수령님을 잃었을 때 생각이 나는구만. 그땐 선장을 할 때였는데 먼바다 나와서 프탈을 했지. 하루는 그물을 펴구구 온밤 행켰는데 도무지 짐이 실리지 않아. 이상하다 하구 날이 밝았을 때 그물을 들었는데 이거라구야. 확대판이 벌어지지 않았거던. 아구리가 벌어지지 않은 그물에 무슨 고기가 들어갔겠나. 그땐 다섯톤짜리 현측프탈이었는데 열뒤키로나 들어갔는지. 세상에 이런 실수를 하다니. 어이없어 그저 웃고말았지.》

얼마 안 있어 수령님을 잃었어. 그때에야 난 가슴을 치며 울었네. 그건 사실 실수가 아니라 최악이었어. 자기가 맡은 일을 당과 국가앞에 책임진다는 자각이 근본 없었거던. 나같은 놈이 일을 그렇게 되는데로 했으니 우리 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까지 경제문제를 심려하시다가 돌아가셨다구 울기두 울었네.

장군님앞에 가장 책임적인 전사루 살리라 마음 다지구 다졌는데 이렇게 장군님을 잃고보니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한것 같애. 우리가 일을 바루했으면야 하늘처럼 귀중하신 우리 장군님 눈보라치는 현지도도로상에서 순직하셨겠나?》

《!...》

《어허, 조국이 그림구만, 못 견디게 그리워! 가슴터지는 슬픔을 안고계시는 우리 **김정은**동지께서 이 죄많은 백성을 생각하시여 피눈물을 쏟으시면서두 물고기대책을 세워주시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나. 내 죽을 때까지 **김정은**동지를 받들겠네. 아니, 죽어서두 받들겠어!》

해철은 눈물이 그렇게졌다.

가슴을 치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배사람들이 말하는 룡상멀미, 흔들거리는 배가 습관되어서 든든한 룡지가 오히려 발에 잘 붙지 않는다는—

수산일군인 나는 그런 룡상벌미를 진작 알고 살았던가.

—아버지, 등산가나요?

—아버지, 출장갈 땐 가방 하나 가지구 가땀잖나!

어린 아들이 하던 말이 다시금 귀전을 때렸다. 그렇다, 그것이 바로 수산일군이라는 립해철, 나의 지나온 모습이었다.

우리 장군님은 야전차의 쪽잠이 얼마나 습관되시었으면 폭신평신했던 침대가 오히려 불편해서 잠이 안 온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수산일군들이 배낭을 메고 바다에 나가 어로공대중을 불러일으키며 살았다면 우리 장군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나날까지 인민들의 물고기공급문제를 두고 마음을 쓰셨겠는가. 그렇게 살았다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피눈물을 쏟으시면서도 물고기공급문제를 하나하나 대책해주셔야 했겠는가.

그렇게 살았다면, 그렇게 살았다면, 아, 우리모두가 장군님처럼 살았다면!...

...물고기수송을 위하여 편성된 특별렬차로 연포에 도착한 성당일군에게 합숙식모가 매달렸다.

《평양사람들 좀 다시 말해주오. 장군님 돌아가신게 사실이요? 아니지? 텔레비 거짓말했지?》

아무 말도 못하고 비통한 안색으로 고개를 떨구는 성당일군의 가슴을 두드리며 로친은 곡성을 터뜨렸다.

《어째 말 못하오? 평양사람들 명태실이라 온다 하니 장군님 앉아계시는거 그런다 하구 기다리기 두 기다렸는데 어째 이래 말이 없소?》

인민들 잘살게 하겠다구 그토록 고생하신 우리 장군님 70살상두 못 받구 가셨다는게 말이 되오? 이 늙은게 어째 벌써 죽지 못하구 이런 날 다 보오? 장군님 앞세우구 내같은게 살아 뭐하겠소?》

늙은이의 곡성에 둘러섰던 사람들이 눈물을 쏟았다.

《진정하십시오. 곧 먼바다선단이 들어옵니다. 나하구 같이 할일이 있습니다.》...

...아침해가 퍼질무렵 선단은 연포만에 들어섰다. 해철은 목갈린 고동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는 배머리에 서서 서서히 다가오는 포구를 바라보고있었다. 한주일만에 돌아오는 조국이지만 마치도 몇십, 몇백년만에 돌아오는듯싶었다. 여전히 아늑하고 오붓이 들어앉아있는 어항도시. 가슴속에 피눈물이 사품쳐흐르면서도 끄떡없이 서있는 조국의 강의한 모습인가 백설을 휘날리며 아아히 솟은 북변의 높은 산발들이 우뚝이 안겨오고있었다.

손전화기 호출신호가 울렸다.

《부국장동무, 수고했소.》

성당일군이였다.

눈물이 솟구쳐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동무들의 만선보고를 받고 평양에서는 어제부

터 구역별로 물고기공급을 시작했소. 지금 연포역엔 특별렬차가 와있고 서포역에선 오늘 저녁중으로 마지막구역까지 물고기공급을 끝내기 위해서 자동차수송대가 대기하고있소.

합숙식모어머니가 동무들의 언문을 녹여주겠다구 더운물에 꿀을 풀어가지구 여기 나와있소. 내 전화를 바꿔주지.》

해철은 뜨거워지는 눈굽을 눌렀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니요, 내절루 그런게 아니요. 내야 언제 그런걸 생각이나 했소?》

**김정은**동지께서 오늘 새벽에 친필을 써서 내려 보내셨다지 않소. 인민들이 호상서구있는데 추운 겨울밤에 떨구었다는거 장군님 아시문 가슴아파하신다구 더운물이랑 끓여주구 솜옷이랑 뜨뜻이 입게 하라구 하셨다오. 물두 맹물 끓이지 말구 사랑가루나 꿀을 풀어서 끓여주라 하셨다는데 어찌문 그리 자심하시오? 그저 우리 장군님과 꼭같이시오. 우리 인민이야 정말 복을 타구났소!》

성당일군이 다시 전화를 이었다.

《먼바다선단에 식구가 한사람 늘게 됐소. 성대기차 운전사 김성남동무가 연포의 먼바다선단에 진출하겠다고 당세포에 제기해왔소. 동무가 렌트겐투시기라고 했다면서?》

장군님령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반성했소. 다른 사람들의 됴됨을 평가할줄이나 알았지 자기를 들여다볼줄 몰랐다고 말이요. 쉽지 않은 결심이요. 평양사람이 평양을 뜬다는게 어디 간단하오? 이거 내 말만 길게 해서 안됐구만. 어서 집에 전화하오. 동무가 우리 바다에 들어서는 길로 전화를 걸도록 하겠다구 내 약속하구 떠났소. 어서 하오. 기다릴거요.》

해철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집을 찾았다.

《당신이에요?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어제 우린 명태와 청어를 공급받았어요. 아버지 오시면 같이 먹는다구 남이가 기다리고있어요.》

《우리 동태국을 같이 끓입니다. 내 동태국 끓이는 법을 대주겠...》

목이 짝 메어나서 말을 맺을수 없었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안해도 울고있었다.

《동태국을 맛있게... 끓여... 놓겠으니 어서 오세요. 더운 국이 기다리는 우리 집... 으로.》

뜨거운 눈물이 두볼로 흘러내렸다. 고개를 힘있게 들어 바라보니 솟아오르는 아침해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조국의 산천이 자식들을 반겨 환히 웃는 어머니처럼 두팔벌려 마중오고있었다.

《붕—》

배고동소리를 길게 울리며 바다의 아들들은 영원히 안겨살 그 품으로 다가들었다.

## 장 군 님 남 기 신 초 물 모 자

류 경 철

이 땅 어디에 가나 어버이장군님의 위대한 생애의 흔적이 력력히 남아있다.

그이 남기신 사진, 그이 나누셨던 약속, 그이의 현지도자옥마다에 새겨있는 사랑의 이야기들, 전설같은 일화들...

인민을 위해 자신을 깎그리 불태우신분.

그이를 잃고보니 그이의 위대함이 심장에 더더욱 마쳐오고 그이에 대한 그리움이 더더욱 깊어만 가는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우리 인민은 그 어디서나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한다.

현실체험의 길에서 찾았던 어느 한 초물생산협동조합에서도 나는 그곳 사람들의 눈물어린 추억담을 듣게 되었다.

《우리 조합에 대한 글을 쓰려면 먼저 초물모자부터 보아야 합니다.》

중년의 녀성관리위원장은 이렇게 말하며 연혁소개실로 우리를 이끌었다.

연혁소개실의 넓고 깨끗한 방안에는 이곳 조합에서 생산한 초물제품들이 년대별, 종류별로 진렬되어있었다.

왕골로 엮은 여름용채양모자가 정히 보관되어있는 장앞에서 걸음을 멈춘 관리위원장은 눈시울을 습벅이다 목갈린 소리로 말했다.

《우리 장군님께서 써보셨던 모자랍니다.》

2009년 마가울의 어느날이었다고 한다.

그날 평안북도안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적한 곳에 자리잡은 이곳 초물생산협동조합에도 들리시었다.

그때 현장사무실에는 조합에서 생산한 여러점의 초물제품들이 전시되어있었다.

강냉이오사리로 만든 구력과 휴지통, 왕골로 엮은 여름채양모자며 방석...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부산물을 가지고 정말 쓸모있게 인민소비품을 잘 만들었다고 치하하시면서 채양넓은 초물모자를 허물없이 써보시었다.

마가울날에 찾아오신 장군님께서 따뜻한 방한모가 아니라 선뜻한 기운이 풍기는 여름용초물모자를 쓰시게 한것이 죄스러워 도의 책임일군들과 조합일군들은 그만 몸둘바를 몰라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일군들의 마음을 헤아리신듯 오히려 자신께서 써보니 시원한 느낌이 들어 좋다고, 인민들이 좋아할것 같다고 만족해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었다. 그러신 후 이런 초물모자를 많이 만들어 여름철에 더위고생을 하는 도시오인들한테 먼저 공급하고 이선남폭주변과 룡

문대굴주변매대에도 가져다 차려놓아 등산, 관광을 하는 인민들이 리용하게 하자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날을 돌이켜보는 관리위원장의 얼굴에 그리움의 표정이 더욱 짙어졌다.

《그날 장군님께서 저희들이 이 초물모자를 삼가 드리려고 하자 인민들이 다 쓴 다음 자신께서 가져다 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크지 않은 이 초물모자를 두고도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돌이켜 생각해보니... 크지 않은 이 모자에 장군님께서 남기신 뜻은 그지없이 크다고 생각하니 그 뜻이 막... 사무칩니다.》

녀성관리위원장은 종내 눈물을 흘리고말았다.

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해 남기신 초물모자!

우리 가슴에 안겨오는 크고도 숭엄한 그 의미. 인민을 생각하시는 마음, 인민을 위하시는 사랑.

오직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다가 너무도 일찍 떠나가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생각으로 나의 가슴은 미여지는것만 같았다. 삼복칠강행군길에 계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우렁이 떠오른다.

살을 태우는 폭열과 숨막히는 무더위를 헤치며 동서해의 수천리 현지도길을 이어가시던 장군님, 그이의 야전복을 화락하니 적시던 땀...

그러나 장군님께서 언제한번 시원한 채양모를 쓴적이 없으시었다.

장군님도 인간이실진대 무더운 여름때마다 어찌 서늘한 그늘이 그림지 않고 휴양이 생각나지 않으셨으랴. 하지만 그 모든것을 마다하시고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서슴없이 폭양 쏟아지는 그 길을 즐기치게 내달리셨다.

장군님 남기신 초물모자!

어찌 이것을 하나의 단순한 생산제품이라고만 하랴.

초물모자, 이것은 우리 장군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인민의 행복이다.

오로지 인민을 위해 살아오신 위대한 인간의 헌신과 로고의 한평생을 말해주는 력사적증거물이다.

이 땅 어디에 가나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생애의 이러한 흔적이 너무도 많고 많다. 그 자욱 못 잊어 우리 천만군민은 그리움의 노래 부르고 부른다.

이 땅에 백년, 천년세월이 흘러도 그이의 위업 그대로 빛나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계시여 자자손손 어버이장군님 못 잊어 부르는 노래는 영원토록 울리리라.





최 정 옥

그림 김 광 석

1

삼천동을 내려선 랑기탁과 후루바시 게이스께경 부는 얼마후 종로 네거리앞에 이르렀다.

사방에서 마차가 분주하게 오가고 사람들이 와글와글 뿔었다.

금시 눈앞이 휘휘 내들리우고 귀가 뽕뽕 울리었다. 게이스께는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새로 해박은 금이를 드러내며 스르시 웃었다.

《듣자니 랑선생은 요즘도 집에 붙박혀 고전서적들이나 뒤적거린다던데 선생같이 명망높은 사람이 중년의 귀중한 나날들을 그렇게 허무하게 보낸다는것은 일종의 최악이 아닐가요?...》

게이스께는 한달에 두세번은 어김없이 기탁을 찾아오거나 호출하여서는 이러루한 수작을 늘어놓곤 했다.

두말할것없이 기탁의 동향을 탐지해보려는 술책이였다.

오늘도 게이스께는 삼천동막바지에 있는 기탁의 집에 찾아와 화창한 봄이 시작됐는데 시내에 나가꽃도 구경하고 미인도 만나보는것이 어떠냐고 지껄었다.

게이스께의 속내는 어떻든 겨우내껏 사랑방에서 텅굴다실이 한 기탁은 진정으로 봄의 향기를 마시고싶었다.

아니, 그보다는 변화된 시국형편과 독립운동의 실태를 감질이 나게 알고싶었다.

그런 소식은 《총독부》의 손아귀에 덜미를 잡히운 잡지보다 게이스께를 통해 뽑아내는것이 훨씬 더 실속이 있었다.

하여 기탁은 군말없이 허청간에서 텅굴던 개화

장을 찾아든 다음 먼지오른 중절모를 털어쓰고 게이스께를 따라나섰다.

게이스께는 언제나 그러하듯 신사홍내를 내고 유식자리를 내면서 이리저리 변죽을 울리는데도 기탁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지체없이 정면공격으로 넘어갔다.

《에— 랑선생도 지금 한창 동변도에서 독립운동의 형수로 활약하는 김형직이라는 사람을 알게지요?》

묵묵히 걸음을 내짚던 기탁은 우뚝 걸음을 멈추고 번쩍 고개를 들었다.

《알고있소. 온 조선이 다 알고 중국사람들과 당신네 일본인들까지 아는 그분을 내가 왜 모르겠소?》

화제가 자기의 의도대로 휘여든다고 생각한 기탁과 게이스께는 마음속으로 색이 다른 패재를 울리었다.

《우리 제국이 가장 아파하는 방향에서 독립운동을 추진시키던 김형직은 금년 봄 우리에게 또 하나의 예상밖의 타격을 가하였소.

다시말하여 김형직은 창바이(장백)일대에서 저들끼리 뿔싸움을 하며 와해의 일로를 걷던 여러 무장단체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광정단>이라는 무장대를 새로 내왔소. 이러한 통합열기가 고조된다면...》

기탁은 게이스께가 무엇때문에 극비에 속하는 소식들을 꺼리낌없이 훌훌 퍼넘기는지 까닭을 알수 없었다.

평소에는 참배처럼 사근사근하다가도 일단 흥분하면 순간에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는 기탁은 어느새 벌써 격렬한 흥분에 온몸이 휘감기였다.

(…통합을 설유하는 나에게 총을 들이대던 무지막지한 그들, 조폭하다고 창바이일판에 소문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하나로 통합되었을가?!)

불현듯 수수한 중절모를 쓰시고 연회색두루마기를 입으신 김형직선생님의 준수하신 모습이 눈앞에 가득히 안겨왔다.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의 벽을 뜨겁게 달구며 사무쳐올랐다.

그 어떤 죄책감이 숨가쁘도록 심장을 비틀기도 했다.

파란 불씨가 튀기는 가느다란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게이스께같은것은 까맣게 잊어버린 기탁은 멀리 북쪽하늘가에 시선을 박은채 석상처럼 굳어져버리었다.

×

학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량기탁은 신문지상에 민중계몽을 위한 글, 왜놈들을 배격하는 글, 의병투쟁을 찬양하는 글들을 수없이 써내며 대중의 반일독립정신을 배양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이였다.

한때는 나라의 자주권을 찾자면 왜놈들에게 진 빚을 물어야 한다며 국채보상운동의 선두에서 의연금을 모으는 일을 하기도 했다.

조선에서 처음으로 되는 《한영사전》을 편찬하였고 105인사건으로 감옥살이도 여러해 하였다.

왜놈들은 총칼로 신문도 찢어버리고 돈도 강탈했으며 나중에는 나라를 송두리채 삼켜버리었다.

자기가 하는 일로써는 미친듯이 날뛰는 놈들의 총칼을 꺾을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저도 모르는 사이 우울과 번민의 진통속에 헤매었다. 남은 것이란 절망, 허탈뿐이였다.

가는 곳마다 양복쟁이 《지도자》들이 울방자를 단단히 틀고앉아 허황하기 짝이 없는 궤변들을 절대의 진리라고 떠들어댔다. 지어 령도권쟁취와 세력권확장, 그밖에 하잘것없는 지엽적인 문제를 놓고 서로가 먹살을 틀어잡고 으르렁거리기도 했다.

기탁은 실망하지 않을수 없었다. 허우룩한 가슴을 쓰거운 술로 달래며 방랑자마냥 떠돌아다니던 기탁은 지난해 여름 무슨 일로 하여 광복군총영에 들리게 되었다.

여기서 그는 오동진으로부터 청수동회의와 판디엔(판전)회의소식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

자력독립! 일치단결! 지금껏 국권회복이라는 욕망만을 무겁게 들고다니던 기탁에게 있어서 김형직선생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해빛과도 같은것이였다.

선생님을 직접 만나 보다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생각한 기탁은 오동진에게 바다오거우(팔도구)로 가는 길을 세세히 알아본 다음 서둘러 총영을 나섰었다....

기탁이 바다오거우에 당도하니 구름이 낮추 드

리운 하늘에서는 줄대같은 소나기가 쏟아져내리고 있었다.

생소한 땅인데다 비까지 내리고보니 선뜻 길을 잡을수 없었다.

기탁이 어느 한 중국집대문앞에서 서성거리는데 기름종이로 만든 중국우산을 받쳐든 웬 녀자가 곧바로 다가왔다.

우산이 쳐들리자 처녀의 흰 얼굴이 비발사이로 달처럼 환하게 떠올랐다.

《안녕하십니까. 량기탁선생님이시지요?》

《네, 이 사람은 량기탁이 분명한데 량자는 누구신지?》

《리판린이라고 합니다. 량선생님이 오신다는 오동진사령의 연락을 받으신 김선생님께서 저를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니 김선생님께서 지금 광제의원에 계시오?》

《아닙니다. 선생님께서는 어제 저녁에 오셨는데 채목장의 로동자가 통나무에 치워 허리를 상했다는 소식을 들으시자 그길로 바다오거우하를 건너가셨습니다.》

오늘 중낮때는 량선생님께서 도착할수 있으니 오전중으로 꼭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김선생님께서 지금쯤 오실수 있겠는데 마중을 나가는데 옳은 도리겠소!》

바다오거우하라는게 어느쪽에 있소?》

기탁은 저벅저벅 걸음을 내짚으며 설레발을 떨었다.

얼마후 그들은 바다오거우하기슭에 이르렀다.

평시에는 어지간한 개울폭으로 흐른다는 바다오거우하가 지금은 골짜기를 타고 내린 성깔사나운 골개물로 하여 웬간한 강 못지 않게 불었다.

나지막한 둔덕우에 올라서서 걱정어린 시선으로 사뭇치는 강물을 살펴보던 판린은 조금후에야 할 바를 깨달은듯 강건너편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강너머의 귀틀집앞에서 서성거리던 한 청년이 판린의 연락을 알아본 모양 급히 안으로 들어갔다.

이쪽저쪽을 살피던 기탁은 판린에게 근심어린 어조로 응얼거렸다.

《이런 물살에 강을 건는다는것은 아주 위태한 일이요. 김선생님에게는 내가 왔다는것만 알리고 래일이든 모래든 물이 켜 다음 오시게 하는게 옳겠소.》

《아마 사공이 도착하지 않아 기다리시는것 같은데... 그렇게 연락을 띄우겠습니다.》

강건너쪽에 시선을 준채 자신없는 소리를 뇌이던 판린은 불현듯 나직한 환성을 터치였다.

《선생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저기 제일로 키가 크신분! 이쪽을 향해 웃으시며 중절모를 흔드시는분!》

강건너 귀틀집쪽을 주시하던 기탁은 여러 사람의 앞장에서 모자를 흔드시며 밝게 웃으시는

선생님을 띠여보자 자기도 모자를 벗어들었다.

울렁이는 가슴을 안고 열정적으로 모자를 흔들던 기탁은 갑자기 숨을 들이쉬며 굳어져버렸다.

어느새 마당가를 내려서신 선생님께서는 만류하는 사람들의 손을 가볍게 밀어던지시며 천천히 강물에 들어서시는 것이었다.

선생님께서는 무릎에서 추씩거리던 물결이 허리춤에 이르자 퍼그나 익숙된 동작으로 거센 물속에 몸을 맡기시었다. 두팔을 번갈아 앞으로 뿌리시며 시원스럽게 물결을 헤가르시었다. 연해연방 퍼져오르는 물바래속으로 보이는 선생님의 안색은 무척 온화하시었다. 아니, 다시 여겨보니 선생님의 존안에는 이 랑기탁을 만나게 되신 것이 비길데없이 기쁘신듯 밝은 빛이 은은히 흘러넘치었다.

기슭에서 들쭉는 잔물결을 밟으며 선생님을 마중하던 기탁은 문득 가슴 비좁게 밀려드는 걱정과 조바심에 휘감겨 돌처럼 굳어져버렸다.

참으로 지금과 같은 모습의 선생님을 뵈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그였다.

지금껏 그가 만나본 수많은 《위인》들의 리론은 저마끔 달랐으나 그들모두는 자기야말로 희세의 거물인듯 위세를 돈고구 눈이 시도록 위풍을 뽐내지 않았던가!

얼마후 선생님께서는 박력있는 걸음으로 기탁에게 다가오시었다.

집작보다 퍼그나 젊으신분이였다.

얼굴모습은 그윽하면서도 침착하고 준수해보이였다. 기탁은 비에 젖어 형클어진 머리를 황급히 다듬어넣기고나서 선생님앞에 나섰다.

《김선생! 이 사람이 일생 나라를 위한다고 뛰여다니었으나 이렇다할 일은 한가지도 이루지 못한 랑기탁입니다.

불민한 이 사람을 만나주시려 생사의 위험도 아랑곳없이 강을 건너오신 선생을 뵈옵고보니 반가운 마음 앞서 송구한 심정 가득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기탁의 메마른 손을 힘주어 잡아주시었다.

《랑선생, 젊은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민족을 위해 애도 많이 쓰고 고충도 많이 겪은 독립운동의 원로인 랑선생을 만나게 된 것이 정말 기쁩니다.》

기탁의 가슴속에서 불덩이같은 것이 이글거리었다.

여러차례의 옥고를 치른 뒤끝에 모든 욕망과 신심이 사그라져 여생을 조용히 보내고싶은 생각만이 머리속에 짝 차있던 자기를 잊지 않고 진심으로 위해주는 김선생님의 뜨거운 목소리에 격해져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선생님, 그만 진정하십시오.》

선생님께서 랑기탁의 손을 따듯이 잡아쥐며 위로해주시었다.

바다오거우뒀산 상공에서 눈을 찌르는 섬팡이 비구름을 뚫고 번쩍이자 동편하늘에서 파르릉 천

동이 울었다....

그날 밤 광제의원약방의 남포등은 오래도록 꺼질 줄 몰랐다.

얇은땀이탁자를 가운데 놓고 기탁과 마주앉으신 선생님께서는 향긋하고 짹스레한 초약내가 연하게 풍기는 손으로 토막토막 공기를 베시며 평이한 어조로 말씀을 이어나가시었다.

《...랑선생은 우리의 무산혁명에 열렬히 공감하면서도 그 방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리해를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명백합니다.

우리가 믿을것은 민중의 힘입니다. 이 민중의 힘에 의거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봅니다.》

랑기탁은 멍하니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저는 판디엔회의에서 우리 동지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민중을 사랑하고 민중을 존경하고 민중에게서 배우라... 그러나 구슬도 꺾야 보배로 되는 것처럼 민중도 통일단합되어야 자기 힘을 낼 수 있다.》

혈조가 피여오른 선생님의 얼굴은 감빛으로 붉어졌다.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었다.

《선생님! 우리 함께 이 나라의 민중을 믿고 왜놈들과 싸워나갑시다.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해볼것은 다 해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실지로는 민중을 단합시키고 그 민중의 힘에 의거하여 무장활동을 하는 그런 일은 아직 해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뜨겁게 말씀하시며 랑기탁의 손을 더 힘껏 그리고 더 뜨겁게 거머쥐시었다.

랑기탁은 선생님의 그 열렬한 목소리와 뜨거운 호소에 가슴이 설레이고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드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눈물이 어린 그의 두눈은 선생님의 말씀에 호응하면서 많은것을 이야기하고있었다.

그렇다. 지금 내 손을 잡아쥐고있는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요 진정한 인간이다. 이런분하고야 뜻을 같이하다 도중에 쓰러진들 무슨 한이 있으랴.

랑기탁의 눈에서는 무중 기쁨의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리었다.

《김선생... 정말 고맙소... 나같은 폐인을... 성 쌓고 남은 돌을... 김선생!》

가슴에 북받쳐오르는 격정에 비해서는 너무도 짹막한 대답이였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랑기탁의 그 눈물, 그 목소리를 듣고 모든것을 깊이 알아차리시었다. 하여 선생님께서도 또 하나의 귀중한 동지, 진정한 벗을 얻으셨다는 기쁨으로 하여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시울이 젖어들었다.

어깨를 들먹이며 가쁜숨을 내뿜던 기탁은 자기의 가방에서 사기술병을 꺼내들었다.

《옛 사람들도 <아침에 리치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고 했는데 광명파도 같은 진리에 접한 이 기쁜 날을 어찌 맨승맨승하게 보내겠습니까.

내 김선생께 한잔 부어올리리다.》  
다소 의욕이 실린 시선으로 기탁의 급작스러운 거동을 지켜보시던 선생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었다.

《선생은 옥중에서 위를 몹시 상했다는데 될수록 술을 삼가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나는 너털너털하게 껴진 위를 가지고 사는게 아니라 이 심장을 가지고 삽니다. 내게는 심장이 하자는대로 하는게 유익하니 제발 만류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하하. 상당히 유모아적인 말씀인데...

가만, 그런데 이 술은 보통술이 아닌것 같군요. 〈모태주〉라-》

선생님께서는 탁자위에 묵직하게 놓여있는 흰 사기술병에 흘려쓴 중국글자를 유심히 살펴보시었다.

《이 〈모태주〉는 중국에서 이름난 술인데 아주 희귀한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술은 후날 적당한 기회에 쓰기로 하고 오늘은 내가 치료용으로 제조한 도토리술로 우리의 상봉을 기념하는것이 어떻습니까?》

《김선생께서 손수 만드신 술이라면 내게는 그 이상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늦장마에 불어난 바다오거우하의 물소리가 소란스레 밤의 장막을 두드려대는 여름밤은 뜨거운 열기속에서 빠르게도 흘러갔다...

지난해 가을 어느날 밀림속의 나지막한 둔덕위에 외버섯처럼 솟아있는 귀틀집안에는 술한 독립운동자들이 모여있었다.

그들앞에 나선 기탁은 석침하게 갈린 청을 힘겹게 뚫아올리고있었다.

《...왜놈들은 지금 저들의 골치거리로 되고있는 우리 무장단체들이 각기 분열되어 격파되기를 그야말로 애타게 바라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대오로 굳게 결속할 대신 계속 패패로 나뉘어 분파싸움에 열을 올린다면...》

회의가 시작되자부터 지그시 눈을 감고있던 태극단참모 하태수가 갑자기 뻘뻘한 턱을 들어올리며 새된 청을 터치였다.

《가만, 내가 알건대 량선생은 교육활동과 문필활동 그리고 정치운동에도 많이 참여한 명망높은 인사인데 요즘은 무엇때문에 무장대통합문제에 그리도 성수가 나서 끼어드는가요?》

우선 그것부터 명백히 알고싶구만요.》

기탁은 하태수의 시비질에 대뜸 뒤머리가 후끈하게 달아올랐으나 거칠어지려는 마음을 애써 달래며 유순한 목소리를 굴러냈다.

《그 이유는 총칼만이 독립을 성취할수 있다고 생각했기때문이며 단결만이 승리를 안아올수 있다고 확신하기때문이에요.》

부연한다면 나는 당신들과 생사를 같이할 의지를 가진 전우이고 벗이요.》

《이보오, 량선생.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

는식의 서툰 연극은 그만두시오.》

모두들 단합이 그렇게도 소원이라면 우리 태극단에 허리를 굽히고 들어오면 되겠는데 무엇때문에 방아쇠도 당길줄 모르는 량선생까지 나서서 이 고생인가 말이요?》

매끄럽고 껌뻑한 하태수와는 달리 사람이 수더분하면서도 뼈대가 실한 군사부장 정달영이 우등통한 얼굴을 스르시 들어올리더니 하참모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원래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지라 정달영은 첫마디부터 곱지 않게 내뱉었다.

《야, 하태수! 이 가물치같은 놈아, 우리가 그래 동포들이 피땀으로 벌어서 보내준 군자금으로 밤낮 술추렴이나 하는 너희네 썩어문드러진 태극단에 들어가 하인노릇을 하란 말이야?!》

정달영의 농군식질책에 정말 감탕을 누비다가 온 가물치처럼 얼굴이 가무스한 하태수가 용수철처럼 튀겨일어나더니 구식권총을 꺼내들었다.

《이 얼뜨기같은 농군놈아, 총을 구하자니 더러 술좌석도 만드는건데 그것까지 시비한단 말이냐? 너같은 놈한테는 입으로가 아니라 총으로 말을 해야겠다.》

예상밖의 사태에 깜짝 놀란 기탁은 두팔을 벌려 들고 하태수앞에 나섰다.

《총을 내리우시오. 동포들이 쥐여준 총으로 벋을 쏘겠다니 세상에 이런 망나니짓이 어디 있소?》

《뭐, 망나니? 네가 동서로 나다니며 말재주 깨나 배운 모양인데 너같은 말공부쟁이한테는 총알이 안 박히는줄 아느냐?!》

하태수의 총구가 기탁에게 돌아가는 순간 여러사람이 하참모의 가느다란 팔을 내리덮치였다.

《땅!》 총성이 터지였다....

기탁은 맥없이 손발을 늘어뜨리고 자리에 누운채 천근추라도 들어올리듯 힘겹게 눈시울을 밀어 올리였다.

아침인지 저녁인지 싱그러운 송진내와 나무향기가 떠도는 방안은 어스레한데 사위는 고요했다.

누군가의 손이 기탁의 손목을 쥐고 맥을 보고있었다. 이어 맥을 보던 손이 기탁의 이마우에 놓이였다.

부드러운 손, 따뜻한 손 그리고 연한 초약내가 풍기는 손.

기탁의 머리맡에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앉아계시였다.

국내의 조직들을 지도하기 위해 조국으로 나가셨던 김선생께서 언제 돌아오셨을가, 그리고 여기로는 또 언제 오셨을가?

침이라도 맞는듯 따끔따끔해나는 위의 동통때문인지, 심장을 옥죄이는 죄책감탓인지 사색의 수레는 썩썩 앞으로 내닫지 못했다.

근심어린 시선으로 기탁의 뺨발에 덮인 얼굴을 살펴보시던 선생님께서는 문득 환하게 낯빛을 펴시였다.

《정신이 들었군요. 뜻밖의 총질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행히도 총알이 빗나갔으니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날뻔 했습니다.》

살뜰한 그 말쑥에 뜨거운 눈물이 건잡을수없이 흘러내리었다. 기탁은 선생님의 손을 더듬어잡으며 꺾꺾 숨을 들이쉬었다.

《김선생!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례수도... 원망스럽지만 선생의 뜻을 옳게 따르지 못한 이 못난 인간이... 더 뭉습니다.》

《량선생,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여러 생각 말고 병치료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제서야 기탁은 선생님의 얼굴에 짙은 피로가 가득히 덮여있는것을 확연히 알아볼수 있었다.

(선생님께서서는 분명 국내에서 바다오거우로 돌아오시자 이 사건을 보고받으시고 그길로 여기까지 달려오시었다. 오시여서는 어제 밤을 꼬박 이 사람결에서 밤을 지새시며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어 치료를 해주시었다.

아, 선생의 극진한 사랑을 새길수록 더욱 부끄러워나고 죄스러워지는 이 마음을 어쩌면 좋을까!)...

...도래굽이를 예돌아나온 압록강의 푸른 물결은 곱슬머리를 풀어헤친 버드나무들이 줄줄이 늘어선 이쪽 바다오거우의 기슭을 감돌아 유유히 하구로 흘러내리고있었다.

기탁이 거울조각처럼 번쩍거리는 압록강물결을 얼없이 바라보며 홀로 서름서름한 생각에 잠겨있는데 선생님께서 강변의 조약돌을 밟으시며 다가오시었다.

김이 문문 나는 어죽남비를 든 리판린이 소리없이 선생님의 뒤를 따르고있었다.

선생님께서서는 파스한 자갈밭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전에없이 똑똑해진 기탁에게 정겨운 시선을 보내시었다.

《또 어제 있던 일을 두고 마음을 쓰는것 같군요. 내 이미 이야기했지만 그 일을 두고 너무 마음쓰지 마십시오.

지금껏 돌덩이처럼 굳어진 그들의 견해며 생활습성이 하루아침에 돌변할수는 없을것입니다.

량선생도 결과만을 생각하며 너무 조급하게 일을 몰아간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 아직 통합의지가 성숙되지 못했는데 통합을 재촉하니 무지한 사람들이 술김에 본의아닌 총질까지 했습니다. 여하튼 수레가 소를 앞서는 격이 되고 보니 그런 화단이 생긴것 같습니다.》

《정말 머리를 못 들겠습니다. 선생의 뜻을 받아들여갈 열망은 넘쳐나는데 이 사람의 정신상태라는게 하도 변변치 못하니 첫걸음부터 재구를 쳤습니다.》

《량선생, 자신에 대한 지나친 비하도 미덕은 아닙니다. 우리 다같이 실패앞에 주저말고 시련앞에 락심말며 굳세게 전진해나갑시다.

자, 그 일은 그쯤하고 판린이가 정성껏 만든 어

죽을 들어봅시다!》

선생님께서서는 하얀 고기살과 새파란 핏고추가 듬성듬성 뒤섞여있는 구수한 어죽그릇과 숟가락을 기탁의 손에 들려주시었다.

기탁은 구수하면서도 얼벌벌한 어죽을 밀창이나게 비워버렸으나 마음은 여전히 개운치 않았다.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여 누구나 다 그것을 실천에 응용할수는 없는 법이다.

나처럼 성급한 사람이 소부르쪼아적근성을 깨닫지 못하지 못한 경우 더욱 그러하다....) 선생님께서서는 불룩하게 부른 가방을 기탁의 손에 들려주시었다.

《마음같아서는 내가 여기서 량선생이 완쾌될 때까지 병을 보아드렸으면 좋겠는데 선생이 집을 떠난지 너무 오래니 지금쯤 왜놈들이 신경을 쓸것입니다.

서울에 나가면 병치료에 전념하십시오.

한 두어달 안정하면 별일 없겠지만 문제는 병을 소홀히 대하는 량선생의 태도입니다.

내 틈틈이 채취한 약초로 제조한 초약을 가방에 넣었는데 꾸준히 복용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것입니다.》

기탁은 아까부터 심중에서 떠도는 말마디들을 골라 올리려 했으나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의 말쑥에 자꾸만 목이 잠기여 종시 말문을 열지 못하였다.

선생님께서서는 기탁의 마음을 심분 헤아려보신듯 의미깊은 미소를 띄우시며 그의 손을 힘주어 잡으시었다.

《건강을 회복한 다음 투쟁의 한길에서 다시 만납시다.》...

...서울의 제집으로 돌아온 기탁은 예전의 성급한 사람같지 않게 늘 깊은 사색에 잠기여있었다.

위도 계속 아팠지만 그보다는 마음이 더욱 피로왔다.

매달 보름날이면 포평에서 어김없이 소포가 오곤 하였다. 흥종우라는 알지도 못할 사람의 이름으로 보내온 소포속에는 향긋한 초약봉지가 가득 들어있었다.

소포를 받은 날이면 기탁은 초약봉지를 어루쓸며 소리도 없이 흐느껴울곤 하였다.

기뻐서였다. 고마워서였다. 그리워서였다.

새로운 생의 의욕과 활력이 끓어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맹정히 따져볼 때 자기는 역시 두뇌는 있으나 행동력과 실천력은 부족한 구시대운동자였다.

자기가말로 의리도 신의도 없고 량심과 도덕도 모르는 속물이기도 했다.

날과 달이 흘렀다.

차츰 위의 고통도 드문해졌으나 마음은 한층 더 피로왔다.

이러는새 봄이 왔다.

새봄에 들어 기탁의 첫 방문자는 오늘의 게이스께경부였던것이다.

《량선생, 바로 이 집에 대단한 미인이 있소. 들어가보실가요?》

게이스끼의 친절성이 과장된 말이 거듭 울려서 야 기탁은 자기가 아까부터 어떤 거무칙칙한 콩크리트건물앞에서 서성거리고있음을 의식하였다.

고개를 들어보니 출입문결에 《종로경찰서》라는 한자간판이 조금 찌글사하게 걸려있었다. (그러니 또 체포?)

가슴이 섬찟했다. 허나 그것은 한순간이었다. 경찰서라든가 감옥 같은데를 너무도 자주 드나들었던 기탁은 인차 자신을 수습하였다.

출입문을 활짝 열어젖힌 기탁은 동굴속처럼 컴컴한 경찰서안으로 제먼저 성큼 들어갔다.

기탁과 게이스끼가 기다란 가죽소파에 들어앉은 지 얼마 안되어 얼굴이 시뻘건 왜경찰이 어떤 녀자를 떠밀고 들어섰다.

게이스끼는 서둘러 담배불을 비벼끄더니 특의연한 표정으로 문가에 선 녀자를 가리켜보이였다.

《량선생, 보시오. 우리 아이들이 험하게 다루다보니 모색이 좀 변하긴 했지만 일류미인인 저녀자를 능히 알아볼수 있을것이요.》

기탁은 게이스끼라는 흉물이 이제야 구렁이속을 드러내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녀인에게로 시선을 돌리였다.

녀인의 얼굴은 터지고 붓고 피로 얼룩져있었으나 분명 낮이 익었다.

까닭없이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녀인의 처절한 모습을 세세히 뜯어보던 그는 리관린이라는것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박히는듯 한 예리한 아픔을 느끼였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김선생을 보좌해드려야 할 관린이가 어떻게 되어 서울에까지 나왔는가? 어딜 가나 정향꽃처럼 이채로운 향기를 풍기여 못 사람을 경탄케 하던 관린이가 어찌다 저 지경이 되였는가?!)

기탁과 관린의 얼굴을 빠르게 살펴보던 게이스끼는 다시금 시누런 금이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며 지껄였다.

《보시다싶이 우리는 독립군의 녀걸이요 김형직의 보좌관인 리관린을 체포했소. 좌석은 신통치 않지만 서로 하고싶은 말이 많겠는데 이야기를 나누시지요?》

게이스끼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관린은 참새때가 재잘거리는 창너머로 오연히 고개를 돌리며 파갑게 쏘아붙이였다.

《관린이가 대체 어떤 녀자고 저 사람은 또 누구가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라는거예요?》

영문도 모를 이따위 괴상한 놀음을 썩 견어치우고 어서 날 내놔요!》

역시 관린은 부드럽고 따뜻한 녀성이기 전에 도

고하고 날카로운 처녀였다.

기탁은 즉시에 게이스끼가 아직 관린의 정체를 정확히 모른다는것, 자기를 여기로 데려온것은 저들이 체포한 녀자가 리관린이 옳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것을 직감하였다.

《게이스끼상, 당신이 짐작하는바와 같이 나는 리관린을 잘 아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저 생면부지의 처녀가 리관린이 되였소?》

게이스끼의 해말쑥한 상판에 한순간 실망의 그림자가 언뜻 지나갔으나 그의 어조는 여전히 침착하고 자신만만했다.

《뭐 숨길것도 없지요. 얼마전에 우린 순수 경찰관의 직업적인 욕감에 따라 우연히 저 녀자를 체포했소.

나는 저 녀자를 리관린이라고 명백히 단정했소. 근거의 첫째!》

게이스끼는 회고 매출한 손가락을 하나하나 꼽아내려갔다.

《저 녀자의 전형적인 평안도말씨, 둘째, 언제인가 <동아일보>에 소개된바와 같이 보기 드문 미모, 셋째, 군인의 체취가 풍기는 절도있는 걸음새와 몸가짐! 넷째, 량선생의 집이 있는 삼천동쪽으로 택한 행로! 자, 이쯤 되면 어떤 중대한 특명을 받고 비밀리에 량선생을 찾아오는 리관린이 옳지 않을가요? 부정할수 있다면 해보시지요.》

기탁은 비로소 게이스끼라는자가 보통놈이 아님을 푹푹히 깨달을수 있었다.

허나 게이스끼가 던진 그물에도 터진 구석이 있었다.

《당신의 추리는 시작부터 엄청나게 빗나갔소. 첫째!》

기탁은 철심을 해박은 개화장끝으로 콩크리트바닥을 딱 때리였다.

《나는 이미 모든것을 체념한 사람이요. 만사를 포기한 이 사람에게 누가 무슨 필요로 찾아온단 말이요? 둘째.》

기탁의 개화장이 다시 바닥을 야무지게 때리였다.

《당신의 추리라는게 너무 유치하오.

장담하는데 경찰이나 스파이노릇 같은것은 꿈에도 해본적 없는 나로서도 오늘중에 종로 네거리에 나왔어 당신이 방금 찍어내려간 항목에 꼭 들어맞는 녀자를 적어도 스무명정도는 능히 골라잡을수 있소. 내가 만약 그 모든 녀자들을 당신에게 넘겨준다면 당신은 당장에 스무명의 리관린을 잡는셈으로 되는데...

어떻소? 나도 이쯤되면 당신같은 경부노릇을 능히 할수 있을것 같지 않소?!》

극심한 야유와 조롱이 뒤섞인 면박이였다. 게이스끼는 분명 유식자의 가면과 신사의 탈을 벗어내치고 미친개처럼 짖어댈것이였다.

허나 기탁의 생각과는 달리 게이스끼는 침착한 거동으로 담배를 피워물더니 진한 담배연기로 자기의 얼굴을 뽀얗게 가리워버리였다.

게이스께 정부는 기락이 짐작하는것보다 훨씬 더 수가 깊은 로회한 인물이었다.

어떻게 된셈인지 쉬이 풀리지 않는 회백색연기 덩어리속에서 게이스께의 다소 김이 빠진 목소리가 느리게 흘러나왔다.

《이거 정말... 걸음을 시켜 미안하오.

저 녀자는 오늘래일중에 석방하도록 하겠소. 김형직과 더 다른 관계가 없다면 말이요.》

벌떡 자리에서 일어선 기락은 오직 자기만이 의미를 알수 있는 말마디를 내뱉고 야단스럽게 개화장을 휘두르며 출입문쪽으로 걸음을 내짚었다. 기락의 일거일동을 매섭게 노려보던 게이스께는 별레라도 씹은듯 상을 찡그리었다.

기락은 그렇게도 기품있게 밖으로 나왔건만 몇 걸음 채 가지 못하고 길벽에 있는 우편통결에 쓰르시 멈춰섰다.

뇌리에서는 여러 갈래의 사색이 일시에 뿜어오르고 심장에서는 불덩어리가 이글거리어었다.

(판린은 김선생의 특명을 안고 나를 찾아오던 길에 체포된것이 분명하다.

헌데 선생께서는 나에게 어떤 명을 주시였을가?! 이제 판린이가 석방되면 구체적으로 알게 되겠지만 김선생께서 판린을 보내셨다는 그자체가 벌써 또 하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의 표시가 아니겠는가.

아! 김선생은 수천리밖에서도 변함없이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베풀어주시는데 그이의 열렬한 동지로 한생을 살겠노라 맹세다진 이 사람은 지금 어찌고있는가?!...)

뒤일은 어찌되든 지금 당장 이 걸음으로 바다오 겨우까지 드달려가고싶었다.

김선생앞에 무릎을 꿇고앉아 제스스로 떨쳐일어서지 못한 자기를 두고 가슴을 치며 용서를 빌고싶었다. 하지만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랑기락이와 리판린앞에는 여우의 뇌수에 승냥이 염통을 가진 게이스께라는 괴물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날카로운 이발을 부득부득 갈며 더 큰 함정을 파놓고 기회를 노리고있었다. 리판린을 석방한다는것은 그 함정으로 흘러가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순간에는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있었다.

×

...리판린이 서울로 떠나기 전 어느날 이른새벽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사립문쪽으로 나가시었다.

아직은 싸늘한 기운이 채 가셔지지 않은 새벽공기는 폐부가 찡하도록 맑고 시원했다.

그렇수만 있다면 유별스레 싱그러운 이 고장의 공기를 큼직한 통에 담아가지고 다니시며 호흡기계통을 상한 환자들에게 효과있게 리용하고싶으셨다.

파랗게 봄물이 든 숲속에 몸을 숨기고앉아 밤사

이 자기의 목청에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았는가 시험이라도 해보듯 갖가지 청으로 우짖는 새새들의 우짖음소리도 무심히 들리지 않으시었다.

자연이 굴러내는 신비한 음향 역시 사람들의 기분과 정신을 증진시키는데 특이한 작용을 할것 같으시었다. 선생님의 기분은 동심에라도 잠길만큼 맑고도 쾌하시었다.

...어제 저녁 동평덕에 있는 국민단본부에서 열린 여러 무장단체 책임자들과 독립운동자들의 모임에서는 태극단과 대진단, 광복단을 비롯한 여러 무장대가 국민단을 모체로 하여 통합하기로 합의하였다. 통합된 무장대의 명칭은 광정단이였다. 단결된 힘으로 편속 국내에 들어가 왜적격멸의 총성을 울림으로써 동포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줄데 대해서도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회의가 끝나자 하태수와 정달영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선생님앞에 다가와 겨금내기로 울먹거리어었다.

《선생님! 버들잎처럼 속통이 좁은 저희들을 깨우쳐주시느라 얼마나 속을 태우셨습니까?...》

《오늘 이 마당에서 저희들은 마땅히 별을 받아야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두손을 활짝 펼치시며 명쾌하게 말씀하시었다.

《용서고 뭐고 없습니다. 우리모두가 일구워심 바라는 조선독립은 반드시 단결된 무산민중, 단합된 총대에 의해 이룩될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의지로 통합된 당신들을 다시한번 열렬히 축하합니다.》

땀과 눈물과 걱정으로 매닥질이 된 붉은 얼굴들이 해바라기들처럼 선생님을 우러르며 설레었다....

오불교불하게 흘러간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던 선생님께서는 남북차림을 한 리판린이 총총히 마주오는 모습을 보시자 쓰르시 걸음을 멈추시었다.

판린은 분명 아침 일찍 일어나 밤사이 마을에서 사소한 이상이라도 생긴것이 없는가를 제 눈으로 확인해보고 오는 길이었다.

선생님앞에 다가온 판린은 깎듯이 인사를 올리고나서 여느때없이 심중한 어조로 말씀드리었다.

《선생님! 제가 서울에 나가는 문제는 다시한번 생각해주시시오.》

판린은 두손을 모두어잡고 단정하게 선채 절절한 어조로 말씀올렸다.

《오동진사령은 저를 만날 때마다 선생님의 신변안전을 철저히 지켜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오사령 개인의 부탁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당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바다오겨우에만도 눈길 곱지 않은자들이 득실거립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한시라도 선생님결을 떠날수 있겠습니까.》

홍분에 사로잡혀 차츰 청을 높이던 판린은 종시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선생님께서는 풀밭속에 가로 누워있는 흰 바위 위에 앉으셨다. 한동안 숲속을 자유로이 날아며 우짖는 산새들을 바라보시다가 약간 갈린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판린이, 어제는 로상인데다 밤이 깊기도 해서 오래 이야기할수 없었는데...》

우리가 왜 량선생을 통합운동에 인입시키려고 하는가! 물론 독립운동자들속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있는 량선생이 통합운동에 나서면 이 운동이 직면하고있는 여러가지 난관을 타개하는데 유리한 점이 많은것은 사실이요. 남만의 독립운동자들속에 아직도 무슨 단이요, 회요, 파요 하면서 제가닥으로 뿔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량선생이 오면 그들에게 큰 영향을 줄수 있소. 하다면 단지 그 리유 하나때문에 량선생을 데려오려 하는가?...》

판린이 한쪽무릎을 꿇히며 조심히 바위위에 내려앉자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었다.

《...일부 사람들은 량선생에 대해 썩 시원치 않은 견해를 가지고있지만 내가 알건대 그는 쉽게 독립운동을 포기할 사람도 아니며 하래수와 충돌했다고 하여 웅졸하게 뒤를 사릴 사람도 아니요. 그는 지금 우리의 무산혁명에 공감하면서도 구시대운동방식에 물젖은 자기로서는 그것을 실현할 능력이 없는듯 하여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거의 자기 학대에 가까운 번민을 하고있소.》

고지식하고 량심적인 량선생을 지금의 처지에 그냥 내버려두어야 하는가? 아니, 그렇게 하는것은 그 어떤 리해도 아니고 아량도 아니며 사랑일수도 없소.》

어디선가 개울물의 흐름을 리용하여 만든 방아가 찌쿵찌쿵 공이를 내리박는 단조로운 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휘저으며 가락맞게 들려왔다.

《나는 기어이 량선생을 통합운동의 선두에 내세워 민족이 기억하고있는 그가 자기의 귀중한 후반생을 계속 빛내일수 있게 하는것이 생사를 같이 하자고 맹세한 동지에 대한 참사랑이며 의리라고 생각하오. 내가 직접 서울까지 갔다왔으면 좋겠는데 걸음걸음 일이 쌓여있으니 그렇게 할수가 없어서 판린을 보내자는거요. 서울에서 판린을 만나면 량선생이 몹시 반가워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우리의 기대와 믿음을 더 크게 실감하게 될것이요.》

멀리 조국땅 하늘가에서 퍼져오르는 감빛의 아침노을을 바라보는 판린의 얼굴에서는 맑은 눈물이 소리없이 굴러내리고있었다. 활달하면서도 고고하고 부드러운면서도 날카로운 판린이 이제 고개를 돌리면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리라는것을 짐작하신 선생님께서는 아무 말씀없이 자리에서 일어서시어 개울가로 향하시었다.

야들야들한 연록색햇이파리로 뒤덮인 버드나무숲속으로 흐르는 개울물은 티점불 하나 없이 깨끗하고 투명했다. 물속에서는 잔등이 거무스레

한 산천어들이 성깔사나운 성미 그대로 물랑을 튕기며 빠르게 달음질을 치고있었다.

(량선생과 헤어지던 날 판린은 산천어로 어죽을 끓였댔지. 사실 어죽보다 산천어구이가 약효도 크고 맛도 돌군다던데... 그때는 잊었땄거던.)

불현듯 푸른 수면위에 량기탁의 리지적이면서도 칼칼한 성격이 비껴있는 둥그런 얼굴이 그림처럼 생동하게 떠올랐다.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고락을 함께 한 지기도 벗도 아니었다. 그와 연고가 있다면 지난해 여름과 가을 몇번 만나보신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수년세월 투쟁의 한길에서 뜻을 나누고 정을 나누신 전우처럼, 동지처럼 사랑이 쏠리고 관심이 가시였다.

반백을 날리면서도 노상 독립열기로 온몸이 훌훌 달아있는 열정의 인간, 때로 성급한 성격탓에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자기의 실책을 진정으로 가슴아파하고 진정으로 반성도 하는 정직하고 고지식한 인간!

이런 사람의 첫 맹세를 동지의 변함없는 맹세로 믿지 못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얼결에 개울물속에 손을 잠그시려던 선생님께서는 천천히 자리를 옮기시었다. 어쩐지 산천어들을 놀래울것만 같으시었다.

《판린이, 사실 이 길은 목숨도 내대야 하는 위험하기 그지없는 길이요. 나도 판린이를 보내고싶지 않소.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다가 판린이만 한 책임자가 없기에... 결심을 내린거요.》

힘겹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마음이 헤아려졌는지 리판린이 인차 따라서며 말씀드렸다.

《국경을 넘구 국내에 드나드는거야 제가 뭐 한두번 걸은 길입니까. 알겠습니다. 제 당장이라도 떠나겠습니다. 가서 량선생에게 선생님의 그 숭고한 뜻을 꼭...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부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바다오거우공기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리판린의 그 안타까움이 실린 말에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갑자기 가슴이 찢어헤짐을 느끼시었다.

그처럼 위험한 길에 나설 결심을 혼연히 내리면서도 오히려 자신의 신변을 걱정해주는 그의 진정이 눈물겹게 느껴오시었다.

《판린이, 고맙소. 내 꼭 주의하지.》

《그럼 전...》

판린은 당장이라도 떠날듯 고개를 숙여보였다. 그러는 그의 얼굴은 아침노을에 물들어 더없이 예뻐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미더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며 고개를 가로저으시었다.

《아직은 좀 기다려야겠소.》

내 좀 알아볼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며칠후에 떠나기로 합시다.》

리판린은 의아한 눈길로 그이를 우려했다. 그치



럼 절박한 사정을 말씀하시면서도 며칠 기다리라니 이해가 잘 가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

포평국수집은 오늘도 만원이었다. 원래 국수집이 류벌로동자들의 합숙을 겸하고있는데다 포평국수집의 농마국수가 값죽고 질기다는 귀맛좋은 소문이 린근에 파다하게 퍼지다보니 노상 사람들로 북적거리었다.

여기에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의심을 받을 염려가 없었다. 하기에 선생님께서는 이곳을 비밀모임장소로 정하시고 자주 이곳에 나오시었다.

오늘도 국수집 옷방에서 국내공작원들과 마주 앉으신 선생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활동방향을 주신 후 밖으로 나오시었다.

마당구석에서 담배연기를 슬슬 날리고있는 홍종우를 띄여보신 선생님께서는 두루마기자락을 가볍게 날리며 그에게 다가가시었다.

홍종우는 선생님께 알릴듯말듯 하게 눈인사를 하고나서 공작보고를 시작하는데 예리하게 주위를 살피는 농동자에 비해 그의 말마디는 썩 느리었다.

《지금 게이스께라는자가 선생님을 해칠 작정으로 바다오거우에 밀정들을 박아놓았다고 합니다.

게이스께놈은 음흉하면서도 포악스럽고 출세욕도 이만저만 높지 않아 동료들한테서까지 독설적인 비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심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며 사람들로 붐비는 국수집마당을 천천히 빠져나오시었다.

리관린이 아무탈없이 국경을 넘어 서울까지 갔다 오자면 최근의 국경경비상태를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야 하시었다. 그래서 홍종우를 부르신것이였다.

홍종우는 국경경비상태보다도 선생님께서 계시는 바다오거우실태부터 보고를 하며 불안을 금치 못해하였다.

철썩철썩... 기슭을 치는 물결소리가 들려오고 물비린내를 실은 강바람이 불어오는것으로 보아 벌써 강변에 이른것이 분명했다.

홍종우는 여전히 선생님의 곁에 바투 붙어서 따라오고있었다. 홍종우는 바다오거우의 실태를 이야기하고있었지만 선생님의 사색은 바다오거우에서 국경으로, 국경에서 다시 서울로 계속 가지를 치고 아지를 뻗으며 이어지었다.

(게이스께놈이 그렇게 음흉한 놈이라면 리관린에 대해서도 모르지 않을것이다... 놈들은 지금 우리를 해칠 결정적인 기회만을 노리고있다. 날로 강화되는 국경에 대한 단속통제... 피를 물고 날뛰는 일제군정들...)

선생님께서는 개버들가지들이 두루마기자락을 당기고 발목을 휘감아서야 걸음을 멈추시었다. 위험하다는것을 알면서도 리관린을 보내야 하는 현실이 기가 막히시었다. 하지만 달리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홍종우가 근심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늘 그러하듯 두손을 마주 비비며 다가왔다.

선생님께서서는 그에게 국경경비상태를 물으시었다. 그로부터 국경경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들으신 선생님께서는 솔뚜껑같은 그의 손을 꼭 잡아주시었다.

《한가지 중요한 일이 있소. 이제 며칠후에 판린이가 여기로 올거요. 중임을 안고 서울까지 갔다와야 하는데 시작부터 사소한 실수가 없도록 잘 조처해주오. 홍동지가 적기관에서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하면서 우리 일을 도와주자니 어려운게 한두가지가 아닐게요.》

《저야 뭘 힘들게 있습니까. 다만 선생님의 뒤를 밟는 놈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니 선생님의 신변이 걱정될뿐입니다... 선생님께서 자꾸 이렇게 위험한 길을 오가시고 점심식사까지 건느시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께서서는 미더운 눈길로 홍종우를 바라보시었다.

《우린 왜놈들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무산민중이 잘사는 새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요. 무슨 곤난인들 없겠소. 내 걱정은 마오. 다만 관린의 신변이 걱정될 따름이요... 부탁하오!》

홍종우는 눈곱이 시큰해움을 느끼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날 밤 선생님께서는 이 식당의 옷층에서 서울의 량기탁에게 보내는 장문의 편지를 쓰시었다.

### 3

길은 멀고 험했다. 높은 령을 넘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 가시덤불길을 헤쳐가는 홍종우는 얼굴이 가지에 긁히우고 온몸이 땀으로 화락하니 젖어들었지만 두주먹을 부르쥐고 걷고 또 걸었다. 그는 지금 김형직선생님께서 가계신다는 목재소를 찾아가는 길이었다.

발에 불이 일도록 걸음발을 다그치던 홍종우는 갑자기 헉— 하는 소리를 내며 비칠거렸다. 돌뿌리에 걸체이는 순간 발끝이 부서져나가는듯 한 아픔을 느꼈으나 언제 신발을 벗어볼 겨를도 없었다. 그만큼 체정신이 없었다. 방금 조직성원으로 부터 선생님의 특명을 받고 서울에 나간 리관린이가 놈들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을 전달받은것이였다.

(관린이가 체포되다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김형직선생님께서 그토록 걱정하시며 기다리시는데 끝내...)

홍종우는 이 모든것이 자기의 불찰로 생겨난것만 같았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을 타매해도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천리가 넘는 서울에서 벌어진 일이라 그는 헌병보조원을 하면서도 방책을 세우

지 못하는것이 더더욱 안타까웠다.

(이제 선생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면 얼마나 가슴아파하시겠는가?)

《아니, 홍동지가 아닙니까? 어떻게...》

누구인가 불쑥 풀땀불속에서 나오며 앞을 막아서는 바람에 홍종우는 흠칫 놀라며 멈춰섰다.

그 사람은 뜻밖에도 목재소에서 일하는 인철이라는 청년이었다. 선생님의 집에서 몇번 본적이 있는 조직성원이었다.

《김선생님을 찾아가는 길ियो!》

《예?》 인철은 두눈을 크게 떴다.

《선생님을?...》

《그렇소! 급한 일이 생겼소.》 홍종우는 창황중에도 마침이라 생각하며 반색을 했다.

멍하니 홍종우를 쳐다보던 인철은 눈길을 외면한채 조심히 입을 열었다.

《조금만 기다리면 안되겠습니까?》

《왜 그러오? 그럴것 같으면 이렇게 숨이 턱에 닿도록 달려왔겠소?》

홍종우의 반박에 인철은 급기야 고개를 외로 꺾더니 물먹은 소리를 했다.

《사실 선생님은 지금...》

우리 노동자들의 회합을 지도해주시던 선생님께서는 의식을 잃은채 실려들어온 한 노동자를 살리자구 며칠밤을 꼬박 밝히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방금... 저렇게 쪽잠에 드셨습니다!》

그가 가리키는쪽으로 눈길을 돌리던 홍종우는 샘터결에 있는 바위에 기대시여 쪽박을 손에 드신채로 굳잠에 드신 선생님을 띄여보는 순간 코언저리가 저러나고 눈굽이 뜨거워났다.

오죽 피곤이 몰리셨으면 이렇게 굳잠에 드셨으랴! 한동안 굳어진채로 그이를 우러르며 서있던 그는 천천히 발길을 돌렸다. 과중한 부담으로 한지에서 쪽잠에 드신 선생님께 이제 또 좋지 못한 소식을 알려드리자고 하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무리 불길한 소식이라고 해도 천리도 더 먼곳에서 벌어진 일을 이제 어떻게 손을 쓸수 있단 말인가! 착잡한 생각에 빠져 이러한 생각을 하며 걸음을 옮기는데 문득 등뒤에서 귀익은 음성이 들려왔다.

《아니, 그게 홍동지가 아니요?》

그렇게도 낮에 배인 김형직선생님의 다정한 목소리에 홍종우는 획 돌아섰다.

선생님께서는 일어서서 두팔을 우적우적 놀리며 웃고계시었다.

《깜빡 잠들었됐구만, 허허허. 그런데 홍동지가 어떻게 된 일ियो?》

《아니, 저... 그저... 일이 좀 생겨서... 아니, 어서 좀 더 쉬십시오!》

홍종우는 가까스로 자신을 다잡으며 짐짓 태연하려 애썼다.

《허허... 홍동지가 멀리서 이렇게 왔는데 쉬다니... 그것도 말이라고 하오? 급한 일이겠는데

어서 이야기하오.》

홍종우는 차마 그이를 마주할수가 없었다.

선생님의 예리하고도 웅심깊은 그 뜨거운 눈빛 앞에서 그는 처음결심을 끝까지 지켜낼수가 없었다. 홍종우는 하느수없이 서울에서 보내온 소식을 떠염떠염 말씀드렸다.

김형직선생님의 표정이 일순 굳어지는듯싶더니 이어 증오와 분노의 불길이 황황 타오르기 시작했다.

《게이스께 그놈이 끝내...》

선생님께서는 두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쥐시었다.

《그래 리관린이가 량선생을 만나지 못했답니까?》

《그렇습니다. 삼천동쪽으로 가다가 체포되었답니다. 놈들이 량기탁선생을 데려다 맞대면까지 시켰다는데 아직 확실한 근거는 잡지 못했다는것 같습니다.》

《음... 역시 그놈이 만만치 않은 놈인것 같소... 하지만 확실한 단서는 없을게요.》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생각이 깊어지시었다. 리관린의 체포... 량기탁과의 맞대면... 지금은 확실한 단서를 쥐지 못했다 하더라도 놈들은 다 넘겨짚고 보다 더 음흉한 음모를 꾸밀것이다. 단서가 없어 석방시킨다 해도 감시를 하며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것이다.

선생님께서는 움쭉 자리에서 일어서시었다.

《갑시다!》

《예?!》

홍종우와 인철은 와뜰 놀라며 눈을 크게 떴다. 선생님께서 먼저 인철이쪽으로 시선을 주시었다.

《인철동문 환자의 간호를 맡아해줘야겠소.

위험한 고비는 넘겼으니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이 약을 내시간에 한번씩 복용시키요. 그러면 하루이틀내로 일어설게요!

그리고 홍동지는 나와 함께 오사령한테로 갑시다!》

《선생님! 사흘밤을 꼬박 밝히셨는데 이렇게 또...》

인철은 이렇게 부르짖으며 선생님의 앞을 막아섰다. 홍종우의 어깨에 손을 얹고계시던 선생님께서 고개를 가로저으시었다.

《난 일없소. 동지들이 사정에 처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쉴수 있겠소!

자, 그럼 다시 만납시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힘있게 걸음을 옮기시었다. 좌우에는 일매지게 미칠하니 자란 이갈나무며 잣나무들이 뻑뻑이 들어찬 천고의 수림이 펼쳐져 있었다. 가도가도 끝이 없는 밀림속의 길... 험준한 가시덤불을 헤치며 홍종우는 김형직선생님을 부축하고 걷고 또 걸었다.

《선생님! 천리도 넘는 곳에서 벌어진 일을... 아무리 그렇다쳐도 이제 무슨 수로...》

홍종우는 생각할수록 난감한 일로만 여겨지는

문제를 공연히 선생님께 알려드려 걱정을 끼쳐드린 것만 같았다.

《천리가 뭐겠소! 만리밖에서 벌어진 일이라 해도… 우리 동지가 위험에 처했는데… 어떤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구원해야 하오. 자, 또 걸가요!》

《선생님!》

홍종우는 목메어 부르짖었다.

동지를 위한 길이라면 이 세상 끝이라도 가시고 야말 불같은 열정을 지니신 김형직선생님!

정녕 그 사랑의 끝은 어디인가!…

×

가을의 밀림은 수려하기 전에 장엄했다.

새로난 가을옷을 갈아입은 이깔숲은 새파란 하늘을 받쳐들고 성벽처럼 길게 늘어섰는데 하얀 레복을 차려입은 봇나무들이 위병대처럼 정연하게 서있었다.

밀림의 청신한 공기와 고요를 휘감고 사색에 잠겨있던 이깔숲이 갑자기 무엇에 들레이기라도 한 듯 와슬렁거렸다.

이깔숲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공지에 기다란 탁자를 놓고 모여앉은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터친 박수 소리에 장엄한 숲이 민감하게 공명한 것 같았다.

사람들속에 앉아 다채로운 정취를 풍기는 가을의 밀림에 시선을 박은채 정열적으로 박수를 치던 기탁은 스르시 고개를 돌리었다. 눈물이 우러난 탓인지, 감격과 격정에 휘감긴 탓인지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

(어떻게 되어 개개명창이던 이 모든 사람들이 벗이 되고 동지가 되어 통의부라는 거대한 통일조직에 집결되는 놀라운 기적이 탄생했는가?)

기탁의 뇌리속으로는 지난 한해동안 그리도 자주 떠오르던 잊지 못할 추억이 다시금 활동사진의 화폭처럼 떠올랐다.

사품쳐흐르는 바다오거우하를 헤쳐 건너오시던 선생님, 동평덕의 그밤 자기의 침상곁에 앉아 계시던 선생님, 작별의 그날 압록강기슭에서 초약 봉지가 가득 든 가방을 들려주시던 선생님…

어찌 그뿐이라. 판린이 천마산별영의 대원들과 함께 게이스계를 요정내고 삼천동의 자기 집으로 들어서던 그밤의 광경도 떠올랐다.

그날 밤 기탁은 선생님께서 친필로 《남만은 독립운동의 원로인 량선생을 기다립니다.》라고 쓰신 편지를 몇번이나 읽으며 얼마나 뜨거운것을 거듭 삼켰던가.

선생님께서 판린을 위해 아니, 자기를 위해 천마산의 끝끝한 대원들을 보내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이들처럼 소리를 내어 울었었다. …

기탁은 독립운동자들의 상형된 얼굴을 하나하나 여겨보며 거듭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 거창한 탄생의 밑바닥에 깔린 수많은 사연을 다는 모른다. 하지만 온 세상에 대고

자신만만하게 소리쳐வே칠수 있다.

선생님께서서는 뒤전에 나앉은 나같은 사람에게도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재생의 활력과 용기를 안겨주시었다. 여기에 온 모든 사람들도 역시 선생님의 뜨거운 사랑속에서 다시 태어나 하나로 뭉치게 되었다. 실로 전설같은 선생님의 사랑이 오늘의 탄생을 안아온것이다!)

《량선생, 오늘처럼 기쁜 날 그렇게 장참 부처님모양을 하고있으면 어떻게 하오. 자, 바투 나왔으시오.》

기탁은 자기의 곁에서 오동진의 귀에 익은 절절한 목소리가 울려서야 생각에서 깨어나날수 있었다.

통나무를 쪼개만든 기다란 탁자우에는 향긋한 음식들이 목직하게 올라있었다.

오동진은 걱정의 빛을 담고 음식상 복판에 수북이 놓여있는 물고기튀기 같은것을 가리켜보이였다.

《말린 산천어를 기름에 튀겨 만든거요. 듣자니 량선생 몸에는 산천어료가 펍 좋다지요? 사양말고 많이 드시우.》

심장이 툭툭 박동을 높이였다.

량기탁은 대번에 산천어튀기에도 선생님의 다심하신 사랑이 깃들어있음을 직감하였다.

이럴 때 하태수가 거무트름한 얼굴에 여러가지 의미가 깃든 웃음을 담고 다가오더니 커다란 술병을 들어올리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것입니다. 이 말썰 많은 〈가물치〉가 오늘을 축하하여 그리고 속죄를 하고 우의를 맹세하는 의미에서 량선생께 한잔 붓겠습니다.》

하태수가 기울이는 낮익은 사기술병을 여겨보던 기탁은 그 술이 바로 사연많은 《모태주》임을 알아보았다.

술보다 더 뜨거운것이 가슴노리를 지지며 속깊이로 흘러내리었다. 기탁은 커다란 돛주발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벗들, 동지들! 나는 지금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독립운동선상에 서리고 엉키였던 얼음장들이 녹아내려 봄의 언덕으로 폭포처럼 쏟아져내리는 장쾌한 광경을 말입니다.》

김선생께서 펼쳐주신 이 뜨거운 폭포가 저렇게 장엄한 흐름을 이루고…》

기탁은 한쪽손을 번쩍 들어 이쪽으로 쭉쭉하게 다가오는듯싶은 이깔숲을 가리켜보이였다.

《…김선생께서 그어주신 항로를 따라 보무당당히 나아간다면 독립의 아침은 반드시 밝아올것입니다.》

또다시 폭포소리같은 박수소리가 밀림의 정적을 휘저으며 내려쳐올랐다.

이 시각 남만의 황야에 푸르싱싱한 밀림의 바다, 수많은 용사들의 대집단을 꾸려주신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리판린과 함께 뜻을 같이할 민중을 찾아, 동지들을 찾아 압록강의 거친 물결을 헤가르며 국내로 나가고계시었다.

## 지 원 의 1 편

### 변 홍 영

그것은 망국의 비운서린 강토우에  
려명을 부른 화불이었다  
나라잃은 한많은 민족이  
환희의 눈물로 마중한 해빛이었다

지원  
가시는 곳마다 이 숭고한 사상으로  
동지를 얻으시고  
겨레를 깨우치시며  
조선독립의 멀고 험난한 길우에  
원대한 뜻을 품고 나서신  
김형직선생님의 삶의 좌우명

그것은 서리찬 철창속에서도  
꾸일줄 모른 양춘의 푸른 기개였고  
자신의 대에 이루지 못하면  
아들이 싸우고 손자가 싸워서라도  
기어이 조국해방을 이룩하시려  
그처럼 온 생애로 빛내여가신  
숭고한 애국애족의 기치였다

지원  
이 심원한 진리로  
민족의 진로를 밝히시고  
조선의 새벽을 부르시며  
한생을 불처럼 사신  
위대한 스승 위대한 혁명가

몸소 학교를 세우시어  
교편을 잡기도 하시고

깊은 밤 겨레들앞에  
야학의 등불을 밝히기도 하시며  
이 나라 인민의 가슴에 안겨주신  
지원의 그 빛발

그 빛발로 조선의 녀을 깨우치며  
명신학교 종소리는 얼마나 랑랑히 울렸던가  
선생님 몸소 집필하신  
내 민족의 녀이 담긴 교과서를 읽으며  
이국의 학교창가에서도  
얼마나 끝끝한 이 나라의 아들딸들이 자랐던가

아, 것처럼 애국에 열렬한  
위대한 심장에서 타오른 그 빛발로  
조선의 새아침은 밝았어라  
어린시절부터 그 빛발 안으시고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우리 수령님  
수난많은 민족의 기나긴 밤을 끝장내시고  
위대한 태양으로 솟아오르셨어라

뜻을 멀리에 두시고  
력사에 류례없는 위업을 쌓으시며  
수령님 걸어오신 혁명의 천만리길  
아직도 그 길은 끝나지 않아  
지원의 그 빛발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숭고한 좌우명으로  
우리 인민의 가슴에 영원히 빛나리  
강성부흥할 선군조국의 앞길에  
무궁토록 빛발쳐가리!

## 천 리 길

그날은 사나운 바람이  
바다오거우(팔도구)의 강언덕에 붙어치고있었다  
앞에는 얼어붙은 압록강  
그너머 바라보이는  
흰눈덮인 고국산천

열두살 어린신 그 나이에  
가셔야 할 천리길은 너무 멀었다  
타고가실 발구도 없이  
함께 가실 길동무도 없이  
그 먼길을 어이 홀로 가시라  
백설을 휘뿌리는 천험의 오가산령은  
또 어떻게 넘으시라

하건만 선생님께선

어리신 아드님을 그 길에 떠나보내시었다  
바다오거우로부터 만경대로  
가야 할 로정을 하나하나 짚어보시며  
천리길 굽이굽이에  
아버지의 소원을 새겨주셨다

나라를 찾자면  
조선을 알아야 한도시던 그 목소리  
짓밟힌 겨레의 참담한 모습을  
가슴에 새기고 뼈에 새기여  
내 나라를 구원할 혁명가가 되라고  
그토록 바라신 그 높으신 뜻  
아드님가슴속 깊이 새겨주셨다

아, 눈보라 우는 천리길로

어리신 아드님을 떠나보내시며  
얼마나 생각도 깊으셨으랴  
선생님 뜨겁게 바라신것은  
자식 가진 이 세상 아버지들이  
누구나 가질수 있는 범상한 사랑이 아니었나니

푸르른 만경봉에 올라  
아드님을 무릎우에 앉히시고  
애국의 넋을 심어주시던 그 봄날  
멀리 떠나던 대동강의 돛배도 다시 보시였으리  
청청한 소나무의 설레임소리도  
마음속에 정답게 들으셨으리...

철췌에 묶여 신음하는 조국강산  
그 피타는 부름소리를  
절통한 가슴에 다시 새겨가신 선생님  
자옥자옥 피가 고이고  
시련이 첩첩 막아서도 가야 할 길

천리길이 아닌 더 멀고 험난한 수수천만리  
조국해방의 그 길을 바라보셨나니

아, 그 불타는 마음에 받들리시여  
우리 수령님의 자옥이  
눈덮인 천리길에 새겨지고있었다  
그것은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조선을 위해 한생을 다 바쳐가실  
철세의 위인이 력사에 남기시는  
철의 의지의 자옥이었다

그날  
조선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  
사나운 바람이 불어치는  
바다오거우의 강언덕에서  
내 나라를 떨치고 내 민족이 길이 빛내여갈  
머나먼 혁명의 길로  
인민의 위대한 아들을 바래우고계셨다

## 청산리농장원들 별로 나간다

심 재 훈

봉상강에 얼음이 풀리고  
양지바른 언덕엔 냉이싹 파릇파릇  
과일나무동산에 삐죽새 삐죽삐죽  
청산벌에 봄이 왔다  
우리모두 농장별로 나가자

종달새 노래하는 벌에  
칭춘들 노래소리 울려퍼지니  
풀뜯던 누렁소도 좋아라  
영각소리 기운차게 내뿜는다  
어서빨리 씨테칠 논판에 뛰어들잔다

거름더미 산처럼 실은 트랙또르  
온 벌이 들썩하게 발동소리 울리며  
논밭에 듬뿍듬뿍 옮겨쌓으니  
땅은 배가 불러 벵글서 웃는듯  
봄아지랑이 뭉게뭉게 피워올린다

드넓은 벌에 관개수 흐르는 소리  
모판자리 다지는 흙메질소리 삽질소리  
풍요한 가을을 부르는 그 소리에  
벌이 때일찍 잠을 깰는다  
봄맛이로 농사차비로 들썩한 청산벌

이 봄날  
청산리사람들 마음속에 사무쳐오는  
수령님 생각 장군님 생각

오늘도 문득 그 봄날처럼  
저 논두렁길 걸으시여 우리를 찾아주실듯

이 봄날  
우리의 **김정은**동지  
수령님모습 장군님모습으로  
우리 청산벌을 찾아주실것만 같아  
이른새벽 들길로 달려나온 청산리사람들

올해농사 잘 지어  
금나락 물결치는 청산벌에  
**김정은**동지를 남만저 모시고싶은  
간절한 그 소원 그 열망이  
뜨겁게 뜨겁게 넘쳐흐르는 청산벌

아, 청산벌에 봄이 왔다  
봄날의 태양이 솟아올라  
우리를 재촉한다  
오늘에 하루를 앞당기면  
가을엔 로직가리 그만큼 높아지거니

온 세상 보란듯이 펼칠  
사회주의강성국가 높은 지붕을  
우리 쌓은 로직가리로 받들고저  
봄을 앞당겨 풍요한 가을을 불러  
청산리사람들 별로 나간다  
청산벌은 봄맛이로 들끓는다

## 기 념 비

## 편 재 순

사랑하는 후세의 벗들이여  
먼 후날 이 강반에  
우리를 위해 따로  
기념비를 세우지 말라

오래전에 외위둔적이 있는 이 시구절이 저절로 떠오른것은 내가 한 여성작가의 집을 찾았을 때였다.

한생토록 문학에 온념을 바쳐 많은 글을 쓴 여성작가의 희어진 머리를 바라보며 느닷없는 감동의 세계에 빠져들어 서재를 둘러보니 작가가 평생 쓴 많은 책들이 주런이 꽂혀있었다.

부러움에 차서 한책을 뽑아드니 거기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보아주신 날자까지 찍혀져있었다. 저절로 탄성이 흘러나왔다.

《아, 훌륭합니다. 선생님은 생의 흔적이 뚜렷한 자기의 당당한 창조물을 가지고있는셈입니다.》

하지만 여성작가는 담담한 어조로 내 말에 대답하였다.

《뭘요, 이 나라 녀인들이 다 그렇게 살고있지요. 자기 손으로 자기 시대의 기념비를 쌓아간다 할가.》

역시 평범한것에도 시대적인 의미를 부여할줄 아는 작가다운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 시대의 기념비를 자기의 손으로 창조해간다! 많은것을 생각해 하는 의미깊은 말이었다.

무릇 기념비라고 하면 후세사람들이 먼저 살고 간 사람들의 업적이나 위훈을 찬양하여 세우는것이라. 그것이 크든작든 다른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 시대 녀성들은 오늘날 자기들의 손으로, 자신의 투쟁과 생활로 남성들과 나란히 한 전선에 서서 자신의 창조물을 당당히 세워가고있다. 그 자주적인 삶과 투쟁의 활력을 누가 주었는가.

우리의 **김정일**장군님께서 녀성들을 이렇게 키워주셨다. 이렇게 크나큰 힘과 지혜, 정열을 지닌 영웅적인 녀성들로 키워주셨다.

사색의 폭이 너무도 큰것 같다. 너무도 많이 떠오르는 녀성들의 모습, 그들속에는 있다. 순전히 자기들의 손으로 공장을 일떠세운 북변의 식료공장의 녀성로동자들이며 우리 장군님께서 너무도 장하시여 진주보석이라고 자랑스레 내세워주신 함주군의 흥봉청년발전소건설자들중의 녀성돌격대원들이, 선군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워주신 자강도땅의 영웅관리위원장이며 녀성과학자, 함남의 불길로 황황 타오른 수많은 유명무명의 불꽃으로

된 함남의 녀인들... 어이 다 꼽을수 있으랴.

문득 떠오르는 아스라한 추억의 갈피속에 새겨진 먼 세월의 일...

언젠가 나는 어머니의 옛 고향마을 함박골에 들렀던적이 있었다.

옛말로 들어오던 한 녀인에 대한 이야기, 전장에 나갔다 돌아오지 못한 남편을 대신하여 부모들을 극성스럽게 공양한 자그마한 덕을 찬양하여 비를 세워주었다는 이야기가 생각나 나는 작가적인 호기심에 뒤산에 올라 그 비를 찾아보았었다.

하지만 웬걸, 그 자리는 세월의 눈비가 날라온 흙더미에 매워져 아무런 흔적도 찾을수 없었다. 새로 자라온 나무들만이 소슬바람을 안고 설레이고있었다.

단지 세월탓일가. 아니다.

녀인에게는 창조가 없었고 더우기 그 세월에 자기 손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자주적인 인간으로 이끌어줄 위인의 손길도 없는 시대타이 아닐가.

하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 녀인들은 장군님덕분에 자기의 창조물을 남기며 살고 투쟁하고있으니 이 얼마나 복된 삶이며 인생인가!

생각할수록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정이 마음속에 그들먹이 차오른다.

세월의 이끼속에 묻혀버릴수도 없고 누구에게 빼앗길수도 없는 자기의 창조물을 가질수 있도록 영웅적인 삶을 누리게 해주신분!

가깝게 나는 우리 녀성작가들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들은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과 부모들의 뒤바라지를 해야 하는 녀성들이다. 하지만 시대가 부르는 공민적인 량심과 의무감을 더욱 크게 안고있기에 그들은 하나의 작품창작을 위해 많은것을 바친다.

하나의 자료취재를 위해 오랜 시간 인민대학습당의 서고를 들추고 공장과 전야, 산간벽지에 이르기까지 천리 먼길도 달려가 현실체험을 하고...

한편한편의 글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그 글을 쓰는데 바쳐진 녀성작가들의 심혈을 다는 모른다.

오직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만은 모든 수고를 헤아리시고 녀성작가들이 쓴 글은 비록 자그마한것이라 해도 높이높이 평가해주시며 걸음걸음 사랑을 주시였다.

녀성작가들이 빠른 시간에 다녀오라고 취재차도 마련해주시고 주부가 없는 동안의 살림살이까지 걱정하시여 온갖 혜택을 돌려주신 장군님!

해마다 3.8국제부녀절이 오면 선군령도의 바쁜 시간을 내시여 자리를 같이하시교 공연도 보아주시고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시던 아버지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잊을수가 없다.

아버이의 그 사랑속에서, 그 품속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박사로, 영웅으로 자라나 중요초소들마다에서 든든히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자기의 창조물들로 생의 흔적을 뚜렷이 남기고있는것인가.

새로운 과학적발명으로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한 과학원 생물공학본원의 여성연구사며 최고사령부 작식대원이라고 정을 담아 불러주시던 장군님의 믿음을 안고 남편들과 함께 회천발전소언제를 우뚝 세운 군인가족녀인들을 선군시대 여성혁명가들의 대오에 나란히 세워본다.

자기 시대의 기념비를 자신의 손으로 세워가는 이 나라 녀인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랑으로 키워주신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여성들의 대오가 안겨온다. 그 군상들우에 우뚝이 떠오르는 못 잊을 영상!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동상 하나, 기념비 하나 허락하지 않으신 우리 장군님!

지난 1월 우리 인민은 《로동신문》을 통하여 아버지장군님의 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숭고한 도덕의 리이다》를 받아안았었다.

그때 누구나의 심장에 뜨겁게 마쳐오던 눈물겨운 깨달음.

지난해 그 피눈물의 12월에 땅을 치며 목놓아울며 우리 인민이 더우기나 통탄하고 가슴저려한것이 무엇때문이였는가. 바로 이 조국에, 우리 장군님께서 것처럼 심혈을 다 바쳐 자신을 깡그리 불처럼 태우고태워 이끌어오신 이 땅에 찾아뵈고우리를 그이의 동상 하나, 기념비 하나 없다는 눈물겨운 사실에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선 것처럼 모든것을 다하신 장군님께서 자신의 동상을 세우는 문제만은 왜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늦게야 알았거니.

자신은 수령님의 위업을 계승하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어나가는 혁명전사

일뿐이라고, 수령님의 필생의 뜻을 이어 우리 인민들을 잘살게 하고 조국을 통일하며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야 할 력사적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절대로 동상을 세울수 없다고 하신 아버지장군님의 말씀!

그러시면서 오히려 당의 뜻을 받들어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기념탑을 세워주고 싶다고 하신 장군님!

자신의 동상 하나 남기지 않으신 그이의 뜨겁고 숭고한 그 세계에 우리모두가 울었다.

아! 못 견디게 그립다, 우리 아버지!

우리 여성들이 해놓은 자그마한 일도 남성들 못지 않게 장한 일을 했다고 크게 보아주시고 높이 사주시며 모든 영예와 영광 깡그리 다 돌려주시던 아버지장군님을 그리며 나는 오늘날 우리 여성들의 심정을 담아 감히 말하고싶다.

위대하신 그이의 이끄심따라 우리 여성들이 남성들과 어깨나란히 이룩한 크고작은 모든 창조물들을 포함하여 이 땅에 수없이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우리의 아버지 **김정일**장군님의 한생의 업적이 깃든 최대의 기념비라고 말하고싶다. 아니, 오늘의 이 조선이 명실공히 위대하신 장군님의 기념비나 같다고 나는 생각한다.

날이 갈수록 그리움속에 더욱 타오르는 맹세.

우리 여성들은 친정아버지로 모시고 의탁하며 살던 **김정일**장군님을 뜻밖에 잃는 최대의 상실을 당하고 다투어도 울었다. 이 눈물은 아직도 마르지 않고있다. 하지만 울고만 있지 않는다.

무서운 힘으로 일떠섰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업을 이어 조선을 이끌고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팔을 끼고 어깨걸고 성새를 이룬 선군대오에는 남성들과 나란히 당당히 여성들이 서있다.

이 여성들이 자신의 삶과 투쟁으로 창조해가는 기념비들로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이 조선은 더욱더 강해지고 문명해지고 번영할것이다.

## 상 식

## 세 포 공 학

세포의 유전적구조에 인공적인 조작을 가하여 그의 유전적특성에 심각한 변이를 일으키는 기술(방법)과 그 응용을 연구하는 학문을 세포공학이라고 한다.

세포공학은 세포유전학,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조직배양학을 기초로 하여 1970년대 중엽부터 체계화되기 시작한 학문으로서 세포를 대상으로 유전적조작을 진행하며 그것이 기술공정화되었다는 의미에서 세포공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세포공학은 일정한 유전적설계에 따라 생물체의 본성을 변화시켜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 잘 복무하도록 하는것

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다.

세포공학은 유전질개량의 대상에 따라 계능공학, 염색체공학, 세포, 조직의 갑작변이, 유전물질넣기, 세포융합, 세포질공학 등으로 나뉜다.

세포공학의 최종목적으로부터 개체재생기술도 세포공학에 포함시키고있다. 세포공학은 생물체의 유전현상에 대한 지배를 과학화, 기술공정화함으로써 유전질의 개량을 목적의식화하며 유전현상을 해명할뿐아니라 육종효률을 높이고 유전적질병을 예방, 치료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숲의 미소

박 상 민

봄의 미소가  
숲에 비졌는가  
아침이슬 흐르는 푸른 잎들에서  
해빛이 반짝이네 밝게 웃네

숲이여!  
끝없이 물결쳐간 저 산발들이  
얼마나 행복한 보금자리인줄  
너 아느냐  
이 세상 끝까지 다 가보아라  
숲의 력사는 억만년이어도  
조선의 숲처럼 억세고 영원하지 못하리라

내 숲에 정들어  
숲의 속삭임을 벗삼던가  
한생을 다시 산다고 하여도  
숲을 떠나선 살맛을 못 찾아  
너와 인연 맺어주신분의  
크나큰 사랑에 내 먼저 정들었거니

그분의 미소는 해빛!  
사람도 산천도 따뜻이 쓰다듬어  
행복한 웃음 머금고 삶을 누리라고  
언제나 자애만을 주시던  
아, 그립고 그리운 우리 장군님

아름다운 평양  
모란봉의 언덕에 뿌리내린 나무가  
우리 장군님 마음속에서  
수려한 숲으로 끝없이 펼쳐질 때

저기 장자산기슭에서도  
두그루 잣나무가 푸른 잎 펼쳐들고  
오가산너머 백두대밀림을 지나  
칠보산 묘향산 금강산...  
이 나라 산발마다에 숲바다를 펼쳤네

언제였던가  
조국을 사랑하는 병사들의 마음  
푸른 숲에서 자자구구 읽으시며  
이것이 조선의 산이라고 기뻐하신 날은...  
자신께서 바치신 헌신의 그 많은 날들우에  
그 하루를 잊어주시며 보내신 미소  
오, 조선의 숲에 비낀 영원한 미소여

숲이 웃네  
우리 장군님 태양의 미소 안고  
숲이 웃네  
태양을 향해 그리도 밝게 웃네

# 새 집들이 봄날의 소원

신 현 숙

동산에 벌써 해가 떴구나  
일손을 다그치자 동무들아  
돌격대장 똑바우 그 총각  
오늘작업은 내가 책임지고 하라누나

그러니 작업분공을 해야지  
순회는 오늘 장판을 끝내거라  
돌격대장 그 총각의 군대식평가  
우의 점수를 받아꾸나

영육인 가시대 경회는 세면대  
티 한점없이 닦고닦았건만

더 윤나게 닦아라 집안이 더 환하게  
새집주인들 손길이 가지 않게

벽지도 제일 좋은걸 바르자  
저 방은 신랑신부방이니  
고운 꽃문양 벽지를 바르면  
그들의 사랑 더 순결하겠지

창문도 더 맑게 닦고닦자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친필  
《옥류교》의 글발이 더 잘 보이게  
주체사상탑봉화의 빛발도 방안가득 넘치게



방문손잡이도 꽃모양전등갓도  
살펴보고 또 살펴보자  
이 집에 시집을 새색시 마음으로  
온 방을 분곽처럼 알뜰히 꾸리자

화창한 이 봄날 생각도 깊구나  
인민들에게 이 좋은 새집을 마련해주시려  
천만로고를 바쳐오신 우리 장군님  
**김정은**동지와 함께 이 집에 문득 들리실듯

아버이장군님께로 달리는 그리움의 이 마음  
가슴가득 방안가득 넘치는 마음은 오직 하나  
4월의 봄날 아버지장군님 모시고  
새집들이경사를 펼치려던 그 소원

인민의 기쁨은 우리 장군님 념원  
인민의 행복은 우리 장군님 리상  
장군님의 그 념원 그 리상 활짝 꽃피난  
새 거리 새집에 장군님 모시려던 그 소원

우리 그 소원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새집을 더 멋지게 더 알뜰히 꾸리자  
우리 장군님 더 환히 웃으시게  
우리의 **김정은**동지 기뻐하시게

아, 우리의 그 소원  
꽃피는 이 봄날에 더욱 간절해지는 그 소원  
4월의 새집들이 그날에로 달리는 그 소원  
그 소원을 안고 동무들아 일손을 다그치자

## 땅 의 고 백

### 서 진 명

3월  
버들개지 움트는  
봄도 이른봄

처음엔 그저 얼떨떨해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고  
고달픈 삶의 세파속에  
때이르게 얼굴에 주름이 갔던 농민  
얼굴이 환해져  
10년이나 젊어진듯싶은 그 농민을

때없이 피눈물을 뿌리며  
땅 내 가슴을 광광 두드리던  
어제날의 그 모습 눈에 삼삼해  
아기를 안은 행복한 어머니처럼  
더운 가슴으로 날 부둥켜안은 농민앞에  
나 또한 가슴을 다 맡겼던  
그날은 3월 5일 토지개혁의 날!

툑툑툑  
조용히  
그리고 지꽃게  
내 가슴에 이어지던  
심장의 세찬 박동

그것은 숨이 가쁘도록  
나를 끌어안고 놓을줄 모르던  
농민의 심장이 웨치는 소리였다고  
—나는 너의 주인이다!

그다음은  
미처 다 알수 없는 흥분으로  
부풀어 일어서던 이 가슴  
열었던 나의 몸을 녹이며  
구슬져내리던 행복의 눈물

방울방울 그 후더운 눈물에  
가꾸는 손은 있어도 주인이 없던  
지난날의 설움은 봄눈처럼 녹아  
환희로 이 가슴은 설레였다고  
태어나 그 몇천만년만에  
내 참다운 주인을 만나게 된것인가

아, 아버지수령님  
농민들에게 땅을 주신 그날부터  
놓치면 영원히 잃기라도 할듯  
미더운 주인의 그 품에  
와락 내가 안겼다고  
어머니의 젖품을 파고드는 아기처럼

## 탄은 얼마나 뜨거운가

홍 민 식

온 나라가 기쁨에 설레이는  
주체철... 주체비료...  
그 장한 소식 들을 땀  
나도 모르게 탄부된 공지와 함께  
떠오르는 생각  
탄은 얼마나 뜨거운가

탄은 얼마나 뜨거워서  
우리 생활 갈피갈피에 스미어  
이렇듯 밝음을 주고  
열기를 주고  
기쁨과 행복을 주는것인가

불타서만 탄이 뜨겁던가  
탄 거기엔  
땀에 젖으며 석수를 맞으며  
막장을 밀고간  
우리 탄부들의 불같은 낮과 밤들이 있지 않느냐

거기엔 있지 않느냐  
발파연기 가시지 않은 막장에  
다투어 뛰어들던 그 마음들이  
무너지는 봉락을 막아  
동발이 되고 방틀이 되어  
어깨성을 쌓던 걱정 of 순간들이

탄 거기엔  
버럭에 묻히는 한덩이 탄도  
제 살점갈아 못 버리는 뜨거운 사랑이 있고  
탄에 섞이는 한덩이 버럭도  
마음의 티갈아 못 참는 깨끗한 마음이 있어

이 세상 그리도 소중한것이 탄이고  
이 세상 그리도 큰 락이 탄캐는것이여서

잠을 자도 탄캐는 꿈을 베고 잠들고  
일을 해도 탄벽을 가슴에 그러안고  
진한 땀을 흠뻑 흘려야  
온갖 직성 다 풀리는 탄부의 마음

조국의 바람을 누구보다 잘 알아  
막장에 묵묵히 꿈과 량심을 묻고  
말을 해도 심장으로 말하고  
말을 해도 탄을 두고 말하는  
애국에 불타는 탄부의 이 진정

그 심장의 뜨거움을  
수도거리의 화려한 불빛들이 속삭이지 않느냐  
사품쳐 쏟아져내리는  
주체철쇠물이 소리쳐 말해주지 않느냐

어찌 불타서만 뜨거우랴  
탄은 그저 불붙는 돌덩이 아닌  
우리 탄부들의 총정의 한마음  
그 심장과 심장이 뿜어낸  
펄펄 타는 그 불덩이!

탄은 얼마나 뜨거운가  
내 자랑높이 대답하리라  
애국으로 불타고 총정으로 뜨거운 그 심장의 열  
도를  
그 무엇으로도 재일수 없나니

탄의 뜨거움은 그끝이 없는 무한대!  
그래서 오, 그래서  
그 뜨거움에 받들려  
꽃피나는 인민의 행복은 끝없으리라  
강성번영하는 나의 조국은  
끝없이 부강번영하리라

## 봄비 내리는 아침 거리에서

김 성 철

봄비 내리는 아침 거리  
웃음꽃 날리며 출근길 걷는 처녀들  
파란색이며 빨간색 노란색 사출장화  
모양새도 빛깔도 저마끔 뿜내는데  
누구나 느닷없이 하는 한마디  
이 가슴 쩡 울리누나  
—우리 장화 제일이야

오, 이런 날 이런 말 듣는 때가 얼마나 행복한가  
아이들도 젊은이들도 늙은이들도  
이제는 누구나 같은 말 외우거니  
우리 신발공장 나의 작업반  
내가 만드는 사출장화 인민의 호평 받을 때  
생산자의 이 보람 복무자의 이 긍지

사람들 다는 모르리라

우리 공장을 찾아오신 어버이장군님  
 신발전시대앞에 오시여  
 몸소 한켠레 손에 드시고  
 모양도 맵시있고 색깔도 곱다고  
 가벼워서 인민들이 좋아하겠다고  
 그러도 기쁨넘쳐 환히 웃으시던 그 모습

누구나 찾는 우리 장화  
 우리 장화 설비좋아 원료좋아 태어난것이라  
 한평생 인민밖에 모르신 그이  
 인민생활향상에서 만족을 모르신 그이  
 더 좋은것은 인민에게 차례지게 하시려는  
 그 숭고한 뜻 열렬한 사랑이 낳은것이거니

봄비 내리는 아침 거리  
 이 가슴 적시며 들려오는 소리  
 우리 장군님 사랑속에 태어난  
 우리 장화 멋쟁이야  
 행복넘친 아침 거리에 울리는 소리

나에겐 들려오누나  
 우리 인민을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내세우고싶으신  
 어버이장군님 간절한 소원속에서  
 우리의 경공업  
 세계를 앞서나가는 발자욱소리  
 내 심장에 쿵쿵 메아리치누나

## 석탄, 너와 나는 불타는 하나

류 정 실

내 이제야  
 너의 귀중함을 정녕 깨달았던가  
 우리 생활의 빛과 열인  
 석탄!  
 내 떨리는 두손으로  
 가슴에 너를 그러안는다

내 한생 석탄 너와 함께  
 석탄 너를 캐며 살아왔건만  
 내 오늘에 더욱 사무치게 깨닫는  
 석탄 너의 귀중함이어

탄부의 이 가슴 모질게 쳐다오  
 말없는 석탄이어  
 네가 그리 소중해 우리 장군님  
 삼복의 무더위를 헤치시며  
 저 험한 샷갯봉기슭까지  
 불멸의 자욱을 남기지 않으셨더나

석탄은  
 인민경제발전의 생명선이라고  
 그 생명선을 탄부들에게 맡긴다 하시던  
 그날의 그 음성  
 죄책의 이 가슴 두드리게 하는가

말해다오  
 자신을 위해서는  
 한순간도 바치지 않으신 장군님  
 겹쌓인 파로속에 얻으신 병도 감추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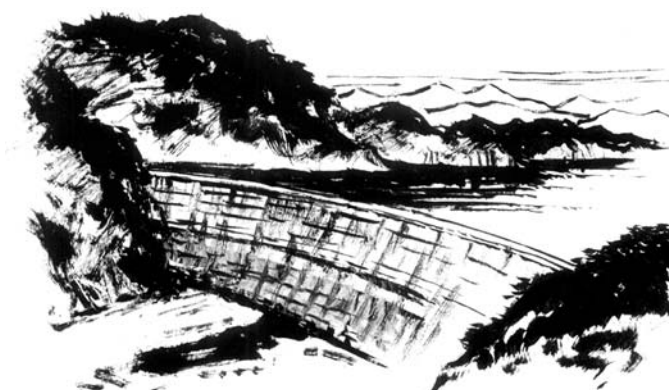
인민생활향상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장군님  
 아, 그날도 천만뜻밖의 그날도  
 탄부 우리들을 찾아오시던 그 걸음 아니셨을가

장군님사랑만 받아온 우리  
 장군님어깨우에 실린 무거운 짐  
 조금이라도 덜어드리지 못한  
 죄책많은 탄부 우리의 삶  
 그 삶 무엇에 더 필요하단 말인가

대답해다오  
 구름우에 솟은 저 샷갯봉보다 더 높은  
 석탄산을 쌓아올린다면  
 저 하늘에 닿도록 검은금보화를 쌓아올린다면  
 우리 장군님 잠을 깨듯  
 일어나지 않으실가

오, 석탄이어 검은금이어  
 너와 나 그대로  
 철이 되고 비료가 되고 비날론이 되어  
 장군님께 못다 바친 충정으로  
 태양의 위업을 받들 때다

우리가 가야 할 앞길에  
 우리의 푸른 하늘에  
 위대한 향도의 태양이 빛난다  
 석탄이어 너와 나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받들어  
 태양의 열과 빛이 될 불타는 하나가 되자



# 까치봉의 《큰집》

변 영 옥, 그림 김 광 석

레성강물길을 옆에 끼고 서쪽으로 뻗어가던 산 줄기가 기름진 송세벌에 주저앉으며 봉긋한 자태를 남겨놓았다.

이것이 바로 까치봉이다.

예로부터 까치가 많아 까치봉이라 불리우는지 알수 없지만 지금도 아래배가 류달리 흰 까치들이 잎이 떨어진 키높은 아카시아나무우듬지에서 꼬리를 달싹거리며 열심히 깹깹거리고있었다.

아카시아나무들아래에 수북이 쌓인 눈, 두툼한 눈을 량옆으로 가쁜히 쳐낸 길로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가고있었다.

연하늘색솜옷을 입고 진자주색목도리를 두른 채 불룩한 배낭을 지고가는 여인은 도농업건설설계연구소 설계기사 하선금이다.

여인의 걸음은 발에 연추를 매단것처럼 무겁게 움직이고있었다. 눈초리가 길사 한 눈에도 밝지 못한 그의 마음이 비낀듯 흐트해보였다.

그는 길이 약간 경사져오르기 시작한 언덕을 앞에 두고 잠간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눈길을 들어 앞쪽을 바라보았다.

층층돌계단위에 서있는 자그마한 집이 한눈에 안겨왔다.

저 돌계단을 따라 오르느라면 누런 잎이 그대로 붙은 떡갈나무가지울바자가 있다. 울담 안쪽에는 터실터실한 검회색겉질이 붙은 통나무토막의자가 있고 동실동실한 차들로 칸을 막은 꽃밭도 있고...

하얀 뜨개모자를 쓴것 같은 고깔모양의 귀틀집 지붕옆에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구새먹은 통나무굴뚝이 우뚝 서있어 마치 동화세계의 작은 집을 보는듯싶었다.

하선금이 1호발전소건설을 마감짓는 날까지 거처하면서 정들고 손때묻은 숙소였다.

물길건설자들은 이처럼 자그마한 집을 발전소의 《큰집》이라고 불렀다. 한것은 이 집에서 태어난 설계가 지도에도 없던 새 물길이 쪽쪽 뻗어가게

하고 새로운 공법들도 련속 창안되게 하여 건설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주었기때문이다.

정답아 불려주던 큰집, 남다른 꿈과 열정과 희망을 안고 즐겁게 오르내리던 층계, 그 모든것이 오늘은 왜 별로 눈에 설고 높아보이는지 또 오르기 힘든지 하선금자신도 알수 없었다.

아마도 가정에서 쌓인 불미스러운 감정들이 아직 마음에 응어려져있는 그때문인지...

...떠나오기 며칠전에 있는 일이었다.

설것이를 끝내고 방에 들어와 출근준비를 서두르던 하선금은 저도 모르게 벽에 걸린 한장의 사진앞에 멈춰섰다.

오누이를 량옆에 꼭 껴안고 밝게 웃으며 찍은 남편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던것이다.

사진속의 남편은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고있는것 같았다.

《여보,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오. 당신이 곁에 없는것이 참 유감이구만.》

저 사진이 아들 위성의 생일날 찍은것이라고 했었지.

《...여보, 위성의 생일을 집에서 우리가 잘해주었소. 어머니가 위성이 좋아하는 음식을 소박하게 차려주고 가족오락회도 하고... 참, 그리고 생일날 한 처녀가 위성이 옷을 한벌 사가지고 왔댔소. 누군가고 물어보니 그저 발전소건설장에서 왔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가더군.

위성인 엄마가 보내준 옷이라고 하며 얼마나 기뻐하던지... 곁에 있는 고마운 사람들 소환같은데 우리 가정의 인사도 전해주오.》

인편에 보내온 남편의 편지를 받고 마음이 아릿했던 그날도 1호발전소의 완공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다.

건설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면 모든걸 봉창하리라. 하선금은 건설장에서 이렇게 생각했었다. 그

런데 이제 발전소로 다시 떠나야 한다.

선금은 호— 하고 한숨을 내쉬며 사진앞에서 돌아섰다.

(내가 꽤 그 모든걸 감당해낼수 있을까?)

선금이가 오래동안 발전소건설장 물길굴설계를 맡아해오던 현민석연구사가 불치의 병으로 끝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것은 한주일전이었다.

그런데 이미 완공된 □구간물길굴벽체에서 실금이 발견되었다는 통보가 날아왔다. 그때문에 □구간의 끝점에서부터 시작하던 □구간의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한다.

선금이는 현민석연구사의 보조연구사였다. 선금은 1호발전소건설기간 함께 일해오면서 그의 재능과 실력에 내심 존경과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자신은 언제까지나 그의 조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왔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는 현민석연구사의 위치에 서야 할 상황이 조성된것이다.

며칠전 선금은 당위원회의 부름을 받았다.

선금의 인사를 받으며 자리를 권하고난 초급당비서는 가정형편이며 아이들에 대해 이것저것 다심하게 물고나서 정색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선금동무! 초급당위원회는 동무를 물길굴담당설계자로 건설장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예?!》

선금은 놀랐다. 금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은 그는 겨우 말머리를 떼었다.

《고맙습니다, 잘 믿어줘서... 그런데, 저... 비서동지! 전 무슨 일이든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길굴설계는 현민석동지가 맡아하던것입니다. 보조연구사인 제가 그 책임을 꽤 감당할수 있겠는지... 전 자신이 없습니다.》

《허, 우리가 선금동무의 금새를 잘못 매겼는가?!...》

당비서는 사람좋은 얼굴에 벋글 웃음을 띄우고 말하였다.

《동무야 현연구사와 몇년동안 건설장에서 함께 일한 좋은 경험을 가지고있지 않소. 그리고 새로 시작한 □구간의 물길굴도 동무가 창안한 새 공법으로 건설된다고 하던데...》

《예, 원호형물길굴설계입니다.》

《현장에서도 동물 보내달라고 제기해왔소.》

《예?》

선금은 긴장해졌다. 그러니 현실적인 문제로 눈앞에 박두한것이다.

당비서는 선금의 얼굴을 눈여겨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현동무도 동무가 설계를 맡아할수 있을거라고 보증했소.》

《아니, 현민석동지가 맡입니까?》

그날 저녁이었다.

하선금의 말을 들은 남편은 싱글벙글 웃더니 《앞에 전사 쓰러졌으니 다음전사 출발진지로!》 하고 오른손까지 척 들어 선금의 앞에 비껴그으며 호탕하게 말했다.

《아이참, 남은 걱정이 산갈에서 앉아있는데 당신은 그런 통을 다해요?》

선금은 곱게 눈을 흘겼다.

남편은 다시 무릎을 바싹 마주대며 말했다.

《아니, 무슨 걱정이 그렇게 산갈소? 당당한 대학졸업생에 다년간의 현장경험도 있겠대, 또 이렇게 바위같은 남편도 있는데 이제부터 당당하게 실행사를 해볼판이지 뭐.》

《위성이 아버지, 그래도 난 어쩐지 두려워요. 현동지에 비하면야 난 아직 조수나 같은데...》

그제서야 남편은 정색한 어조로 말했다.

《현동지도 생각되는게 있어 당신을 추천했겠는데 맘먹고 잘해보오. 당신은 잘할수 있소. 단지 내가 걱정되는건...》

《걱정되는건 뭐예요?》

선금은 바싹 남편의 말꼬리를 잡아물었다.

남편은 선금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정색기를 찝지워버렸다. 그리고는 능청스레 즉흥시 한구를 내뱉었다.

《양지쪽의 비둘기 가슴펴고 산마중하려나

숨 크게 내쉬고 날개 활짝 퍼누나》

《아니? 당신 정말...》

선금은 전전공공하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것을 느끼며 남편의 잔등에 쿵 하고 주먹을 한대 안겼다.

그러던 남편이 정작 하선금이 배낭을 메고 발전소건설장으로 떠나게 되자 심중한 낮빛으로 그를 불러앉혔다.

《여보! 그러니 당신이 원호형물길굴설계를 맡겠다는거겠소?》

《예.》

선금은 남편의 심중한 인상에 위압감을 느끼며 조심스레 대답했다.

《현민석연구사의 위치를 당신이 대신할수 있을까?...》

선금은 눈섭을 쫓긋했다.

《당장 떠나게 된 이 마당에서 당신이 힘을 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하면 난 어떡해요?》

남편은 머리를 끄덕거렸다.

《그럼, 못한다는 법이야 없지. 하지만 설계가의 박동이 도면의 선과 점으로 새겨진다는걸 당신이야 잘 알지 않소. 욕망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 해결할수 있다면 세상에 힘든 일이 하나도 없을거요.》

선금은 조용히 앉아있었다.

다행히도 남편이 《원호형물길굴설계라는게 도대체 어떤거요?》하고 묻는 바람에 하선금은 잃었던 용기를 모아가지고 정열적으로 설명했다.

《여보, 지난 기간 발전소들에서는 대체로 아치형물길굴을 설계하고 건설해왔어요. 그런데 현민석연구사동진 구배조건이 심한 구간엔 원호형물길굴을 설계했어요. 이건 최첨단의 요구에 올라선 새로운 방법이에요. 여기서 기본은 기부점을 해결하는건데 (기부점이라는건 기본부하를 받게 되는 부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때문에 고심하다가 현민석연구사가 병원에 실려갔는데... 여보, 지금 발전소에서는 완공의 날을 하루라도 앞당기자고 총공격전을 벌리고있어요. 그런데 구간엔 원호형물길굴설계가 도입되지 못하면 장마철전으로 물길을 완성할수 없어요.》

압박하는 정적속에 서있던 남편은 후- 하고 한숨을 크게 쉬며 뜨직뜨직 말했다.

《여보, 당신이 위성이든 끔찍이 사랑해준다고 당장 어른이 되오? 기술자의 실력도 마찬가지요. 난 당신이 진정으로 원호형물길굴설계의 주인이 되지 못할가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거요.》

하선금은 자기의 등을 떠밀지 못하는 남편의 마음이 리해되었다.

그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었다. 하선금은 지금껏 현민석연구사의 조수에 불과했다. 연구소에 있을 때도 보조적인 설계나 말아하던 그가 독자적으로 하나의 커다란 설계를 완성할수 있다는 것은 실로 가슴벅찬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런데 발전소물길굴건설현장지휘부에서는 왜 나를 보내달라고 했을가, 현연구사는 왜 또 내가 할수 있다고 했고...

남편은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서는 하선금을 바래주며 독한 어조로 《잘해보오.》하고 한마디만 했었다. 그런데 그의 인상엔 무엇인가 말하지 못한 표정이 깔려있었지...

각각각 나무우듬지에서 울리는 까치소리는 하선금의 무거운 상념을 깨뜨렸다.

하선금은 건설장의 까치를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마치도 그 까치소리는 하선금에게 다른 생각 말고 어서 현실에 뛰어들라고 일깨워주는것만 같았다.

(그래, 난 해낼테야. 하루빨리 원호형물길굴설계에 몸을 담그자. 그러면 위성이 아버지도 모른걸 리해하게 될게야.)

하선금은 배낭끈을 잡고 힘껏 추슬러올랐다.

그리고 두주먹을 꼭 쥐듯 도톰한 입술을 옥물고 한층두층 돌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였다.

×

숙소마당은 눈 한점 볼수없이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다.

하선금은 숨신을 탁탁 털며 큰집출입문을 열었다.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듯 따뜻한 온기가 얼어든 몸을 감싸주었다.

배낭을 내려놓고 옷걸이에 솜옷을 건 하선금은 부엌쪽에 머리를 돌리며 《순아!》하고 찾았다.

순아는 하선금과 함께 일하는 사도공처녀였다.

부엌문을 열어보니 순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얼핏 벽에 걸린 알림판에 눈길을 주었다. 큰집식구들은 밖에 나갈 때마다 자기 위치를 거기에 적어넣곤 한다.

알림판에는 《3호물길굴》이라고 씌여있었다.

(아침부터 3호물길굴엔 왜 나갔을가?...)

얼었던 몸을 잠깐 녹인 하선금은 설계도를 가지고 3호물길굴로 나갔다. 3호물길굴대대장 조광철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떠나오기 전에 하선금은 해당 기술일군들과 진지한 토의끝에 현민석연구사가 시도했던 원호형물길굴설계를 완성했었다. 이제 그 설계가 대대장에게 기쁨을 줄것이라고 생각하니 발걸음이 가벼웠다.

가파로운 물길구배를 돌아내려 현장에 도착하니 자그마한 가설막안에서 석침하면서도 굼직한 대대장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순아동문 오늘 뭔가 잘못되지 않았소?》

《왜요?》

랑랑한 순아의 목소리였다.

《허허, 성태동무한테 주던 닭은 콩을 오늘은 나한테도 주니 말이요. 난 함마장단노래할 힘이 없는데...》

《호호... 대대장동지에게 드리는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이 콩은 대대장동지가 새 설계안을 빨리 내놓길 바라는데서...》

《허, 그러니 사색콩이구만. 그런데 어쩐다?! 아직 신통한 방도가 없으니... 난 이 콩을 안 먹겠소.》

《아이참, 그럼 물길굴은... 어서 드십시오.》

(그러니 물길굴때문에 이렇게...)

품에 안은 설계를 매만지던 하선금은 밝은 웃음을 지으며 가설막안으로 조심히 들어섰다.

순간 대대장의 눈이 놀란 황소눈처럼 휘둥그래지고 순아는 반가움으로 도톰한 입술을 방실히 벌리며 손뼉을 쳤다. 그리고 하선금의 팔에 매달렸다.

《언제 오셨습니까, 대대장동지가 무척 기다렸는데... 참모부에서 기사동지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온다고 하길래 쫓아놓는줄 알았더니...》

마냥 기뻐하는 순아의 목소리였다.

대대장은 굼직한 눈썹을 연신 쫓겨거리며 반가움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여느때없이 하선금을 지긋게 바라보며 서있었다.

동안이 지나서야 대대장은 앉았던 의자를 하선금에게 내주며 툭툭무레한 얼굴에 미소를 담았다.

《오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어서 여기 앉으십시오. 참, 집이 수양산부근에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저의 집을 다…》

《아, 아닙니다. 그저…》

하선금은 의아쩍은 눈길을 그에게서 떼지 못했다. 분명 무엇인가 말할듯말듯 하는 그의 언행이 별스러웠다. 대대장은 괜히 손으로 작업복을 털며 부산을 피우더니 인츰 말머리를 돌렸다.

《참, 설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제서야 하선금은 도면을 꺼놓고 간단히 설명했다.

《…이건 물길굴건설에서 첨단이라고 볼수 있는 원호형물길굴설계입니다. 이 설계대로 하면 강재 소비를 종전보다 훨씬 줄이면서도 많은 로력과 시간을 절약하며 완공기일을 앞당길수 있습니다.… 현민석연구사동지도 이 설계를 지지했습니다.》

하선금은 현민석연구사란 말에 력점을 찍어 말하였다. 그 말속에는 높은 실력으로 학계에서 인정받고있는 로연구사의 후광의 덕을 입고싶은 알곳은 마음이 은근히 숨배여있었다. 허나 그것이 어쩐지 찢찢치 못하여 그는 말끝에 살짝 얼굴을 붉혔다.

대대장은 빙긋 웃으며 도면에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시간이 펑 흘렀다. 대대장의 두툼한 입술은 빗장을 지른것처럼 열려질줄 몰랐다.

처음에는 반갑게 도면을 마주했던 그의 눈이 점차 가늘게 쪼프러지더니 이어 미간에 내 천자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한동안 지나서야 그는 무겁게 뜨직뜨직 말했다.

《이전에 현연구사가 물길굴을 첨단의 방법으로 새롭게 한다고 하길래 어안이 병병했었는데 오늘 완성된 설계를 보니 정말 놀랍습니다. 비약하는 현실이라는 의미가 새삼스럽다 할지… 현대 상부와 하부연결점인 이 기부점이 암만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구만요.》

《그 부분의 안전도 컴퓨터로 확인된겁니다.》

《앞으로 있을수 있는 자연피해도 예견되었습니까?》

《예, 그것도 고려하여 이 막돌타입구간을 기준 수치보다 0.5배의 여유를 더 주었습니다.》

《0.5배?》

우려와 걱정으로 엇갈리던 그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더 진해졌다.

그는 약간 심호흡을 하고나서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지형조건이 특별히 불리한 이 구간에서 물이 정상적으로 흐를수 있다고 봐도 일 없겠습니까?》

《?…》

하선금은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말이 나가지 않았다.

조광철대대장도 말하기 딱한듯 천막의 한곳을 응시하다가 힘들게 말을 이었다.

《…우리가 일해보니 컴퓨터로 계산된 수차도 때로는 자연의 천변만화앞에서 믿을수 없을 때가 있더군요.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해야 할 물길굴이 아닙니까. 다른 구간보다 물흐름속도가 빠른 이 구간에서 이상현상이 나타난다면…》

하선금은 물길굴의 비정상적현상들이 금시 눈앞에 펼쳐지는듯싶어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해쓱하니 질린 얼굴로 그는 겨우 말을 이었다.

《저… 너무 사태를 엄엄하게 보는건 아닙니까.…》

도면에서 눈길을 떼 대대장은 응답없이 피로운 표정으로 가설막문설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펑 낫아진 어조로 말하였다.

《저두 압니다, 기사동무가 이 설계에 얼마나 많은 품을 들이었는데… 현대 제가 생각되는건 기사동무가 우리 건설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설계했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겁니다. 우린 이 물길굴에 자기 자식과 가정에 대한 애정보다 더 큰 사랑을 바치고있습니다. 이거 안됐습니다. 우리 좀 더 깊이 연구해봅시다.》

대대장은 열적은 표정으로 말을 끝내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이윽고 하선금도 가설막을 나서서 발이 닿는대로 걸었다.

실망과 피로움이 엇갈린 대대장의 모습은 자신심으로 한껏 떠있던 하선금의 마음을 순간에 가라앉혔다. 왜서인지 그 모습은 자기를 근심어린 눈길로 바라보던 남편의 모습을 연상케 했다.

남편은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는것 같았다.

《…내가 뭐랬소, 연구사들의 설계에서 주판은 금물이라고.…》

하선금은 은근히 부아가 치밀어 그 말을 마음속으로 부정했다.

《당신은 제 일을 왜 그리 달가와하지 않아요. 최첨단의 방법으로 당신이 연구한 프락포르부속품 생산자동흐름선도 처음엔 실패가 많았다고 당신 자신이 말하지 않았어요.》

《말했지. 성공은 언제나 실패의 토양속에서 자라게 되는 법이니까. 하지만… 우린 강력한 두뇌진과 기술력량이 있어 일어설수 있지만 당신은 혼자서 무슨 힘으루…》

《저도 혼자가 아니예요. 참모부일군들, 대대장과 순아, 성태 그리고 물길굴건설자들모두가…》

속에서 거침없이 흘러나오던 그의 목소리가 별안간 푹 멎었다.

아무리 둘러보아야 그들의 모습은 모두 멀리 있고 자기 혼자서 길없는 눈판을 묵묵히 걷고있는것이다.

그는 하얀 눈우에 발자국을 큼직큼직하게 내며 걸었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마음속 향변을 멈추지 않았다.

《…당신은 변했어요. 어렵던 고난의 시기 내가

주저앉으려 할 때 일으켜주었던 당신이 아니에요. 발전소와 인연을 맺어준 당신을 전 늘 고맙게만 생각하고있는데...》

하선금에게는 발전소라는 낯설은 곳으로 자기 마음을 이끌어주던 남편의 모습이 애뜻한 상념속에 안겨왔다.

...어느 여름날, 그날도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선 하선금은 방안출입문을 열다가 깜짝 놀랐다.

발전소건설장에 지원나갔던 남편이 네활개를 쪽 찢고 누워 코를 골며 자고있는것이였다.

불쑥 결혼 첫날 남편이 하던 말이 생각키워졌다.

《어제 밤 내가 코를 세게 골았소?》

하선금은 선뜻 말을 뗄수 없어 나부시 고개를 숙였다. 방안을 흔들어놓는것 같은 그의 코고는 소리에 밤새 한잠도 못 잤던것이다.

그 심정을 헤아려본듯 남편은 얼굴이 벌겋해지며 말을 이었다.

《허 참, 내 결합 하나가 코를 세게 고는것인데 동무의 단잠을 깨울가봐 걱정이구만.》

《...》

《하지만 뭐 그것도 생각할타이요. 농장벌에 트랙토르가 없으면 어울리지 않듯이 트랙토르부속품 공장 기사인 내게 발동소리가 없으면 어떻게 부속한개라도 더 깎을 생각을 하겠소?》

《어마나, 엉터리변명을 호호...》

그렇게 생각하니 남편의 코고는 소리도 불쾌하게 들려오지 않았다. 이제는 그 코고는 소리에 아주 습관된 하선금이였다....

하선금은 천정을 흔들어놓는듯 한 남편의 코고는 소리를 들판의 경쾌한 발동소리로 들으며 아껴두었던 고사리, 더덕, 깨잎절임 등을 꺼내 손질했다. 그리고 밥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흔들어깨웠다.

《여보, 일어나 식사하세요.》

《...》

《여보!》

그때 시어머니의 말이 등뒤에서 울렸다.

《놔둬라. 발전소일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러겠니. 우리 먼저 먹겠으니 애아버지가 깨여난 다음 함께 하려무나.》

사랑과 공지를 담은 표정으로 잠든 아들을 내려다보며 하는 시어머니의 말이였다.

어느덧 밖에는 어둠이 내리고 하늘에 별들이 하나, 둘 솟기 시작했다.

크고작은 별들을 세고 또 세도 남편의 코고는 소리는 멈추어지지 않았다.

(참, 오늘 계획한 부속품은 깎고도 남았겠는데... 매일계획까지 온밤 다 깎을셈인가....)》

하선금은 물려드는 졸음을 가까스로 밀어내며 남편곁에 오도카니 앉아있었다.

새벽 두시가 넘어서야 남편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하선금은 서둘러 밥상을 차렸다.

몹시 배가 출출한듯 남편은 순갈에 밥을 듬뿍

담아 련속 입으로 가져갔다.

그 모습을 이윽히 지켜보던 하선금이 궁금한 어조로 물었다.

《발전소건설일이 그렇게 힘들어요?》

《음... 우린 좀 약과요. 청년돌격대원들에 비하면야... 당신도 밥을 드요.》

《예.》

천천히 밥을 들던 하선금이 눈을 깜박이며 다시금 물었다.

《발전소가 언제쯤 완공될것 같아요?》

《글쎄...》

《올해중으로 될것 같아요?》

《올해?... 글쎄...》

《래년쯤엔 어드래요?》

《허, 정 알고싶으면 나한테 물지만 말고 당신이 가보는게 어떻소?》

《예?》

《내가 발전소건설장에서 오면 당신은 매번 묻곤 하는데 대답할수 없는게 참 유감이구만.》

《참, 당신두... 저야 가정부인이 아니에요.》

《허허, 그래두 전기가 오면 나보다 당신이 더 기뻐하더구만... 한번 가보오. 나도 갈적마다 마음이 새로와지는게...》

하선금은 말없이 수저만 움직이였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말했다.

(여보, 저도 가보고싶어요. 하지만 아이들과 가정이...)

그는 연추처럼 매달리는 여러가지 생각들을 간종그리며 남편의 리해를 받으려 했다.

하지만 온 도가 발전소건설지원열풍으로 뿔어번질 때는 마침내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건설장으로 나갔다.

건설장은 말그대로 하나의 격전장을 방불케 했다.

눈에 확 뜨이는 건설장입구의 한 속보판에 눈길을 주던 하선금은 깜짝 놀랐다.

속보판에는 자기에게 하던 남편의 말이 활달한 붓글씨로 대문짝같이 씌여져있는것이였다.

《물지 말고 와보시라!》

어쩐지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는듯싶었다.

그러니 남편도 저 속보판앞에서 마음을 가다듬으며 지원의 길을 걸어온건 아닐가.

그는 새로운 눈길로 발전소건설장을 둘러보았다.

협곡을 쪽 가로질러간 사석언제, 기초건설에 열을 올리는 발전기설, 웅벽공사와 집수정, 방수로 건설장마다에서 풍겨오는 사회주의경쟁의 열띤 분위기, 어디를 둘러보아도 강성국가를 향하여 줄달음치는 시대의 벽찬 분위기를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현실은 하선금의 흥벽을 세차게 두드렸다. 그리고 지나온 생활을 돌이켜보게 했다.

고난의 시기에도 떠나지 않은 일터, 제기된 설계과제를 책임적으로 해온 하루하루, 창가에서 흘러나오는 애들의 웃음소리, 그것이면 하선금은 가



정과 이 땅에 바쳐가는 자기의 사랑이 족하고 땀땀하다고 자부하고있었다. 그리고 제판의 리해와 궁지속에 살기도 하고...

허나 들끓는 건설장은 자기에게 많은것을 묻고 있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인민이 지금 무엇을 절실히 기다리고있는가. 발전소의 완공을 묻기만 하며 살아온 그 마음속에 과연 이 땅에 대한 사랑이 가득차있다고 땀땀이 말할수 있는가.

그 물음에 하선금은 한마디 말도 할수 없었다. 그저 뒤늦게야 건설장을 찾아온 자신이 민망스럽기 그지없었다.

(내가 너무 자기만을...)

숙취의 마음을 담아 그는 맞돌이에 버력을 무드기 담고 뛰여다녔다.

그때 가까이에 있는 발전기실전투장에서 웅성이는 소리가 났다.

얼핏 돌아보니 건설자 몇명이 한사람을 둘러싸고 심경을 하고있었다.

《가만 가만, 대대장동지, 그렇게 하면 발이 상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장화에서 발이 빠지지 않는지 대대장이란 사람은 선채로 어무적거리고 청년들은 장화를 벗기려고 역사질을 하고있었다.

《차, 이런... 비켜. 어떻게 발을 뽐는다고 그래. 장화는 폐기하고 발은 구원한다. 이렇게, 이렇게...》

다부진 몸매의 청년이 겹싸게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여 장화목을 몽땅몽땅 베여냈다.

너털너털한 장화가 발에서 완전히 떨어지자 청년이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다.

《대거... 대대장동지, 이거 발이 세배로 불어나지 않았습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청년이 숨을 들이키며 눈을 크게 폈다.

오랜 시간 혼합물속에 서있느라니 발이 끔찍하게 불어났다. 상처자리도 있었다. 그런데도 대대장은 혼연히 웃고있었다.

《에, 시원하다. 부럽소?... 걱정말라구. 이제 발전소가 완공되면 성채동무 발도 전기덕에 더 살찌지 않으리. 그대신 오늘 폐기해치운 내 장화 보상해야 되오, 하하하...》

대대장을 따라 청년들도 시원하게 웃어댔다.

하지만 하선금은 웃을수 없었다.

그들은 자기와 다른 세계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이었다.

그것은 책임과 의무감을 벗어난, 피와 땀, 생명을 바쳐서라도 사랑의 창조물을 기어이 안아올 보다 크고 뜨거운 진정과 헌신의 세계라고 할가...

하선금은 발을 벗은채로 어깨걸고 조심조심 걸어가는 그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리고 자기의 편리화를 벗어주며 말했다.

《이 신이라도 신고 가세요. 발과조각들이 많아서 발이 또 상하면...》

하선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곁에서 함께 가던 처녀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우리 대대장동진... 저 건설자들은 신발을 신지 못합니다. 매번 발이 저렇게...》

가까이에서 눈여겨보니 그들의 발은 불어난 상태만이 아니라 피가 내뻗 상처투성이였다.

하선금은 가슴이 쓰리고 저려들어 그들이 섰던 곳에 오래도록 서있었다.

발전소건설과 이렇게 인연을 맺고 조광철대대장과 이렇게 알게 된 선금이었다. 그 정을 잊을수 없어 그들의 헌신에 받들려 원호형물길굴설계를 맡아안았는데 남편은 자기를 못 미더워하고 대대장은 자기의 설계를 실통해하지 않고있다.

그는 한숨을 호- 하고 내그었다.

(역시 난 현민석연구사의 조수에 불과하다는 의미가 아닐가...)

숙소에 돌아와 혼자서 생각에 골몰해있던 하선금은 대대장의 의견을 되새겨보았다.

기준수치보다 힘을 더해준 막돌타입구간, 자연의 광란속에서도 만년대계로 끄떡없어야 할 물길굴.

설계도를 펴놓고 기부점의 선과 점을 하나하나 훑어가던 그는 순간에 무릎을 쳤다.

(그래, 기부점 하부구조에 0.5배가 아니라 세배의 힘을 주자. 그러면 그 어떤 광란에도...)

그는 기초설계를 작성하며 밤을 밝혔다.

가설막안에서 대대장의 가차없는 충고를 목격한 순아도 자기 일을 하는 째시간에 자료들을 컴퓨터로 종합분석하여서는 새벽녘에야 잠간 눈을 붙이곤 하는 하선금의 머리말에 놓아주곤 하였다.

깨알같이 적어넣은 현민석연구사의 《현실요해수첩》도 연구하여 적지 않은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게 애쓴 보람으로 원호형물길굴설계는 새로 보장되고 참모부에 제출되어 기술일군들의 협의회가 열렸다.

회의실 뒤쪽에 조심히 앉은 하선금은 마음을 조이며 의견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확실히 이 설계에는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많은 강재를 요구하던 부분에 막돌타입을 하도록 한것이라든가, 물길굴천정을 부채형단번치기공법으로 설계한것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물길굴의 중량화법을 경량화법으로 끌어올린 기술적론증들은 건설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일수 있는 대단한 예비를 마련한셈입니다.》

설계에 대한 좋은 반영들뿐이었다.

수첩에 원주필로 그들의 말을 간단히 적어가던 하선금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무렵 출입문옆에 앉아있던 조광철대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장내를 잠시 둘러보다가 울대를 움직여 칩을 끌럭 삼키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설계는 많은 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설계에 좀더 보충할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갑자기 장내가 술렁거렸다.

하선금은 대뜸 긴장하여 두 어깨를 세웠다.

주위가 조용해지기를 기다리던 대대장이 거침없이 말을 이었다.

《여기 모인 동지들중에는 자식들을 거느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 부모들의 품에서 크게 됩니다. 다 자란 다음에는 늙은 부모들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구요.》

협의회안건과 관계없는듯 한 말이 흘러나오자 사람들의 긴장했던 안색들이 느슨하게 풀어지기 시작했다. 웃음을 띄우는 축들도 있었다.

《세월은 이렇게 젊은 세대와 늙은 세대의 교차속에서 흘러갑니다. 하지만 물길은 그런 교차를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 땅에 건설해놓은 다음에는 물길은 영원히 젊은 나이로 언제의 물을 안고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물길굴의 채구는 보다 억세고 보다 튼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의 설계기부점은 만년대계의 담보를 안고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또 기부점인가?

하선금은 저도 모르게 부아가 났다. 과학적담보를 받쳐가며 애써 보강한 설계를 참모부일군도 아닌 현장일군이 부정한다는것이 하선금의 참을성을 심히 자극했던것이다. 그는 불만스러운 심정으로 무엇인가 항변하려 했다.

그 순간 현민석연구사의 말이 그의 뇌리를 쳤다.

《...조광철대대장은 우리 설계가들의 믿음직한 평자라고 할수 있는 사람ियो.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실력과 다년간의 현장경험이 그를 무시할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할가. 어쨌든 하기사도 그의 의견을 심중히 대하오.》

언젠가 물길굴의 경량화공법이 물망에 올랐을 때 제일먼저 의견을 내놓는 사람이 조광철대대장이어서 하선금이 반박하려들자 현민석연구사가 하던 말이였다. 그러니 그의 말은 지금도 무시할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고있었다.

허나 하선금의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얼핏 그의 눈앞에는 가설막에서 만났을 때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던 대대장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분명 자기에게 무엇인가 말하려고 했다. 혹시 원호형물길굴설계에 대한 확고한 담보를 하선금 자기에게서 기대할수 없어 애초에 그만둘것을 권고하고싶었던건 아닐가?

그렇수도 있었다. 평시에도 그는 무슨 문제가 제기되면 하선금보다 현민석연구사를 많이 찾았던것이다.

하선금의 마음속에 은근히 야심이 살아났다. 그

는 기어이 자기 손으로 원호형물길굴설계를 완성하여 그앞에 보란듯이 내놓으리라 생각했다.

숙소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다시 도면을 들여다 보았다. 건설자들은 결국 이 정도로 기부점을 보강한다 해도 만년대계의 질을 담보할수 없다는것이다. 그렇다면 그 허점은 무엇일가.

다른 곳보다 든든치 못한 암질을 가진 스구간의 특이한 지형조건 그리고 앞으로 예견될 여러가지 자연조건들, 그것은 하선금의 설계를 대대장보다 더 신랄히 부정하고있었다.

그날 밤 선금은 현민석연구사에 대한 생각을 떠올렸다.

(연구사동지! 조광철대대장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수 있을까요? 연구사동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민석연구사는 빙그레 웃어주었다.

(선금동무! 나한테 오오. 나와 지혜를 합쳐보지요.)

다음날 선금은 도인민병원에 있는 현연구사를 찾아 떠났다.

《...외람된 행동인줄 알면서도 너무 안타까와 이렇게...》

현민석연구사는 병색이 짙은 얼굴이었지만 정기로 눈을 빛내이며 미안해하는 선금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잘 왔소. 그렇지 않아도 발전소일이 몹시 궁급했었는데...》

하선금은 괴롭던 마음을 꾸밈없이 터놓았다.

그의 고충을 주의깊게 듣고있던 현민석연구사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하선금의 손을 꼭 잡았다.

《기부점의 수평과 수직관계를 깊이 연구해보오.》

《수평과 수직?...》

《그렇소. 언젠가 우리 로친이 창고에 당반을 만들어달래기에 잔뜩 올려놓는데 습관된 로친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리를 든든하게 해주었더니 40년이 지난 오늘도 끄떡없소. 그러니 기부점 하부구조에 과학적무계만이 아닌 천만년의 자연적무계를 실어도 끄떡없을 그런 담보를 준다면...》

하선금은 무엇인가 평곳 뇌리에 떠오르는것 같아 《아!...》하고 소리냈다.

하부구조의 기부끝점에 과학적담보만 준다면 그것은 만년 드눌지 않을 영원성을 가져다줄것이다.

선금은 학생처럼 현민석연구사에게 꾸벅 머리숙여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연구사동지.》

《고맙긴. 선금동무! 자, 앉아서 이결 하나 드오.》

현민석은 옆에 놓여있던 사과를 한알 집어들더니 퍽퍽스레 수건으로 닦아 그에게 쥐여주었다.

《힘들지? 동문 고맙다고 하지만 난 정말 동무에게 미안하오. 동무가 할수 있다고 보증은 썼지

만 선배라는 사람이 아무런 보탬도 주지 못하고 이렇게 제일 요긴한 때에 침대에 누워있으니 정말 먼목이 없소.»

선금은 가슴이 뜨거워울랐다.

《연구사동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딱 막혔을 때 찾아갈수 있는분이 있다고만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절 믿고 추천해주신 연구사동지의 기대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허허, 선금동무야 소문난 이악쟁이가 아니요. 동문 능력이 있소. 그리고 조광철동무와 힘을 합쳐보오.》

연구사의 마지막말에 선금은 투정비슷하게 반박했다.

《음—그 대대장동진 절 시답지 않게 보는것 같습니다.》

현민석은 펄쩍 뛰듯이 하며 《원, 무슨 소리… 현장측에서는 그 대대장동무가 동물 보내달라고 제기했다던데?!》하고 의미심장하게 말을 뱉었다.

《예?!》

선금은 영문을 알수 없는 표정으로 현민석을 바라보았다.

×

그날중으로 선금은 건설현장의 큰집에 도착했다. 때맞춤하여 이동작업 나갔던 순아도 들어섰다. 선금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새 앓지 않았니?... 네가 없으니 우리 〈큰집〉이 텅 빈것 같더구나.》

《기사동지도 수고많았습니다.》

순아는 의례적인 인사말만 건네고는 말없이 손발을 씻었다. 얼굴빛이 그리 좋지 못했다.

하선금은 그가 힘들고 피로하여 그런것이라고 생각하며 제격 저녁상을 차렸다.

《밥먹자, 이 조기반찬은 대대장동지가 보낸 거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찬인데 어서 들어라.》

《...》

순아는 말없이 밥만 떠넣었다.

하선금은 의아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니?》

《아무것도 아니예요.》

여느때 없는 차거운 표정, 이전에는 볼수 없던 침묵.

하선금은 뭔가 마음에 짊어는게 있어 얼른 일어나 창턱우에 놓인 나무함을 열었다.

함안에는 닭은콩주머니가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알세라 모를세라 성태에게로 가던 닭은콩주머니가 가득 담겨있는것을 봐서 순아의 열뜰 마음이 식어진게 분명했다.

하선금은 일에만 다몰려 순아에게 관심이 부족했던 자신을 탓하며 그에게 다우쳐물었다.

《성태동무와 무슨 일이 있었니?》

《...》

《그 동무가 너를 노엽힌게로구나.》

《...》

순아는 머리를 소곳이 숙이고 아무 말도 없었다. 하선금의 거들되는 재촉을 받고서야 곱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토달대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전 그 동무와 대상하지 않겠어요. 암만 봐야 리상이 맞지 않으니...》

《음?...》

하선금은 깜짝 놀랐다.

그게 무슨 아이들 장난이라고 이랬다저랬다 한담. 새삼스레 리상은 또 뭐고.

하선금이 생각을 정돈할 사이없이 순아는 웅어리진 감정을 연줄연줄 터놓았다.

...순아는 어느날 저녁 건설장주변의 제일 큰 참나무밑으로 달려갔다.

어둠이 깃들기 시작한 참나무밑에서는 광성태가 두손가락들을 깎지꼈다하며 오락가락하고있었다.

그에게로 뛰어가며 순아가 할딱거렸다.

《아이 숨차라, 오래 기다렸어요?》

《그저 좀...》

《오늘처럼 바쁜 때 왜 만나자고 했어요?》

《음, 우리 중대가 다리건설에 쓸 목재구입으로 수리개골로 갓었는데 글썄 왕밤들이 송이채로 땅에 묻혀있지 않겠소... 이것 보오. 울감자알만 한 것도 있소. 자...》

《어마나, 이 여름에 어떻게...》

순아는 밤을 한웅큼 받아쥐고 아이처럼 기빠했다. 그러더니 문득 작업복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나도 동무에게 줄게 있어요.》하고 말했다.

광성태는 궁금스러운듯 순아쪽으로 웃음을 기울였다.

《뭘데?...》

《자요.》

그것은 닭은콩을 넣은 주머니였다.

광성태는 멋적어하며 그것을 받아들였다.

《나한테 아직 있는데...》

《이건 다른 콩이에요.》

《다른 콩?... 이전과 꼭 같은데?》

《아이참,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전에 제가 주던 콩에는 동무의 한마장단소리가 더 높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동무가 늘 사색하고 지혜를 키우길 바라서...》

《지혜를?》

성태는 영문을 몰라 아까보다 눈을 더 크게 뜨며 물었다. 그러자 순아는 몸을 반쯤 돌리며 새초롬한 어조로 말했다.

《시치미를 떼지 말아요. 대대장동지가 돌격대원들에게 우리 기사동지의 설계에 보탬줄 좋은 안을 한가지씩 내놓으라고 과업준결 내가 모르는

줄 아세요.》

《오, 난 또… 하지만 그건 안되겠소.》

《왜요?》

《함마를 몇백개 더 치라면 자신있지만 생각하는것만은 아직…》

《아이참, 동무두… 참엔 모두들 그렇게 힘들어해요, 머리가 아프구… 하지만 계속 사색하느라면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동문 앞으로 대학공부도 해야 하잖아요.》

《흠, 대학이 다 뭐요. 나같은 머리론 어렵도 없소.》

순아는 실망하여 눈길을 떨구었다. 그의 손에서 밤알이 툭툭 풀썩에 떨어졌다.

침묵, 침묵…

순아는 안타까운 어조로 침묵을 깨뜨렸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해요?》

《글쎄… 나야 그저 이 넘치는 힘을 바치는것밖에…》

순아는 다리가 매시시하여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곽성태는 허리를 굽혀 순아를 일으키려 했다.

《어디 아프오?》

순아는 그를 확 밀쳐버렸다. 그리고 혼자 발딱 일어난 그는 성태를 차갑게 바라보다가 내쫓듯 말했다.

《싱겁둥이! 동무가 푸른 하늘을 안고 사는줄 알았었는데 고작 암닭의 리상이군요. 좋아요. 동무에게 하나 부탁하자요. 앞으로 동문 손에서 절대로 함마를 놓지 마세요. 그리고 대대로 자식들에게 꼭 물려주길 바래요.》

달빛이 흐르는 참나무밑에서 순아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총총히 사라져버렸다....

선금은 순아의 토라진 마음이 심분 이해되었다.

지금이야 어느 시대인데, 지금이야 어떤 때인데...

모르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고 날수도 없는 현시대에 대학공부마저 포기하고 배움에 대한 의욕을 갖고있지 않는 그가 리상이 한껏 높은 순아의 눈에 찰리 만무했다. 하지만 하선금은 성태가 아니라 순아를 나무람하고싶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멀리 건설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하였다.

《순아, 우리가 처음 이 집에 살림을 뒀을 때 저 앞은 무연한 벌과 산뿐이었지. 그런데 지금은 큰 배도 지나갈수 있는 큰 물길이 생겨났어.

이 물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창조물을 일떠세울수 있겠니?》

《...》

《...전호가에서 총대를 사랑하던 성태동무가 과학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아마 나나 너, 현민석연구사 못지 않은 지식의 힘을 발휘할지 몰라.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네가 바쳐온게 뭐냐?... 그런데도 뭐 결별한다구?... 절로 찾아든 사랑은

쉽게 사라질수 있지만 품들여 가꾼 사랑은 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걸 잊지 말어.》

하선금은 자기가 하는 그 말이 어쩐지 순아에게가 아니라 자기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공명되어 들려오는것이 이상했다.

그랬다. 자기 역시 이 물길굴과 설계와 발전소에 자기를 바치며 사랑한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랑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자기의 실력을 못 미더워하는 남편, 자기의 설계를 부정하는 대대장, 설계의 요구에 대답을 주지 못하는 자기의 두뇌...

무겁게 갈마드는 생각을 털어버리고싶어 선금은 움쭉 일어나 3호물길굴공사장으로 향했다.

장마철전으로 물길굴공사를 완공할 목표를 세운 3호물길굴건설장은 죽가마 뿔듯 했다.

쉽없이 솟구치는 물, 배수관으로 편속 물을 뽑는 양수기, 진버력을 무겁게 나르는 광차, 현장을 들었다놓는 착암기소리, 발파소리...

물길굴의 기술적요구를 확인해가던 하선금은 어느 한 굴벽밑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아무리 재빠야 기준수치를 넘어선것이다.

(암반 한조각을 깨내자 해도 힘든 일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깊이 들어갔을가.)

주위를 둘러보니 멀지 않은 곳에서 대대장이 전기공사를 하고있었다. 협의회때의 일이 떠올라 마음이 주춤거렸다.

한편 현민석의 말도 떠올랐다. 《현장측에서는 그 대대장동무가 동물 보내달라고 제기했다던데?!...》

선금은 머리를 갸웃하고 한동안 서있었다.

(어째서 저 대대장은 날 보내달라고 했을가? 나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나에 대해 어떤 파악을 하고있을가, 도대체...)

하지만 선금은 자기의 설계안에 보충할 혁신적인 안을 하나씩 내놓으라고 대원들에게 명령했다는 대대장에 대한 고마운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이 가무리며 그에게 다가갔다.

《저... 대대장동지!》

《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접이자를 쥐고 선 선금을 보아선지 무슨 오차라도 나타났는가 걱정하는 어조였다.

그때문에 선금은 될수록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저... 다른건 아니구... 스구간의 밑부분이 좀 넓어졌습니다. 어느 조에서 굴착한것입니까.》

대대장은 굵직한 눈썹을 꿈틀 움직이더니 《성태동무조에서 한거로구만.》 하고 말했다.

곽성태의 조는 낮교대여서 숙소에서 쉬고있었다.

하선금은 숙소로 도착하자 취사원에게 물었다.

《취사원동무, 성태동무 못 봤어요?》

《저... 지금 어디 나갔습니다.》

《어디?》

《저… 강에 나갔는데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면서…》

하선금은 곧장 강가로 나갔다.

자갈밭이 쭉 깔린 강기슭을 따라 한참 올라가느라니 어둠속에서 전지불을 켜들고 오르락내리락하는 광성태의 모습이 보였다.

절버덕 절버덕…

고기잡이에 여념이 없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느라니 하선금은 크게 실망하게 됨을 어쩔수 없었다.

도대체 저 동무에겐 이런 취미밖에 없는걸까. 여기에 바치는 시간과 노력을 책을 읽고 사색하는데 바친다면 얼마나 더 좋을가.

문득 순아가 하던 말이 생각키워졌다.

《기사동지, 저의 꿈은 앞으로 저 푸른 하늘처럼 넓은 과학의 세계를 제 품에 한껏 안아보는 것입니다. 제힘이 모자라면 저의 길동무와 함께, 그것도 모자라면 자식들의 힘까지 합쳐서…》

그렇게 높은 순아의 세계에 고기잡이나 좋아해가지고는 광성태란 존재가 자리잡을수가 없겠는데…

하선금은 광성태가 나오기를 인내성있게 기다렸다. 아픈 말을 해주지 않고서는 건딜수 없었던 것이다.

퍼그나 시간이 흘렀을무렵에야 광성태는 물에서 나오며 먼데서부터 큰소리로 웨쳤다.

《취사원동무, 벌써 나왔소?… 오늘은 정말 소득이 팬찮소.》

뛰여오던 광성태는 머리에 동여맨 전지불에 하선금의 모습을 띄여보고는 자리에 굳어졌다.

《아니, 기사동지가?…》

《…》

《이밤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무를 꼭 만나고싶어서요.》

《무슨 일이라도?…》

《예, 사고심의해야 할 문제가 생겼어요.》

《예?!》

얼마나 놀랐는지 광성태는 손에 들고 있던 그물 속의 고기가 빠져 자갈밭에 떨어지는것도 몰랐다.

하선금은 등허리가 꺼뒀한 물고기를 두손으로 집어 강물에 놓아주었다.

《아니? 기사동지! 그건…》

광성태는 필쩍 놀랐으나 선금은 눈을 내리깔고 땀만 어조로 말했다.

《안됐어요, 동무가 애써 잡은 고기인데… 하지만 그 물고기는 자기가 가야 할 곳을 갔어요. 고기야 물을 떠나 못살지 않아요.》

《…》

광성태는 말없이 숨소리만 높였다.

하선금의 격한 어조는 끊기지 않았다.

《온 건실장이 물길굴때문에 뛰여다니고 사색하고 고심하는데 동무는 이렇게 밤물고기사냥에 여념이 없는걸 보니 물고기보다도 못한것 같군요.》

물고기는 그래도 떠나선 못살 물이 있지만 동무에겐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몸담글 세계라는것이 도대체 있어요? 그저 독힘으로나 해볼 함마에게나 정을 들이지… 정신차려요. 그러다 치녀도 없고 인생도 망그러질수 있다는걸 명심해요.》

물고기를 놔줄 때부터 락심천만하여 서있던 성태는 하선금의 땀만 말에 의견이 있는지 핵 머리를 돌려 선금을 마주보았다. 그리고는 맛가지 않은 말투로 말하기 시작했다.

《전 기사동지가 사고심의를 해도, 처벌을 줘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품들여 잡았던 물고기만은 다시 잡아오십시오. 그게 어떤 물고기인지 아십니까? 대대장동지가 기사동지의 건강을 걱정하길래 우리 돌격대원들이 의논하고 저에게 준 분공이었는데… 너무합니다.》

하선금은 순간에 굳어졌다.

(그럼 나때문에?…)

격한 광성태의 목소리는 하선금의 가슴에 그대로 차분히 젖어들었다.

《기사동진 너무합니다. 현민석연구사동지도 연구에만 파묻혀서 제 몸걱정은 아예 하지 않다가 쓰러졌는데… 기사동지까지 그렇게 몸을 혹사하면 우린 어떡하렵니까. 기사동지의 일이란게 누구나 대신할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대대장동지가 그토록 걱정하는데… 정말 섭섭합니다.》

광성태의 말은 하선금의 마음을 아프게 자극했다. 눈곱이 따라와졌다. 하선금은 그의 장알진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성태동무! 고마워요. 그러나 내 걱정은 말아요. 동무들은 나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하며 오늘에 오지 않았어요. 난 동무가 오늘같은 시간이 있으면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더 많이 배우기 위해 노력했으면 해요. 순아가 바라는것도 바로 그거구요.》

선금이 돌아서는데 등뒤에서 광성태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기사동지, 제가 깜박 잊을번 했는데… 이걸 좀 봐주십시오.》

성태는 네겹으로 접은 보풀진 종이를 주머니에서 꺼내주었다.

《이건 뭐예요?》

《저… 우리 동무들과 토의하고 그려본 도안입니다.》

전지불을 비치며 성태의 도안을 훑어보던 하선금은 한순간 자기 눈을 의심했다.

아이들의 그림 비슷한 도안에는 굴밑부분을 넓게 하고 그 타당성을 줄수 있는 계산법들이 알기 쉽게 적혀있었다. 복잡한 물이과제를 광성태가 해냈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여 하선금은 도안을 살펴보고 또 보았다.

불수록 그것은 원호형물길굴설계를 수평으로가 아니라 수직으로 굴벽체의 밑부분을 보다 강

화할수 있게 보장할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었다. 이것을 기초로 프로그램을 다시 짜고 모의시험을 한다면...

하선금은 흥분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의 손을 짹 잡았다.

《그래서 굴착부분을 넓혔구만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어요?》

《그건 우리 대대장동지가 밥을 굶긴 덕입니다.》

《굶기다니요?》

《글쎄 기사동지의 설계에 도움줄 착상을 한건도 내놓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왔을 때 대대장동진 저희들의 밥을 싸가지고나와 우릴 타일렀습니다.》

《동무들, 밥을 굶어보니 어땠소?... 명심하십시오. 여기서 암반이나 까내구 흙 몇삽 뚫었다고 해서 사랑의 창조물을 남겼다고 뽐뽐이 말할수 없다는 걸 말ियो. 우리가 건설하는 발전소를 명실공히 우리의 창조물이라고 말할수 있자면 로력뿐아니라 지혜도 아낌없이 바쳐야 해. 지금 이 물길굴을 만년대계로 건설하자고 기사동무가 모지름쓰고있는데 그 어려운 길을 기사동무 혼자서 가라고 하다니... 안될 말이야. 우린 남들이 뭘 때 날아야 하고 남들이 날면 최속으로 날아서 인민들을 보란듯이 잘살게 해야 해. 그러자면 최첨단기술의 주인이 기사동무뿐아니라 동무들도 되여야 한다 그 말ियो.》

그 말을 듣고서야 우린 자신들을 뉘우치게 되었고 이런 방도도 찾게 되었답니다.》

그날 저녁 하선금은 잠을 이룰수 없었다. 용기가 막 샘솟는것 같았다.

그날 밤부터 선금은 몇밤을 새워도 힘든줄을 몰랐다. 현민석연구사의 착상과 돌격대원들의 착안은 그대로 선금의 설계를 완성하는 밑바탕으로 되었다. 원호형물길굴설계는 려단참모부에서 비준되어 시험에 들어가게 되었다.

×

이른새벽 뜻밖에도 순아가 큰집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배낭에서 무선전화기를 꺼내 선금에게 내밀며 말했다.

《련합참모부에서 보내는거예요. 나도 시험에 참가시켜달라고 제기했어요.》

《그래.》

선금은 순아를 오래동안 바라보았다. 걱정이 앞섰다. 좋은 결과만을 기대할수 없는 시험장에 앞날이 창창한 순아를 세우고싶지 않았던것이다.

방안을 오락가락하던 하선금은 깜짝 놀라며 순아에게 말했다.

《이걸 어찌니. 순아, 려단에서 시험일지를 못

가져왔구나.》

《제가 갖다올가요?》

《음, 좀 수고해주렴.》

순아는 주저없이 신발을 신자마자 려단쪽으로 뛰어갔다. 마당가에서 그의 뒤모습을 점도록 바라보던 하선금은 곁에 있는 통나무토막자에 조용히 앉았다. 시험에 대한 걱정으로 심장이 불안스레 뛰고있었다.

그무렵 마당가에 조광철대대장이 나타났다.

《기사동무, 시험준비가 다 끝났소.》

《수고했습니다. 이 무선전화기를 가지고 가십시오.》

《이진?》

《대대장동진 물길굴우에서 지휘하고 전 아래에서 실태를 관찰하겠습니다.》

《알겠소.》

대대장은 명령받은 병사마냥 자세를 곧바로 가지며 어느때없이 엄숙히 대답했다. 그리고 몇걸음 걸어내려가던 그는 무엇이 안심치 않은지 다시 되돌아왔다.

《기사동무, 한가지 부탁이 있는데...》

시험을 앞두고 하는 부탁이라는 말에 하선금은 긴장해졌다.

《뭘데요?》

《어떤 경우에도 물길굴안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

《이진 우리 돌격대원들의 부탁입니다. 만약 들어가는 경우 전 시험을 중지하겠습니다.》

선금은 온몸이 저릿해져 입술을 깨물었다. 자기의 일신상문제는 밀어놓고 한 기술자의 가정생활을 먼저 걱정해주는 그의 진정앞에 그만 눈시울이 파가와지며 눈물이 고여오르는상싶었다.

그는 눈가에 고이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머리를 약간 숙이며 《알겠습니다.》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대대장이 사라진 다음 얼마 있다가 전지불을 켜들고 시험물길굴안으로 들어갔다. 물길굴안은 조용했다. 축축한 습기가 얼굴에 닿고 타입된 세멘트의 알싸한 냄새가 바람결에 실려왔다.

하선금은 굴의 초기상태를 수첩에 하나하나 적으며 앞으로 한걸음씩 전진했다.

한초, 한초...

손에 땀을 쥐고 천정에 맺힌 한방울의 물도 놓치지 않고 적어가던 하선금은 서너걸음앞에 두억시니같은 형체를 알아보자 화들짝 놀라 굳어졌다.

《누구예요?》

《이릴줄 알았다니까... 어서 나갑시다.》

뜻밖에도 대대장이었다. 먼저 들어와있었던 모양이었다. 대대장은 무작정 다가와 하선금의 손을 잡아끌었다. 어망결에 따라가던 하선금은 힘껏 자기의 손을 잡아뗐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대대장동지, 전 시험과정을 지켜봐야 할 설계

가입니다. 그러니 저의 립장을...》

《우리도 같이 책임진다는걸 잊었습니까.》

대대장은 더 힘껏 선금의 팔을 부여잡고 굴박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선금의 눈을 주의깊게 들여다보며 말했다.

《기사동무! 동무의 설계는 우리가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자기 신발을 벗어주던 그 사랑을 보고 우린 기사동무의 됃됨이를 벌써 알았습니다. 그 믿음이 커서 우린 현연구사동지가 쓰러졌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선금기사동무를 설계가로 요구했던겁니다.

그런데 이 마당에서 자신과 우리 돌격대원들을 정녕 못 믿겠다는겁니까?

우린 기사동무 믿습니다. 동무의 설계와 우리 창안으로 건설된 이 물길굴은 더더욱 믿구요. 그러니 마음놓고 여기 굴박에 있으시오.》

그리고는 선금에게서 수첩을 뺏아들고 성큼성큼 굴안으로 들어갔다.

크나큰 격동이 선금의 온몸을 휘잡아돌리는것 같았다. 아! 그래서... 그래서...

선금은 다우쳐 대대장의 뒤를 따라갔다.

《함께 가요, 대대장동지!》

×

시험은 성공적이였다.

굴박에 나오니 해빛이 눈아프게, 따갑게 확 안겨들었다.

《기사동지!》

순아가 팔에 동동 매달린다.

《기사동진 너무해요. 날 짝 빼돌리구, 음...》

곱게 눈을 빠는 순아의 뒤에서 성태며 돌격대원들이 우르르 선금을 에워쌌다.

《기사동지!》

《대대장동지!》

누군가 무척 귀에 익은 목소리가 대대장을 찾는 바람에 선금은 대원들의 포옹에서 빠져나와 머리를 돌렸다.

《아니, 이게 누구요? 철진이!》

뜻밖에도 꿈처럼 남편이 나타나 대대장과 열싸 부둥켜안는것이 아닌가.

《분대장동지! 고맙습니다. 전 사실 우리 집 사람이 원호형물길굴설계를 꽤 완성할수 있을가 하구 많이 걱정했더랬습니다.》

남편의 말이였다.

《아니, 괜한 걱정을 했소. 선금동무는 정말 좋은 녀성이더구만. 이악하구 열정적이구...》

《분대장동진 우리 두사람의 분대장이나 같습니다.》

아니?!

눈을 휘둥그래 뜨고 자기들을 바라보는 선금을 즐겁게 마주보며 남편과 대대장은 한껏 웃고있었다.

《여보! 수고 많았소. 인사하오. 군사복무시절 나의 분대장동지요.》

《예?!》

선금은 그제야 모든것이 석연해졌다. 무엇인가 이야기할듯말듯하던 대대장의 바재이던 거동이며 엄격해지려 애쓰며 높게 제기하던 설계수정안이며...

군사복무시절 맺어진 그들의 우정은 분대장 조광철이 제대된 후에도 이어지다가 남편이 발전소 건설장에 지원나왔던 어느날 다시 반갑게 상봉했다고 한다.

선금은 남편의 등을 팡 쳤다.

《결국은 둘이서 날 청맹파니로 만들었됐군요.》

하-하

즐거운 웃음이 두 사나이의 입에서 터져나와 산허리에 메아리로 부딪쳐갔다.

그때 순아가 다가와 선금의 팔을 툭 쳤다.

《기사동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요?》

《글쎄 대대장동지가 자기 친구의 아들 생일이라며 옷을 가져다주라고 저에게 부탁했는데 저 사람이 위성이 아버지라고 하니...》

《그래, 난 위성의 어머니구...》

《예?》

순아는 너무도 놀라 동실한 눈이 금시 밖으로 튀어나올듯 했다.

그 모습을 보며 선금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순아도 사연을 깨달았는지 선금의 가슴에 종주먹을 안기며 웃었다.

×

2호발전소준공식이 끝났다.

발전기의 고르로운 동음소리, 동음소리...

까치봉의 큰집은 이미 형체도 없어졌다.

하지만 선금은 그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서있었다.

남편이 그에게 다가와 아쉬운 어조로 말했다.

《여보, 당신 그 큰집을 배경으로 사진 한장 남길걸 그러지 않았소?》

《그래요. 섭섭하군요. 하지만 기억속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거예요.》

남편이 넋지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시를 읊듯 말하기 시작했다.

《까치봉에 깃을 뿔던 산비둘기

어망창하니 마음도 쾜는가

드넓은 산야로 억세게 날개짓하누나》

《아이참, 당신 이제라도 시인으로 방향전환하는게 어때요?》

하하...

두사람의 즐거운 웃음이 창창한 물흐름을 타고 대지로, 대지로 구울러가고있었다.

# 미 캐 에 로

## 조 광 철

홍남비료다!...

나서 처음 비료를 만져보는 사람처럼  
덥석 쥐어보는 이 시각  
목매여라 어이하여 이 한마디밖에는  
더 다른 말을 못 찾는것인가

비료보다 더 많은 말 할것 같더니  
언 땅을 까내고 세운 가스발생로  
그밑에 동이로 쏘던 땀에 대해  
물동량과 함께 올라오던 당보  
그리운 어버이장군님의 소식에 대해

합성탑... 세척탑...  
용접의 섬광과 나뭇기던 기발들  
숫구치던 벽체와 경쟁도표들에 대해  
서둘러 젖먹이를 내려놓은 잔등에  
질통을 지고 달린 안해들에 대해

나는 모른다 어찌하여  
이 말밖에 다른 말을 못 찾는것인지  
나는 다만 이 말로부터 새로이 펼쳐질  
다가올 래일 그 래일의  
기름지고 문명한 생활속에 울릴  
아름답고 명량한 음향을 듣나니

어서 오라고 활짝 문을 연

상점을 나서는  
녀인들의 떨기진 함박꽃웃음을  
국수집에 울리는 《한그릇 더!》  
푸점종은 길손의 곱배기 청하는 소리를

나는 듣는다 눈물에 겨워  
빵이며 과일이며 사랑이며를 두손에 들고  
즐거이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어제와 오늘을 눈물에 젖어 이야기해줄  
오랜 이곳 토배기들의 진정어린 목소리를

홍남비료다!...

이 말로 하여 갑절 더 높아진  
슬기롭고 강한 민족의 자존심을 안고  
마음껏 앞날을 설계하며 마중가며  
호탕하게 터뜨리는 우리의 웃음처럼  
전야마다 흰눈처럼 뿌려갈 비료는  
내 조국의 난알더미를 한껏 떠받들어올리려니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아름답고 소중한  
오, 주체!  
성스러운 그 말의 메아리처럼  
세계앞에 당당히 웨치는 조선의 말

아, 주체비료다!...

## 사랑의 하늘 은정의 바다

## 정 두 국

하늘나라 팔선녀들 타고내렸다면  
은하수 다리런가  
은구슬 금구슬 뿌리며 내리는  
물미끄럼대여

어서 오르라 너는 나를 부르건만  
선뜻 오를수 없구나  
우리 로교수들을 위해  
수영장과 물놀이장이 한지붕을 이은  
이런 수영관이 또 있더냐

물보라 웃음보라 어우러진  
물미끄럼대 구간은 길지 않아도

홀러간 한생이 눈물겹게 안겨와  
안아보고 쓸어보는 이 마음

가슴속에 불타던 향학의 꿈을 안고  
고학의 피눈물 뿌리던 불우한 나를  
따뜻한 품에 안아 키워주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은혜로운 품

그 품에 내 삶의 닳을 내리고  
한해두해 나이 들수록  
받아안은 은정은 하늘끝에 닿았건만  
어제는 사랑의 하늘을 엮어주시고  
오늘은 은정의 바다를 안겨주시어



하늘에서 바다로 행복의 다리를 놓아주시었으니

오, 세월은 나를 싣고  
청춘에서 백발로 왔건만  
물미끄럼대여 너는 나를 싣고  
백발에서 청춘으로 가는구나

우리 장군님 또다시 찾아오시여  
청춘으로 젊어진 나의 모습 우리 모습

보시었으면  
그러면 기쁘시여 그날처럼  
환히 웃으시며 축복을 주시리니

아, 물미끄럼대여 실어가다오  
장군님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으로  
고마움의 큰절도 뜨거운 맹세도  
모두 싣고가다오

## 답 시

# 흙주머니 이야기

김 일 왕

해마다 3월이 오면  
전쟁로병 나의 아버지  
늘 자식들에게 들려주던 이야기  
내 또한 자식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  
흙주머니이야기

땅처럼 말없던 나의 아버지  
해방된 이듬해 봄날  
장군님 주신 땅을 분여받은 그날부터  
병글서 열린 입술새로  
그칠줄 모르던 《밭갈이노래》

땅이 무엇이길래  
세상도 산천도 사람도 모두 달라져  
온종일 땅을 밟고 주무르고서도  
온몸 땅에 뿌리가 되어 내리고싶은듯  
밤에도 밭머리에서 잠을 잤던가

전쟁이 터진 여름날  
마을 젊은이들 전선으로 떠날 때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배낭에 넣어주었네  
피땀으로 걸근 기름진 흙  
그 흙이 들어있는 흙주머니를

—우리 밭의 흙이다  
이 흙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거라  
그날부터 3년세월  
배낭에 간직한 그 흙은  
언제나 함께 있는 고향이었고 당부였네

고향의 흙이 들어있는  
배낭을 베고 누우면  
한겨울 눈속에서도  
갈아엮은 이랑에 감돌던 아지랑이  
온몸 후더이 덥혀주었고

배낭을 메고 포화속을 달릴 때도  
배낭속 고향의 흙은  
양지쪽 새로 지은 기와집이었고  
왈랑질랑 등글소의 방울소리였고  
《밭갈이노래》의 흥겨운 가락이었나니

장참 승리의 길을 함께 걸은 고향의 흙...  
그날은 피로 쟁취한 고지에서  
아버지는 고향과 승리의 기쁨 나누려  
품속의 흙주머니 꺼내여들었다네  
온 분대원들 바라보는 흙주머니

총탄이 뚫린 흙주머니속엔  
그 흙주머니를 채 뚫지 못한  
한알의 총탄이 박혀있었다네  
생명보다 더 귀한 조국과 고향과  
병사의 생명을 노린 원쑤의 총탄

아, 고향의 흙 그것은  
전화속을 함께 헤쳐온 고향이었고  
고향의 흙 그것은  
삶과 운명을 지켜준  
수령님 찾아주신 조국이였네

# 터 치 리 라 복 수 의 화 산 을 !

김 용 엽

용암이 끓고있다  
백두에서 한나까지 사무친 그 원한  
못 참아 이제 더는 못 참아  
온 강산이 용암으로 세차게 타끓고있다

어이 끓지 않으랴 분노의 용암이  
아버지를 잃은 자식들의 피눈물에  
어버이를 잃은 겨레의 고향에  
삶의 빛을 잃은 인류의 몸부림에  
충칼을 휘둘러댄 강패들을 두고

어이 끓지 않으랴 증오의 용암이  
아무리 남북이 갈라져있다 한들  
네놈들도 조선사람 성을 가진 생명일진대  
민족이 당한 최대의 슬픔에  
위로의 말커녕 조문의 글자들마저  
무자비하게 란도질한 그 만고대죄를 두고

대답해보라 리명박역적패당들아  
《분리대응》을 췌치던 그 악다구니질  
빠라까지 뿌려대며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건  
드린

네놈들의 그 대결광기  
과연 동족으로 인간으로 할짓인가를

겨레의 숙원이 아니더냐  
민족을 살리고  
조국을 살리는 6.15해빛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된 강산에서 세상사람 보란듯이  
화목하게 만복을 누리자는것은

우리는 보았다 추모의 그 나날  
네놈들은 분명 인간이 아니라는것을  
민족은 보았다 영결의 그 나날  
네놈들은 분명 동족이 아니라는것을  
인류는 보았다 애도의 그날  
네놈들은 분명 이 행성에서 불살라야 할  
세상 깨ռ한 쓰레기들이라는것을

네놈들은 모르리라 알수도 없으리라  
12월의 피눈물의 그 나날

우리 심장에 새긴 위대한 태양영생의 진리를  
뜻과 정으로 뭉친 령도자와 천만군민  
그 혼연일체의 위력이 어떠한것인가를  
우리의 가슴가슴에 분노로 다져지고  
복수의 화산으로 터쳐질  
그 증오가 얼마나 무서운것인가를

우리 장군님은 민족의 어버이  
저 하늘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우리 인민들은 그 태양계의 행성들  
어버이의 아들딸들이다

태양의 영원함을 모르는 하루살이같은 놈들  
네놈들 아무리 생쥐처럼 쏘라타거린대도  
깎을수 있다더냐 태양의 존엄과 업적  
가리울수 있다더냐 태양의 빛과 열기  
떼낼수 있다더냐 태양과 행성들을  
가를수 있다더냐 어버이와 자식들을  
어림도 없다 그 개꿈같은  
《급변사태》, 《체제변화》란

듣느냐 사대매국노들아  
미친개 리명박무리 때려죽이자!  
하늘 땅 메아리치는 울분의 이 웨침을  
똑똑히 알거라 분노의 가슴마다 펄펄 끓는 이  
용암은  
흘리는 상실의 눈물로  
네놈들에 대한 원한과 증오로  
더 강해진 힘과 용기  
더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이다  
네놈들 끝까지 결산할 멸적의 기상이다

터치리라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그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  
복수의 용암 화산처럼 터치리라  
기어이 꽃피우리라  
민족의 통일에 백해무익한 불한당 네놈들  
지구의 끝에라도 따라가 모조리 불사르고  
삼천리강산에 통일조국 대화원을

# 갈대가 참대로 된 흥미있는 형상

— 단편소설 《갈대숲서정》을 두고 —

김 학

바다가나 호수가, 습지대에서라면 흔히 볼수 있는 갈대, 한줄금 미풍에도 호느적거리는 연약한 식물로만 인식되어 주대없는 인간의 성격으로 비유되곤 하던 갈대...

너무도 수수하고 평범하여 별로 관심하지 않던 갈대가 일약 참대로 되어 사랑받게 되었다.

모진 바람이 몰아칠 때면 세찬 파도에 뒤채기고 바다물속에 잠겼다가도, 사나운 돌개바람에 휘말려 감탕에 넘어졌다가도 강철같은 힘으로 튕겨 일어나 맛받아후려치는 억센 식물로, 찌디짤 감탕속에 억척같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차게 생을 이어가며 곳곳이 줄기를 솟구치고 수수하게나마 소담한 갈꽃까지 피워 풍치를 더해주는 참대로...

《조선문학》잡지 주체100(2011)년 8호에 발표된 단편소설 《갈대숲서정》(곽성호 작)이 수수하고 이름없던 갈대를 참대로 만들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예술적흥미는 바로 일상생활에 체현되어있는 깊은 뜻을 새롭게 알게 되고 고상한 생활세계에 스스로 끌려들어가는데서 생겨나는것이다.》

단편소설 《갈대숲서정》에서는 어떻게 연약하던 갈대를 억센 참대로 만들었는가.

이 소설의 흥미는 어느 한 섬초소 병사들과 군인가족들의 생활속에 체현되어있는 깊은 뜻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것을 섬에서 자라는 수수한 갈대숲과의 비유를 통하여 재치있게 밝혀냄으로써 그들의 고상한 생활세계에 스스로 끌려들어가는데서 생겨난다.

갈대, 그것은 곧 섬초소의 군인가족들이었다.

《이 섬에 온통 돌과 바위뿐이던 먼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불평도 모르고 변함없이 억센 뿌리를 내리며 줄기차게 생을 이어가》는 갈대처럼 《무인도》라 부르는 외진 섬에 남편들을 따라와 아무런 명예도 보수도 바라지 않고 우리 병사들을 위해 진정을 바쳐가는 군인가족들, 보잘것없는것 같지만 고구마농사를 위한 가마니, 콩담는 용기, 땀감, 노전, 방풍나래 등에 쓰이며 《섬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갈대》처럼 병사들곁에 없어서는 안될, 병사들과 언제나 함께 있으면서 훈련도 생활도 지어 싸움까지도 함께 하는 군인가족들...

썰물로 드러난 해묵은 감탕을 퍼내어 바위돌들 사이에 채워 소금기를 빼내어 얻은 땅에 갖가

지 남새를 심어 가꾸고 지어 왕밤나무, 감나무밭까지 조성하여 군인들의 생활에 보탬을 주고 섬을 선경마을로 꾸려나가는 군인가족들.

《난 그저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우리 전사들의 기대에 따라서지 못하는게 안타까울뿐이에요...》

《힘들구 또 꼭 먹고싶은거랑 있을거예요. 그러니 뭐가 애로되는게 있으면 친누이라 생각하고 무릅없이 부탁해요. 난 그런 때가 제일 기쁘더구만요.》

한 전사의 까다로운 식성까지도 헤아려가며 《병사의 가슴속에 인민이 없으면 싸움을 못》한다고, 《이 섬에 아니, 이 땅 그 어디 병사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인민이 있다는걸 심장으로 절감하》도록 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병사들의 친어머니, 친누이—군인가족들의 지극한 정성을 떠나 어이 병사들의 랑만과 활력이 있으며 수수하나 복스러운 꽃까지 피우며 설레이는 갈대숲을 떠나 어이 《무인도》의 정다운 풍경과 서정을 말할수 있으랴.

그러한 친어머니, 친누이의 진정을 매일, 매 시각 느끼며 병사들은 《인민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는것, 《인민군대라는 우리 이름에서처럼 언제나 나란히》 함께 있다는것을 생활속에서 체득하게 되는것이다.

하지만 아직 나의 시점에서 군인가족들은 평범한 갈대였다. 그 갈대가 어떻게 억센 참대로 되는가. 형상의 발견이 여기에 있고 예술적흥미도 여기서 생겨난다.

《난 절대로 여길 못 떠나요. 이 준엄한 시각에 우리 군인가족들이, 인민이 병사들곁을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린 죽어도 살아도 병사들과 함께 있어야 해요.》

군인가족들은 단순히 병사들의 생활을 돌보아주는 친어머니, 친누이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비상소집훈련때면 배낭까지 메고 우리 중대와 함께서》고 준엄한 결전의 시각에는 병사들과 생사를 함께 하며 원썩격멸의 싸움터에 함께 서는 《령장없는 병사》였고 인민이었다.

여기서 나는 갈대를 억센 참대로 느끼게 되는것이다.

하다면 군인가족들이 병사들과 한전호에서 운명을 함께 하게 하는 그 비상한 결단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는가. 단순히 군인가족이라는 자각, 병

사들의 전우라는 자각, 총대의 땀 끈과도 같다는 그 자각만이었던가.

아니었다. 우리 군인가족들의 가슴속에는 《병사의 가슴속에 인민이 없으면 싸움을 못한》다는 신념이 있었다.

그렇다. 그들은 군인가족이기 전에 인민이었다. 《이 땅에 원주들이 덤벼든다면 군대와 인민은 함께 싸우리》라는 신념의 노래를 심장깊이 간직하고있는 인민이었다. 섬기숨에 깊이 뿌리박은 갈대처럼 군대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는 인민이었다.

별로 화장기도 없는 감실감실한 얼굴에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병사들을 위해 뛰고 또 뛰는 그 진정, 그 헌신에는 우리 인민군대와 함께 준엄한 결전의 길, 조국수호의 길을 나란히 걸으려는 우리 후방인민들의 그 지성, 그 마음, 그 뉘, 그 신념이 깃들어있었다.

그 인민의 마음으로 영실아주머니를 비롯한 섬초소의 군인가족들은 전사들의 생활을 보살펴왔고 싸움준비에 이바지해왔으며 준엄한 시각에는 판가리싸

움터에 함께 서서 싸우는것이다. 하기에 병사들의 가슴속에는 섬생활의 고독이 깃들수 없었고 오로지 전투적랑만과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수호정신, 원주격멸의 기상만이 차넘치게 되었던것이다.

결국 작가가 군인가족들의 평범한 생활속에서 시대의 진리, 인민의 모습을 발견한 그때부터 섬초소의 갈대는 조국수호결전장의 참대로 되었으며 소설에는 질은 갈꽃향기가 풍기고 갈대숲서정이 흐르게 되었다.

이 단편소설의 창작경험은 말해주고있다.

사상주제적내용과 잘 밀착된 자연세부의 비유적 형상, 그것은 독특한 예술적향기로 생활의 진리를 호홉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도의 하나라는것을.

우리 소설문단의 화원에 이채롭게 피어난 자그마한 한송이의 꽃—단편소설 《갈대숲서정》은 작가가 자기의 눈을 가지고 생활을 진지하게 투시하고 체험할 때 평범한 자연현상에서도 독특한 형상의 씨앗을 발견하고 꽃을 피울수 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 소 개

# 향토시인 김소월의 창작세계를 들여다보며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예술에서는 아름다운 자연도 인간과 생활을 뜻깊게 보여주는데 작용할 때에만 의의있는것으로 된다.》

민족수난기 향토시인 김소월의 시세계를 들여다볼 때 가장 크게 안겨오는것은 조국의 자연에 대한 그의 무한한 사랑의 감정이다.

김소월에게 자연은 필생의 남다른 연분을 맺었다고 볼 정도로 서로 깊이 침투되어있다. 농촌의 환경에서 태어나 아름답고 풍만한 산천과 어울리면서 첫 시정을 싹틔우고 향토속의 무한한 자양분으로 그 시정을 애모쁘게 자래운 시인 김소월.

농촌의 자연을 배경으로 향토를 딛고 성장하면서 조국의 산과 들을 남다른 정을 부어 노래한 시인 김소월의 뉘은 그의 많은 작품들에 진하게 비껴있다.

대표적으로 1925년에 쓴 그의 《시혼》은 자연에 대한 김소월의 시인적관점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도회의 밝음과 지절임이 그의 문명으로써 광휘와 세력을 다투며 자랑할 때에도... 외롭던 별러지 한마리가 그 무슨 서름에 겨웠는지 설새없이 울짓고있습니다. 여러분, 그 별러지 한마리가 오히려 더 많이 우리 사람의 정조답지 않으며... 별바람에 여위는 갈대 하나가 오히려 아직도 더 가까운 우리 사람의 무상과 변전을 서러워해주는 살뜰한 노래의 동무가 아니며 저 넓고 아득한 난바

다의 뛰노는 물결들이 오히려 더 좋은 우리 사람의 자유를 사랑한다는 계시가 아닙니까.》

시인은 운다. 《외로운 별레 한마리》의 쉬임없는 우짚음이 그의 눈물이다.

시인은 몸부림친다. 《별바람에 여위는 갈대 하나》가 그의 몸부림이다.

또 시인은 희망을 가져본다. 《저 넓고 아득한 난바다의 뛰노는 물결들》이 시인의 희망이다.

그것은 시인 김소월의 눈물이고 몸부림이며 희망인 동시에 조국과 자연을 일제에게 빼앗긴 인민의 눈물이고 몸부림이고 희망이다.

그리하여 시인은 잠시나마 어설프게 깃을 들었던 도회를 미련없이 떠나 고향의 자연속으로 돌아왔던것이다. 도회를 외면하고 향촌을 사랑했던 까닭에 김소월의 시에는 푸른 산, 따뜻한 봄, 잔디, 바람, 밤, 진달래꽃을 비롯하여 실로 정답고 애뜻한 정을 자아내는 자연적대상들이 무수하다.

시 《춘강》으로부터 시작하여 《랑인의 봄》, 《야의 우적》, 《자주구름》, 《붉은 조수》, 《등근해》, 《하늘》, 《봄비》, 《봄밤》, 《일야우》, 《진달래꽃》, 《금잔디》, 《개여울의 노래》, 《비단안개》, 《산우예》 등을 비롯하여 40여편이 자연적대상현상을 제목으로 하고있다.

100여편에 달하는 김소월 시들가운데서 40여편이 자연적대상현상을 시제목으로 하고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만 한것이다.

조국의 자연을 노래한 그의 많은 시들을 볼 때 눈에 뜨이게 두드러지는것은 봄과 밤에 대한 김소

월의 남다른 정서와 그에 깃들이는 철학적사색이다.  
우선 봄에 대한 시인의 서정과 다양하고도 깊은  
사색을 펼쳐보자.  
《춘강》(봄언덕), 《랑인의 봄》, 《봄비》,  
《봄밤》, 《바람과 봄》, 《오는 봄》, 《가는  
봄 삼월》...

속잎 푸른 고운 잔디 소리라도 내려는듯  
쟁쟁하신 고운 해별 눈 뜨기에 바드럽네

자주 들인 작은 꽃과 노란 물든 산국화엔  
달고 열은 인생 흘러 나비 벌이 잠재우네

복사나무 살구나무 불그스레 취하였고  
개창버들 파란 가지 길게 늘어 어리이네

일에 갇든 파린 소는 설은듯이 길게 울고  
모를 시름 졸던 개는 다리 벌고 하품하네

청초청초 우거진 곳, 송이송이 붉은 꽃술  
꿈같이 우리 님과 손목잡고 놀던델세  
(시 《춘강》)

이는 봄을 그린 한폭의 선명한 수채화이다.  
빨강고 노란 꽃, 금방 피기 전의 복사나무, 살  
구나무, 꽃망울은 이제 곧 피어날 기쁨과 열정으  
로 한껏 발가우리하다. 봄을 맞아 봄같이 나서  
야 할 소는 영각을 뿜고 겨울을 지내고 봄을 맞  
은 개는 따뜻한 토방에서 기지개를 켜다.  
《우리 님과 손목잡고 놀던데》인 춘강-봄언덕  
-고향!  
이는 봄에 걸어보는 시인의 꿈이다. 아울러 우  
리 인민의 꿈이다.

휘둘러 산을 넘고  
굽이진 물을 건너  
푸른 풀 붉은 꽃에  
길 걷기 싫음이어  
...

산길가 외론 주막  
어이그 쓸쓸한데  
먼저 든 짐장사의  
곤한 말 한 소리여  
(시 《랑인의 봄》 중에서)

이는 봄에 느끼는 랑인-시인의 서글픔이다.  
봄이 아름다울수록 더더욱 슬퍼지는 나라잃은  
인민의 마음.

얼울없이 지는 꽃은 가는 봄인데  
얼울없이 오는 비에 봄은 울어라

서럽다, 이내 가슴속에는!

보라, 높은 구름나무의 푸른 한가지  
그러나 해 늦으니 어스름인가  
애달피 고운 비는 그어 오지만  
내 몸은 꽃자리에 주저앉아 우노라  
(시 《봄비》)

이는 봄에 흘리는 시인의 눈물이다.  
봄비는 분명 고운 비이다. 금실은실을 방불케  
할 정도로 봄을 맞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옷자  
락에 스미는 비를 두고 이쁘게 여기리라.  
그러나 조국을 빼앗긴 시인-인민에게는 눈물로  
젖어드는 봄비이다. 자연의 봄비는 《고운 비》이  
건만 시인의 가슴속에 오는 봄비는 소리없이 가  
느다란 눈물일뿐이다.

봄날이 오리라고 생각하면서  
쓸쓸한 긴 겨울을 지나보내라  
오늘 보니 백양의 뺨은 가지에  
전에없이 흰새가 앉아올어라  
...

보라 때에 길손도 머뭇거리며  
지향없이 갈 발이 곳을 몰라라  
사무치는 눈물은 끝이 없어도  
하늘을 쳐다보는 설음의 기쁨  
(시 《오는 봄》 중에서)

이는 봄에 기탁한 시인-인민의 희망이다.  
봄은 희망이고 차고 쓸쓸한 긴 겨울을 이겨내야  
봄이 오는 법이다.

시제목을 《오는 봄》이라고 단 시인의 의도는  
매우 랑만적이다. 이렇게 김소월의 시에는 남달리  
봄이 많다. 야속하게도 김소월의 봄은 《하늘을  
쳐다보는 기쁨》 정도에서 그 려곡이 끝나버렸다.

《봄》을 통하여 시인의 기본서정과 그 제한성  
까지를 파악하게 한 여기에 김소월의 시인적개성  
이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다음으로 밤에 대한 시인의 그윽한 서정과 깊은  
사색을 펼쳐보자.

김소월은 자기의 논문 《시론》에서 다음과 같  
이 쓰고있다.

《무엇보다도 밤에 깨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십시  
오. 우리는 낮에 보지 못하던 아름다움을 그곳에  
서 볼수도 있고 느낄수도 있습니다. 파릇한 별들  
은 오히려 깨어있어서 애처롭게도 기운있게 몸을  
떨며 영원을 속삭입니다. 어떤 때는 새벽에 저가  
는 고요한 달빛이 야릇한 한조각이 승엄한 채  
운의 다정한 치마귀를 빌어 그의 가련한 한두  
줄기 눈물을 묻지르기도 합니다.

여보십시오, 여러분. 이런것들은 적은 일이나마  
우리가 대낮에는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던  
것들입니다.》

확실히 시인은 밤을 남달리 사랑했다.  
아마도 그것은 밤이 앞서 서술한바 있는 《도회

의 밝음과 지껄임》과 《문명》과 《광휘》와 상반되는 《우리 사람의 정조》를 상징하고있는데 문인지도 모른다.

시인은 밤의 고요를 사랑하였던 까닭에 밤에 대해 많이도 노래한듯싶다.

《해가 산마루에 저물어도》, 《찬 저녁》, 《눈오는 저녁》, 《꽃초불 켜는 밤》, 《서울밤》, 《야의 우적》(밤의 비방울), 《여름의 달밤》, 《비온 저녁에》, 《밤》, 《공원의 밤》, 《저녁때》, 《봄밤》, 《일야우》(비내린 밤)...

진정 우의 시들에는 가장 조선적인것, 민족의 정취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아름답게 보고 귀중히 여기는 시인의 애국적감정과 깊은 정서가 흘러넘친다.

김소월의 밤에 대한 시들을 한줄로 꺾어볼 때 역시 밤에 대한 편곡을 방불케 한다.

다가오는 밤, 깊어오는 밤, 인가마다 고즈닉이 잠든 밤, 꿈에서 깨어 도저히 잠들수 없는 밤, 향촌의 밤, 서울밤...

봄이며 밤에 대한 시인의 끝모를 서정은 그 다양한 립체미로 해서 더욱 유난하다.

이외에도 《산》, 《개여울의 노래》, 《하늘 끝》, 《바다》, 《비단안개》, 《구름》, 《개아

미》를 비롯하여 사랑하는 고향산천과 삼천리 조국강산의 아름다움을 여운질게 노래한 시들이 많다.

비판적사실주의시인으로서 김소월은 자연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노래함에 있어서 항상 그속에 뜻을 심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연은 그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의도 없다. 거기에 인간의 감정과 그리고 어떤 자연적대상이든지 해당 시간과 공간의 여하에 의해 그 의미가 달라지기마련이다. 이러한 리치에 의해 김소월의 《봄》이 그렇듯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것이며 《밤》도 여러 각도에서 비추어지게 된다.

향토를 그리도 사랑해왔으며 태를 묻은 그 고향의 자연속에 뼈를 묻은 김소월.

그처럼 조국의 자연을 사랑하고 자신의 재능을 초월처럼 태워 조국을 노래하고자 했던 시인은 일체의 발악적인 민족말살정책으로 그 지혜와 재능도 빛을 보지 못하였다.

조국의 자연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충만된 김소월의 시세계를 들여다보며 우리는 민족수난기에 애국시인들의 절절한 심정과 뜨거운 정신세계를 본다.

류 병 관

## 자 료

# 폴즈워디와 희곡 《분쟁》

폴즈워디, 존(1867-1933)은 20세기 전반기에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벌인 영국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대표적작가의 한사람이다.

그는 런던 서남부의 부유한 변호사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폴즈워디는 부모의 요구에 따라 옥스퍼드종합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하고 1890년에 변호사의 자격을 받았으나 문학창작에 뜻을 두게 되면서 변호사의 직업을 버리고 직업적인 작가로 되었다.

폴즈워디는 부유한 부르조아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자기가 창작한 문학작품들을 통하여 영국지배층과 자본계급의 보수성과 위선, 부패상을 까밝히고 폭로하였으며 가난에 허덕이는 불쌍한 사람들을 줄곧 동정하여나섰다.

대표적작품들로는 장편소설 《파리새사람들의 섬》(1904), 《재산가》(1906), 희곡 《은담배곽》(1906), 《공정한 재판》(1910)이다.

하지만 그는 말년에 계급투쟁을 외면하고 도덕률리문제에 치우친 나머지 장편소설 《재산가》의 속편들인 《궁지에 빠져》(1920), 《세놓을 집》(1921)과 같은 작품들도 썼다.

폴즈워디는 또한 적지 않은 시작품들과 평론들도 내놓았으며 30여편이나 되는 희곡들도 썼다.

그는 자기의 작품들에서 시종일관 부패한 부르

조아계급을 폭로하고 유산가들의 압제밑에 신음하는 불쌍한 하층사람들을 인도주의적립장에서 동정하고 옹호해나섰다.

그가 특히 격분하여 단죄한것은 허위로 가득찬 영국의 부르조아민주주의와 그에 기초한 재판제도였다.

희곡 《분쟁》은 폴즈워디의 작품들가운데서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사이의 격렬한 투쟁을 보여준것으로 하여 이채를 띠는 작품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본가들은 사람을 하나의 상품으로, 기계의 부속물로 간주합니다.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근로하는 인민은 리윤을 가져다주는 한에서만 의의 있는 존재로 되는것입니다.》

희곡에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접경지대에 있는 지방의 트레나다주석공장을 무대로 하고 가혹한 착취에 항의하여 파업을 일으킨 노동자들과 그들을 강권으로 굴복시키려는 공장주들사이의 타협없는 싸움을 기본이야기로 펼쳐놓고있다.

파업노동자들은 선진적인 노동자인 데이비드 로버츠의 지도밑에 이미 6개월째나 완강하게 일하기를 거부하고 임금인상을 비롯한 자기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줄것을 공장주들에게 요구한다. 그동

안 아무것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굶어죽어간다. 공장 리사회 의장인 존 안쏘니는 이미 30년동안이나 그 자리에 있으면서 네차례의 노동자들의 파업을 매번 강다짐으로 짓밟아버린 악독한 자본가이다. 이자는 주인의 권리를 절대로 양보할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리사들과 지어 아들과 딸까지도 부분적인 양보로써 파업을 결속짓고 공장을 돌리자고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

파업으로 공장의 주주들도 이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그런데 여기에 교활한 기회주의자로서 노동계급의 배신자인 트레이드 유니온(노동조합)의 간부 사이먼 하니스가 끼여든다. 하니스는 분쟁양측에 서있는 로버츠와 안쏘니를 다같이 배제하고 노동자들에게 극히 보잘것 없는 양보로써 그들의 파업을 실패어로 이끌어갈 음모를 꾸민다. 여기서 이자는 노동자들은 극도의 굶주림으로 하여, 자본가들은 커다란 손해로 하여 다같이 동요하고있다는것을 리용하려고 한다.

더구나 마지막담판을 앞두고 로버츠의 안해가 굶주림끝에 죽는다. 로버츠는 안해의 죽음을 두고 더 계급적증오감에 불타며 투쟁결의를 가다듬지만 적지 않은 파업로동자들속에서는 심한 동요가 일어난다.

바로 여기에 끼여든 하니스의 교활한 작간에 의하여 로버츠와 안쏘니는 분쟁문제의 결정에서 배제되고 파업은 타협으로 결착된다.

이리하여 것처럼 오래동안 무수한 고통을 겪으

며 굴함없이 싸워온 노동자들의 투쟁은 실패하고 만다.

희곡에서는 영국자본가들의 악착한 본성과 그것을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과 《인정》의 보자기로 감싸려고 애쓰는 그들의 허위적몰골을 날카롭게 폭로하고있다. 또한 노동계급의 투쟁이 실패하는데는 일부 노동자들이 계급적으로 각성되지 못하고 난관앞에 동요하는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기회주의자들이 가증스러운 배신행위를 하는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골즈워디는 자신이 지배계급, 자산계급이었으나 부르쥬아지의 악독한 착취행위와 허위적몰골에 격분을 표시하면서 그들을 되게 매질한 작품들을 내놓았던것이다.

그가 그렇게 한것은 결코 자기 계급과 사상적으로 결별한것은 아니였고 다만 부르쥬아인도주의적립장에서 불만에 찬 목소리를 터친것이였다.

이런데로부터 골즈워디는 희곡 《분쟁》에서 보다싶이 노동자들의 파업이 자본가들과의 타협으로, 실패로 끝나고 옳은 투쟁방법과 원칙을 제시하지 못한것과 같은 제한성을 나타내고있다.

그러나 골즈워디는 풍부한 문학적성과를 이룩한것으로 하여 영국과 유럽의 진보적작가로 널리 알려져있으며 영국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김 명 옥

## 조선문학 주체101(2012)년 제3호 (루계 제773호)

편 집 위 원 회

내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 쇠 소 평 양 종 합 인 쇠 공 장

인 쇠 주 체 101(2012)년 3월 1일

발 행 주 체 101(2012)년 3월 5일

ㄱ-26098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2

D P R Korea

ISSN 1727-9437